



1

주 체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1 호

(루계 제 603 호)



◇◇◇◇◇◇◇◇◇◇

## 차 례

◇◇◇◇◇◇◇◇◇◇

새해의 노래 .....	4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	5
태양 .....	7
수령님은 오늘도 별로 부르시네 .....	8
영생의 기적소리 .....	8
의리 .....	9
여기선 심장만이 말한다 .....	10
장수봉에 은하수 비끼다 .....	13
영생의 년호 .....	16
김정일각하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	18
눈보라를 헤치시며 이어가시는 인민위한 사랑의 길 .....	19
뜨겁다, 나의 타빈소리 .....	21
얼굴빛을 보시고도 .....	22
우리는 영원한 동행자 .....	23
세기의 영광 .....	27
주체 87 년 새해여 .....	28
5 중대 방위목표 .....	29
맑고 푸른 하늘 .....	39

조국이여 더욱 빛받치라 .....	40
충효의 화신 .....	41
내 조국은 지금 아침이다.....	41
나는 강관에 자호를 쓴다.....	42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	43
조국이 부르는 소리 .....	48
수령영생기원의 숭엄한 서사시적화폭.....	49
시련과 승리 .....	54
행복의 방아 .....	56
먼 후날에도 부끄럽지 않게... ..	64
거울같이 산 이름들 .....	66
마지막한발 .....	66
인생과 신념 .....	67
달이 웃는 탄전의 밤이여.....	71
매혹 .....	72
룡문대굴에서.....	79

# 새해의 노래

김철

새해입니다  
주체 87 년!  
년호부터 새롭고 뜻이 깊은  
  
새해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높이 추대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장군님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도 승리로 이끌고  
새 희망 새 포부로 가슴들이 부풀은  
아침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눈보라 눈보라가 그리도 세차더니  
이 아침은 어찌면  
어찌면 이리도 밝고 환합니까

우려롭니다  
높이높이 떠오른 태양의 모습  
새기여 들습니다  
찌렁찌렁 울리는 령장의 음성

다짐합니다  
장군님 손들어 가리키시는  
영광의 진군길을 내다보며

맹세합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장군님 세워주신 영예로운 초소에서  
말잘하는 자식아닌  
일잘하는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견결하게  
근기있게  
착실하게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투사가 되겠습니다  
한결음의 정지도 퇴각도 모르는  
한치의 편차도 양보도 모르는  
돌격하는 전사들이 되겠습니다

장군님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 없다는것을  
장군님만 모시면 그 어떤 대적도 이긴다는것을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것을  
력사와 인류 앞에 똑똑히 보여준 우리이기에

자신만만합니다  
용기백배합니다  
가까이  
가까이  
통일되고 부강하고 무궁토록 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아  
우리 당 총비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여

부디 건강하시라  
바라고 바라는  
희망찬 새해  
도약의 새해  
장군님을 높이높이 모실  
마음도 새로운 새해입니다  
큰 걸음 내딛는 아침입니다

##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리창유

환호성 울려간다. 백두대산줄기 련련히 뻗어내린 금수강산 삼천리 내 조국,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국으로 이름난 내 나라, 태양민족의 주체년호가 흐르는 이 땅우에 21세기의 인류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을 담은 우렁찬 환호성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진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끝없는 환희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각, 사람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높이 부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 목청껏 환호성을 터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온 세상에 노래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크나큰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송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환호성을 가사의 사상적핵으로 제시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시며 사회주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위업을 총대로 지키시는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적내용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또한 송가의 1, 2, 3절의 후렴구인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이라는 표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우렁찬 환호성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적핵을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구절구절을 깊이 음미해보면 불수록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송시의 구절이 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뫼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걸출한 위인의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만민이 칭송하는 정사를 펴시여 모두다 한결같이 우러르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우렁찬 환호성을 올리는 생동한 시적화폭을 펼쳐보인 불멸의 송시.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위업수행의 탁월한 령도자로, 사회주의와 자주위업실현의 영명한 지도자로 우러러모시고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을 《**김정일**장군 만세!》의 환호성으로 이어가며 영원히 한길을 따라 역세게 나아갈 인민의 굳은 신념과 맹세, 순결한 량심을 뜨겁고도 절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 송가가 불후의 명작으로 된 거대한 의의와 사상예술적높이가 있고 시대와 인민의 요구와 사상미학적감정이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 된 비결이 있다.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또한 그 내용이 심원한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적풍격이 비상히 높다.

가사의 1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라는 사상적내용을 구가하면서 일찌기 백두산에서 조선의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이께서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인민의 령도자로 추대되시였고 그로 하여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계시는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일뿐아니라 혁명의 성산이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은 백두대산줄기로 이루어진 금수강산 삼천리이다. 반만년

력사국으로 세상에 알려진 조선, 유구한 문화와 애국전통으로 이름높은 조선 우리의 조국 조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20여성상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었다. 백두에서 시작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의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혈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무적필승의 장군으로 성장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세계 그 어느 위인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혁명가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었고 남다른 가정교양과 다난한 생활체험속에서 인민의 령도자로 성장하시였다.

인민의 령도자!

《**이민위천**》을 혁명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인간애와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였으며 그것을 투쟁의 철학으로,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완성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신의 운명과 미래도 경애하는 장군님 품에 맡기고 그이를 인민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궁지와 영예로 하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친다.

송가의 2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펼치시여 사람들모두다 마음껏 자주적삶의 기쁨을 누리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락원으로 가꾸신 그 위대한 혁명업적을 노래하면서 그로 하여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음을 뜨겁게 칭송하고있다.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 장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람마다 성격상특징과 경력, 자질에 있어서 천충만충이지만 그들모두를 충하없이 대하시고 믿어주시는 그이의 인덕정치, 광복정치.

그 넓으신 품에 안겨 대지의 천만꽃도 대해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활짝 피어나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쌓으신 혁명업적에 있어서도 동서해의 푸른 물에 비할만큼 그 깊이와 폭이 심원하고도 거창하다.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의 영광과 존엄, 우리 조국의 창조와 번영에 비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혁명의 수도 평양의 웅장화려한 거리들과 기념비적건축물마다에도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여 세인을 경탄케 한 우리 식 문학예술의 대화원의 알찬 명작마다에도 그리고 사람마다 동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고상한 도덕의리의 산모습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하기에 오늘의 이 행복, 인간의 아름다운 미덕에 대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녕 그이는 우리 인민 모두의 행복을 마련해주시고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해주시고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어주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송가의 제3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불패의 보루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헤치며 전진하는 영웅적인민으로, 우리 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 장군

눈비 내리는 험한 산밭도 오르시고 아슬아슬한 벼랑길도 넘으시며 병사가 있고 초소가 있는 그 어데나 찾아가시여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인민군용사들을 무적필승의 대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파도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외진 섬초소도 찾으시고 미제와 직접 마주선 최전연 관문점의 초소도 찾으시여 우리 인민군병사 한사람 한사람에게 철의 담력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주체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와 압력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의 기치 더욱 높이 추켜드신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하기에 하늘땅을 뒤흔드는 오늘의 환호성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쉬임없이 걸고걸으신 수천수만리 전선길에서 병사들이 눈물속에 울리던 환호성이며 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사회주의 불패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주의운동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폭풍같은 환호성이다.

이렇듯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 신념과 의지에 매혹되었으며 그분의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품모 백전백승의 령도력에 완전히 매혹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21세기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그이의 위인상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환호성으로 일관된 심원한 사상적내용을 담고있다.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또한 시적계기가 명백하고 양상이 밝으며 시어가 심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수 있도록 정화되어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송가의 시적계기는 어찌하여 삼천리금수강산에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이 높이 올라가는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시적계기의 해명은 곧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우리 나라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주신 행복의 창조자이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불패의 보루를 일떠세우신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적내용을 명백히 규제해주고있다.

송가는 후련구에서 다시한번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칭송의 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한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이라는 환호성의 시적형상을 생동하게 강조함으로써 시의 사상적내용을 뚜렷이 해주 고있으며 시의 양상을 우리 인민의 환호의 감정으로 밝게 채색해주고있다.

송가는 자자구구가 깊은 뜻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그 어느 시구도 다른 표현으로 대신할수 없을만큼 엄선되어있다.

《백두산 즐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가!

송가는 또한 적절한 비유로 깊은 내용을 극도로 함축하여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등이 그러하다.

참으로 이 불멸의 송가의 매 시구는 그 자자구구 새기면 새길수록 깊은 뜻이 담겨져있고 그 표현의 정확성과 형상적비유의 기발성, 문체의 생동성에 있어서 명작의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담보해주고있다.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새해 진군길에 혁명의 붉은기를 더 억세게 휘날리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순결한 량심과 억년 드눌지 않을 혁명적신념에 떠받들려 21세기 태양의 송가로 높이높이 올려퍼질것이다.

## 태양

모한 듀월

그이의 모습은  
방금 솟는 태양과 같이  
장엄하시여라  
그이의 빛발은  
온 대지를 밝게 비치여라

태양이 솟아오르면  
사나운 폭풍도 사라지고  
노한 파도와 같이  
불의를 쓸어버리는  
정의의 싸움은 승리하나니  
그이의 고상한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의 심장속에 빛나라

그이는 김일성  
끊임 없는 사색으로  
꽃을 피우고  
그이의 위대한 사상은  
온 지구를 밝게 비친다

하기에  
세상에 두려운것 없고  
신뢰의 정 두터워지나니  
태양에 그늘이 비끼게  
하려는자들  
태양의 빛을 달가와하지 않는자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태양은  
평양의 창문, 광장, 공원마다를  
더욱 밝게  
비치나니

그 빛발아래  
만물은 더 아름답게 피어나누나

(필자는 네팔 《잔마프》 잡지사 주필임)

# 수령님은 오늘도 벌로 부르시네

박두천

새벽안개 밀어내며  
바빠 벌로 나갈 때면  
그날처럼 소문도 없이 찾아오시여  
아버이수령님 포전길에 서계시는듯  
나에게 힘을 주시던 그 음성 들려와라

우리를수록 못잇는 태양의 그 미소  
따스한 온기로 이 몸을 녹여주시고  
풍년을 불러오는 봄향기인양  
눈덮인 대지에선 아지랑이로 피어올랐어라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려  
눈비를 맞으시며  
우리 농장에 찾아오신 그날에도  
관리위원회로 안내하는 일꾼들을 만류하시며  
눈덮인 벌로 우리를 이끄신  
수령님 자옥은 이 포전길에 새겨져있나니

얼어붙은 흙덩이도 깨여보시며  
흙갈이도 다시 해야겠다고  
올해의 거름은 얼마나 장만했는가  
다정히 물어도 보시며  
눈덮인 벌에서  
떠나실줄 모르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한평생 벌에서 사시며  
풍년열쇠를 안겨주신 수령님  
별은 그이의 행복의 터전  
별은 그이의 온기로 오탁이 무르익어  
로적가리 솟아오른 곡식의 바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워지는 이 마음  
수령님 영상 우리르면  
어서 벌로 나가자고  
나의 등을 다정히 떠밀어주시듯  
그이께서는 풍년든 전야를 굽어보시네

아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벌로 부르시네  
진눈까비 날리던 그날의 그때처럼  
만풍년의 가을만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드는 길이라고

농장벌에 찾아오신 그날의 그 새벽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환히 지으시며  
아버이수령님 포전길에 서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의 생명선  
아 만풍년의 벌로 우리를 부르시네

# 영생의 기적소리

최창근

또 어디로 떠날듯이  
렬차는 궤도에 멈춰서있다  
탑세워 창공에 받들어 울리고픈 렬차건만  
잠시 여기 서있는듯

렬차가 다시 떠나지 않는다면

왜 여기에 세워두는것인가  
혁명박물관에 영구보존하였을것을  
집무실에서 이제 수령님 나오시면  
인민들속으로 또다시 떠날 렬차여

비에 씻기고



눈에 씻기고  
바람에 씻기여  
부시도록 깨끗한 렬차  
수령님 한생을 다 말해주며  
금수산기념궁전 지붕아래 서있다

수령님 미소가 차창에 비끼고  
인민의 마음이 따라서던 렬차  
주체의 최고성지에  
수령님과 함께 렬차는 서있다

한생의 길도 인민과 함께  
영생의 길도 인민과 함께  
순간도 떨어져선 아니될  
인간사랑의 꽃수레이기에  
오늘도 자신가까이 두시고  
오신길을 회고하시며  
가실길을 내다보시는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우리 수령님  
곧바로 인민의 심장속으로 물고오신  
《인민행렬차》여  
달려온 길 천만리던가 억만리던가

눈비속에 험한령을 헤쳐넘어도  
지경넘어 이국광야를 횡단해도  
평생을 이어오신 주체의 궤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몰랐거니

## 교훈시

목숨이 무거웠더냐  
의리가 가벼웠더냐

피를 뿜어 맹세는 함께 다지였어도  
그를 지키는 누구며 버린 누구냐

산간오지와 공장구내길에서  
차마를 잇고 트랙을 잇고  
수령님 인민들과 함께 제시던  
달리는 집무실이어

아 수령님과 함께 렬차는 있어라  
《이민위천》의 나래를 달고  
인덕세계를 달리던  
《인민행렬차》여

아직은 못다찾은곳 있고  
아직은 못다찾은 벚들이 있어  
못잇을 산천 정다운 이름 부르며  
렬차는 궤도우를 내리지 않았다

림진강 철교를 건너  
통일의 광장에도 들어설 렬차  
인민은 그 은은한 기적소리 듣나니  
수령님 가시던 그 길로  
경애하는 장군님 변함없이 이어가시기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태양의 모습 모시고 렬차는 달린다  
이 세상 모든 생활의 역들은  
영생의 기적소리를 듣는다

## 의리

김응하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지키는  
별처럼 빛나 노래속에 영원하고

의리를 버리고 목숨을 구한자  
막돌처럼 버림받아 발끝에 채이노라

시조

## 여기선 심장만이 말한다

김휘조

### 나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간다

내몸 실은 전동차는 지금  
해빛속을 조용히 미끄러져가고  
차창가에 바람은 숨엄히 속삭이고  
톡톡 뛰는 이 가슴  
나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간다  
억센 기둥인양 마음속에 언제나  
푸른 나무 뿌리내려주는곳으로

희망에 부푼 나래를 안고  
내 가는 탐구의 길엔 때로  
황야의 가시덤불 마주올 때도 있어  
차디찬 눈얼음이 가로놓일 때도 있어

그러면 내 마음 때없이 찾던곳이여  
그러면 이 가슴에 화창한 봄마냥  
힘찬 약동이 일어서고  
눈얼음이 녹아버리고  
과학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이 하시던 말씀 내가 들던곳이여  
마음속에 꽃피는 들판이 안겨들던곳이여

마음의 기둥없이  
자신에 대한 믿음없이  
인생의 먼길을 못가는것 사람이더라

그래서 세상엔 신비와 숭상의 성지  
순례의 행렬들 찾아가며  
마음을 의지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성지들 있지 않던가

내 마음의 의지여라, 금수산기념궁전은  
내 몸에 열을 주고 순결한 피를 주고  
불같이 뜨겁고 썸같이 맑은  
생동한 사상 자양으로 부어주는

나의 믿음이여라, 금수산기념궁전은  
수령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계시는  
그 지혜 길을 헛들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나니

우리 어떻게 밝은 오늘로 왔으랴  
그 믿음 없다면  
이제 또 어떻게 먼길을 가랴  
나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간다  
오늘도 나를 밝은 래일로 떠밀어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주체의 성지  
가장 위대한  
태양의 성지로 나는 간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오래도록 발걸음 못떼노라  
세계의 평양에 있는 궁전  
생전에 우리 수령님 일을 보시던  
금수산기념궁전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열이 끓는 적도의 하늘밑에서  
파도 높은 대서양기슭에서  
그이 이름 불러 힘을 얻으며

어디선가 들려온다 종이우에 그이의 펜이 달리고  
글자마다 빛나는 사상이

보석처럼 빛을 뿜는 소리  
숨얼한 정적속에 나는 듣는다  
사색을 헤치시는 그이의 발걸음소리  
먼먼 하늘길을 온 벗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수령님  
우렁우렁하게 울리는 목소리

그이께서 인민을 안으시고  
20 세기를 뚫고 21 세기를 내다보신곳이여  
위대한 사상의 섬광으로  
사람들의 눈앞에 안개를 헤쳐주신곳이여

그이의 거대한 호흡이  
오늘도 바람소리로 흐르고  
거룩한 예지가 번뜩이는 여기  
여기엔 하늘의 해가 없는 흐린날에도 광명뿐  
하늘에 별꺼진 밤에도 광명뿐  
여기 왔다간이는 어둠을 모르리

여기 왔다간이는  
용기백배 앞으로만 나가리니  
나는 지금 듣는다 설레며 사품치는

대하처럼 대하처럼  
지구우 그 어디서나  
자주의 길로 나가는 벗들의 발걸음소리  
짙은 어둠을 헤치며  
붉은 기발이 새아침을 향해 펴력이는 소리  
메마른 땅에 푸른 움을 틔우려  
얼음을 녹이며 봄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인민의 력사가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는  
힘찬 초침소리 여기 들리나니  
굶주려 쓰러진 아이들을 안아일으키며  
설움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역의 땀을 씻어주며  
세계에 평화가 오는 소리 여기 들리나니

금수산기념궁전이여  
내 한가슴엔 다 안을수 없는곳이여  
세계에 평양이 있고  
평양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안았더나  
금수산기념궁전이  
온 세상을 안았도다

## 여기선 심장만이 말한다

내 경건히 들어서서 금수산기념궁전  
수령님모습 뵈옵는 순간  
-아, 수령님!  
나도 모르게 이 마음 웨치는 소리  
그 다음엔 내가슴에 대인 손에서  
쿵쿵 심장이 뛰는 소리

한마디 말도 할수 없구나  
격동이 너무 커서  
위대한 어버이 여기 계시다  
온 세상의 태양앞에 나는 서있다

오늘도 그이 펼치시는 노을빛앞에 서니  
붉은 기발이 펴력이는 소리 들린다

어제날 밤이 끝없을듯 얼어들던 그 세월  
우리의 체온을 덥혀준 기발  
우리 가슴에서 피눈물을 닦아주고  
아침노을이 펼쳐준 그 기발의 퍼덕임

우러르면  
발벗은 내 어린 시절이 끝나고  
머리위에 푸른 하늘  
밝은 해빛 떠날줄 모르는  
내 나라를 세워주신 그이의 로고  
위대한 한생이 어려와라

얼마나 먼길을 인민 위해 걸어오셨던가  
자신은 언제나

인민의 성실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인민에게 위대한 사회주의를 주신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 위해 심장을 다 바치신분

그래서 여기선  
심장만이 말한다  
심장의 고동소리보다  
더 진실한 말 세상에 없기에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승업한 정적을 깨친다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시던것만을 생각하며  
온몸의 피가 끓으라고

언제나 그이 가리키신 그 길로만  
힘차게 걸으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 푸른 하늘은 풍요한 대지는  
영원히 인민의 것이라고

## 내 다시 찾아오리라

나는 가노라  
뒤돌아보면 금수산기념궁전  
푸른 숲너머 큰 길너머 저 먼 앞에는  
새날을 향해 로동이 들끓는 나의 초소

세상에 천만갈래 길이 많아도  
가장 참된 삶을 향해 가는 길  
우리 다른 길은 모르나니  
수령님 가리키신 길밖에  
내 수령님 전사라고 한마디  
땃땃이 말할수 있게 그 길을 걸어가리

걸음걸음 사무치는 생각을 안고가노라  
다시 돌아보면 세상 가장 위대하신분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내 가는 초소  
불꽃튀는 기대소리에 귀기울이시는듯  
더 빨리 돌리라고  
손 흔들어 고무하시는듯

궁전이며, 세상위에 높이 솟은 태양의 집이며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신분  
그이의 참된 전사라고  
한마디 땃땃이 말할수 없이는  
다시 올수 없구나

내 언제나 기대를  
만속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내 마음 일터에 타오르는 불이 되지 않고서는

내 언제나 창조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리라  
그리고 아침저녁 여기를 생각하리라  
그러면 용기를 주리  
오직 그이께서만 주시던것  
지혜의 샘물로 이 마음 적셔주리  
신념의 산악으로 마음을 받들어주리

그 지혜, 그 신념 가슴에 안고  
붉은기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내 조국에  
나의 량심 나의 영예  
값높은 로력의 열매를 바치리라  
또한분의 우리 수령님  
**김정일**장군님 높이 받들어

그리하여 이 가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차넘칠 때  
금수산기념궁전이며 내 다시 찾아오리라  
찾아와 어버이수령님을 뵈우리라  
내 다름아닌 수령님 전사임을  
푸른 하늘아래 눈부신 해빛아래  
땃땃이 자부하면서

## 장수봉에 은하수 비끼다

평퍼물에서 그리 멀지 많은 보천군의 어느 한 산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왜놈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살 곳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고장에 보짐을 풀기 시작하여 생긴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조승재라는 포수가 살고있었다.

승재는 마음이 착하고 순박하였으나 대가 있고 의리가 밝은데다가 세상물정을 환히 알고있어서 마을사람들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따랐다.

맑고 깊은 물에 고기가 모여들듯이 사람들은 그의 집에 마실을 와서 새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집안의 어려운 일도 의논을 하였으며 간혹 이웃간에 생긴 불화도 그 시비를 가르려 찾아오곤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모두 옳게 여겼으며 조금도 의혹을 가지고 머리를 기웃거리리는 일이 없었다.

조국이 광복되기 몇해전 어느해 겨울이었다.

때는 립춘이 지나고 우수를 얼마 앞둔 2월중순이었으나 여기 백두산엔 겨울이 한창이어서 몹시 추운 계절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 갑자기 날씨가 훈훈해지더니 때아니게 맑은 하늘에서 봄우뢰가 울었다.

그 우뢰소리는 얼마나 장엄하던지 하늘땅이 진동하였다.

이윽고 백두산천지에서부터 남쪽으로 칠색이 령롱한 쌍무지개가 비끼었다.

저녁노을이 곱게 물든 하늘가에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비끼니 그 황홀경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남너로소 할것없이 마을사람들은 모두 집집에서 뛰어나와 백두산쪽을 바라보며 《야! -야!-》하며 탄성을 질렀다.

예로부터 이상한 천기는 다 뜻이 있는것이라 하였으니 어떤 길흉화복을 예고해주는 하늘의 계시일까? 마을사람들의 가슴엔 궁금한 생각이 깃들었다. 조종의 산에서 겨울에 울린 때아닌 봄우뢰와 쌍무지개는 그들에게 그 어떤 희망을 안겨 주기도 했다.

마을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저도 모르게 의례히 조포수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조포수는 집에 없었다.

안해의 말이 어데 간다는 말도 없이 새벽에 나갔는데 저녁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주인은 없으나 포수네 집은 마을사람들로 붐비

였다.

누구나 그가 이제라도 돌아오지 않으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조승재네 집에 온 사람들은 정지간에 모여앉아 오늘저녁에 있는 이상한 천기에 대해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

《내 80평생 살아오지만 그런 이상한 천기는 처음 보네.》

한 로인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로인이 말을 받았다.

《나라에 대통령이 틀 징조가 아닐가요? 몇해전 보천보전투가 있을 때에도 그전날 백두산에 무지개가 비끼지 않았됐나요. 그후에도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거사를 하실 때마다 늘 무지개가 비끼곤했는데 오늘은 쌍무지개가 비끼고 겨울에 봄우뢰까지 울었으니 분명히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조짐이요.》

마을사람들은 무어라 말할수 없는 희망을 안고 기쁨에 넘쳐있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웠으나 기다리는 조포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퍼그나 깊어지자 마을사람들의 머리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조포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마주보는 눈빛엔 이런 생각을 품고있는것이 력연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산으로 조포수를 찾으러 가려는것이였다.

그러자 늙은이들도 따라나섰다. 젊은이들이 로인들은 집에 계시라고 몇번이나 말렸으나 누구도 남으려고 하지 않고 한사코 가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모두 향방없이 어림짐작 앞산으로 올라갔다. 물론 조포수의 안해도 함께 갔다.

하늘엔 숯덩이처럼 시커먼 구름이 짙 덮여 한 치앞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산속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마치 통채로 얼어붙은듯 나무가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참으로 다행이였다. 늙은이들과 아낙네들도 다 따라나섰는데 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랬다면 백메터도 못올라가고 일이 생겼을것이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밤은 바람 한점 없이 무척 고요하였다.

그들은 추운줄도 모르고 허리까지 치는 눈을 헤치면서 나무를 두드리며 온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오르내리였다. 아무리 찾아헤맸으나 조포수

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덧 푸름푸름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기진맥진해져 눈우에 털썩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였다. 순간 하늘에 밝고 광휘로운 빛발이 쪽 가로지나가는 것이었다.

너무도 순간에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보지 않았나 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무심결에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때 하늘에서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먹장같은 구름들이 산산이 흩어지더니 별무리가 금은보석을 뿌린듯 쪽 펼쳐지면서 백두산 장수봉쪽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 무지개가 비끼듯이 은백색의 령롱한 은하수가 장수봉 하늘우에 비끼었다.

큰별, 작은별이 있는가 하면 별찌처럼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별도 있었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을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온몸에 우썩우썩 힘이 생기고 막 성수가 났다.

그들은 조포수를 더 찾아다니지 않고 되돌아섰다. 그사이 혹시 조포수가 길이 어긋나 집으로 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마을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포수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조포수가 어느 산으로 갔을까 하고 의논을 하였다.

서로 생각이 갈지 않아 한창 론쟁이 분분할 때였다.

그처럼 온밤 찾던 조포수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임자 어디 갔다 인제 오나? 온밤 찾아헤맸는데...》

마을사람들은 달려나가 조포수를 둘러싸고 몹시 기뻐하였다. 헌데 그는 마을사람들의 말에는 아랑곳없이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담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여러분네들은 어제밤에 있는 이상한 천기를 보시지 못했습니까?》

《왜 못보았겠나? 어제저녁 백두산에 쌍무지개가 비끼고 봄우뢰가 터지지 않았나? 그리고 밤엔 장수봉에 은하수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임자를 더 기다렸다네.》

한 로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조포수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군요. 바로 어제밤 그 별무리를 타고 백두산에 선녀들이 내렸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뭐라구? 선녀들이 내렸대구?》

그들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한동안 어안이 벙

벙해졌다.

(옛날에 백두산천지에 아흔아홉선녀가 내렸다고 하더니 바로 그 선녀들이 정말로 내렸단말인가?)

마을사람들은 조포수의 말뜻을 미처 이해할 수가 없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언제나 거짓을 모르는 성실한 그의 눈은 감격에 휩싸여 속눈썹까지 폭 젖어있었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견잡을 수 없는 흥분에 떠있음을 알았다.

언젠가 김일성장군님 소식을 안고왔을 때에도 그의 눈은 지금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었다.

그러니 이것역시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서 자네가 본걸 말해주게.》

한사람이 참다못해 그에게 이렇게 재촉하였다.

조포수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실 저는 어제새벽에 메돼지사냥을 하려고 백두산부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웬일인지 짐승 한마리 볼수 없고 날새마저 얼씬하지 않더라말입니다. 게다가 바람도 불지 않아 마치 깊은 물속에라도 들어간것처럼 고요한 정적이 깃들어 있었습니까.》

조포수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우거진 수림속을 걸었다.

마치 그 어떤 큰일이 당장이라도 터질듯 삼라만상이 다 긴장되어있었다.

조금 있더니 운무가 골짜기에 짙 차서 날이 밝았는데도 앞뒤를 전혀 가려볼수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백두산의 지형을 손금보듯하는 조포수가 길을 잃고 낮과 밤을 산속에서 헤맸겠는가.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휘황한 빛을 뿌리며 신기한 별무리가 장수봉에 내리는것을 보고 그는 그제야 자기가 어디까지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은하수를 타고 선녀들이 신선대바위우에 내리었다.

《아, 선녀들이 내린다!》

조포수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질렀다. 신선대바위우에 내린 선녀들이 다시 장수봉밑의 작은 귀틀집으로 향하는 그 광경은 참으로 눈이 부시여 그대로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는 혹시 자기가 꿈을 꾸는것이 아닌가 하여 몇번이고 제 눈을 비비고 정신을 가다듬곤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었다.

이윽고 그 귀틀집에서는 금빛찬란한 빛발이 뿜어나왔다.

귀틀집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밖으로 나왔

다.

《아, 하늘에서 장수가 내려구나.》

조포수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장군별옆에 또하나의 새별이 솟아나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광명성! 백두광명성이로구나!》

하늘에서 장수를 모시고 내려왔던 선녀들은 다시 그 은하수를 타고 천의를 흐느적이며 날아오고있었다.

그는 마음이 한없이 승엄해지였다.

《나라에 큰 경사가 생겼구나. 대통운이 텃구나.》

조포수의 가슴속에선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그는 어서 빨리 이 경사를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치밀어올랐다.

길을 찾아 돌아서려고 하는데 방금전까지도 장수봉과 소백수를 포근히 감싸안았던 운무가 어디론가 일시에 사라지고 아침노을이 붉은 기폭마냥 하늘가에 펼쳐졌다.

글짜기의 나무들엔 은백색의 서리꽃이 수정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어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조포수의 말이 끝나자 마을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이웃마을에도 퍼지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에 대통운이 텃다고 하면서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사람들이 조포수네 집 마당에 모여 광명성이야기로 흥성거리고있는데 이웃마을에서 한 로인이 조포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인즉 자기네 마을 뒤산에 껌질을 벗기고 두줄로 글을 쓴 아릅드리 가문비나무가 있는데 같이 가서 보자는것이 었다.

조포수는 그 로인과 함께 이웃마을로 갔다. 몇 사람의 마을사람들도 따라나섰다.

글을 쓴 가문비나무가 있는 그 산은 어쩌나 높고 가파로운지 거기 올라서서 보니 백두산은 물론 장수봉도 한눈에 안겨왔다.

로인의 안내를 받아 글을 쓴 나무앞에 이른 조포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 나무에는 《이천만이며, 기뻐하라 백두광명성 솟아 삼천리를 비친다》는 글이 씌여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읽는 글줄을 따라읽었다.

《백두광명성!》

《옳거니! 백두광명성이 누리를 비치니 광복의 날도 멀지 않았네.》

《예로부터 위인과 효자는 하늘이 먼저 안다고

하였은즉 그때의 그 천기가 다 뜻이 있음이 틀림없네. 길한 일이 생기면 늘 백두산엔 천기조화가 일거든.》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그때 이 희한한 천기조화는 인민들만 아니라 왜놈들도 보았다고 한다.

당시 혜산에 있던 왜놈군대의 무슨 참모장이라는놈이 우연히 이 장수봉에 비긴 은하수와 쌍무지개를 보고 기겁을 해서 조선에 장수가 내려다고 서울에 장거리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총독놈은 당장 그 산에 쇠못기둥을 박으라고 고아뻘었다고 한다.

허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성지엔 얼씬할수도 없었다.

그후 이고장 사람들은 이 전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전하였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 귀틀집뜨락에 나오셨는데 마당가에 난데없는 바가지 하나가 얹어져있는것이 보였다.

그 바가지는 어떻게나 곱고 탐탁한지 누구든 만져보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는것이였다.

인적없는 이 깊은 산속에 누가 가져다놓았을까?

어머님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바가지를 들어보시였다.

그런데 바가지를 얹어놓았던 그자리엔 수정같은 맑은 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어머님은 그자리에 박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맑은 물이 풍풍 솟구쳐올랐다.

박우물은 낮이나 밤이나 그안이 환해서 마치 별이 총총한 하늘처럼 맑고 정가로왔다.

사람들은 그 박우물이 장수의 맑은 예지와 슬기를 키우기 위해 백두산이 자기의 넋을 담아 솟구치게 한 샘이라고 하였다.

바가지는 어머님께 바로 그 샘의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선녀들이 놓고간것이라고 하였다.

그 물이 흘러내려 소백수를 이루었는데 그 개울을 젓강이라고 하였다.

어린 장수는 그 샘을 마시고 장수봉에 올라 예지와 담력을 키우시였으며 천하명장으로 슬기와 용맹을 떨치셨다.

정일봉엔 지금도 쌍무지개가 자주 비끼고 봄우뢰가 일찍 울고 번개가 장시간 이는 등 신기한 천기현상이 그칠 때가 없는데 이것은 다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하늘이 온 세상에 알리는것이라고 한다.



## 영생의 년호

최용호

송년의 밤이다.

추억도 많은 한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 시각, 여기 만수대언덕으로는 충효의 꽃물결이 끝없이 흐른다.

언제나 기쁜 일이 생겨도 먼저 수령님을 생각하고 명절날이나 기념일이 오면 수령님이 못내 그리워 여기 만수대언덕으로 발걸음 옮기는 우리 인민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각에도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께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고저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길줄 모르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세차게만 흐른다.

나도 그들속에 끼워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한손을 높이 드시고 광명한 미래, 희망찬 앞날을 가리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니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슴뜨거이 젖어들었다.

아, 우리 수령님.

《이민위전》의 숭고한 사상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을 위해,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불태우신 아버지수령님.

아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가신지 어언 3년반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가슴속에 쌓이고쌓이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승업한 마음으로 수령님동상앞에 섰노라니 문득 새해를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려왔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을 타고 누리에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

새해가 온것이다.

해마다 여기 만수대언덕에서 저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왔지만 이 시각 나의 가슴은 여느때없이 놀뛰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되뇌여보았다.

《새해 주체87년 1월 1일》

주체년호.

이 얼마나 긍지로운 부름인가.

주체87년.

문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

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의 결정서를 접한 반향을 취재하는 과정에 만났던 한 역사학 로교수의 말이 되새겨졌다.

한생을 력사학연구에 바쳐오는 백발의 로교수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의 제정, 이는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사변이요.

이제는 우리 인민의 소원이 풀렸소.

아버이수령님을 천만년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태양의 력사를 무궁토록 이 땅 위에 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사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력사를 이미전에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왔어야 할것이였소.》

그러면서 로교수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최덕신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을 뵈옵고 나서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에 깊이 탄복하면서 태양의 밝기를 헤아릴수 없는것처럼 수령님의 위대성은 우러러 그 위대함을 다 가늠할수 없다, 전설로써도 다 그릴수 없는것이 수령님의 위대성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에서는 2천년 예수 재림설을 말하고있지만 인류의 전사는 이미 총화되고 력사는 벌써 이미전부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자주시대, 주체시대의 전면적개화기에 이르고있다, 바로 이로부터 나는 세계의 새로운 공통기원력서를 가칭 《자주력》 혹은 《주체력》이라 불러보면서 이를 언제부터 책정시킬것이나를 생각해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최덕신선생의 이 말은 사실 우리 인민들의 공통된 심정을 담은것이였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은 나에게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대표하여 제기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겸손하게 사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굳이 만류하시였다.

한생토록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인민을 위해 것처럼 위대한 업



적을 쌓으시고저도 인민이 바라고 력사가 바라는 그 절절한 념원을 끝끝내 사양하신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그 겸허하신 만류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수령님 생전에 끝내 성취하지 못하였거니.

우리 수령님은 바로 그런분이시였다.

로교수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져갔다.

무릇 인류사를 뒤져보면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성쇠의 력사에 이러저러하게 제나름의 흔적을 남긴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을 찾아볼수가 있다. 그들가운데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도탄의 운명에서 구원하는데 크게 공헌한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민족과 전체 인류의 생활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시고 거창한 한 시대를 창조하신 태양과 같은 위인은 오직 우리 수령님 한분뿐이다.

태양은 자기의 밝은 빛과 따스한 열로 이 지구에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꽃피울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해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빛나는 예지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으로 수수천년 인간의 피와 땀에 절은 력사의 황무지를 갈아엎으시고 그우에 주체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새 시대, 새 력사를 창시하시였다.

이 땅에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이 드리웠던 암흑의 그 시기 우리 수령님 전설적인 구원자, 위대한 창조자의 사명을 안으시고 태양으로 탄생하신 주체1년.

그때로부터 허구한 세월 착취와 예속, 무지와 몽매, 암흑과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과 인류는 진정한 자기 운명의 태양을 맞이하였거니.

주체1년, 그것은 단순한 력사의 한순간이 아니라 예속과 자주, 암흑과 광명, 착취와 번영의 두 시대, 두 력사의 분기점이며 인류의 진정한 력사, 태양의 력사의 시작점이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저 하늘의 태양에 비겨서만 그 위인적높이를 다 말할수 있고 주체시대라는 한 시대, 한 력사의 개척과 영원한 흐름과 결부시켜서만 그 위대성의 전모를 다 알수 있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위인, 주체의 대성인이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령토의 크기나 인구의 대소가 민족의 위대성의 징표로는 되지 않는것처럼 력사의 유구성

그자체는 민족존엄의 징표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리러모셨기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태양민족으로서의 그 존엄과 위상을 온 누리에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그 유구한 력사도 더욱 빛을 뿌릴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해왔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시켜 력사를 이듬지을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바라왔던것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만류로 그 간절한 소원을 수령님 생전에 이루지 못한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수령님을 더 잘 위해드리지 못한 자책속에 모대기며 수령님을 천만년 영원히 높이 모실 영생기원의 뜨거운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워왔다. 활화산마냥 타번지던 그 열망, 그 념원은 주체년호, 태양년호의 탄생을 안아왔다.

주체년호의 탄생, 이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수령님의 영생 천년만년, 무한대로 이어놓은 민족사의 기적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만년 영생을 알리는 장엄한 퇴성이였다.

주체년호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로 흐를 주체조선의 력사,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한 력사를 기록하는 년호이다.

년호가 년대에 붙이는 이름으로서 기원전 160년대 동방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언 2천여년, 그 기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력사의 갈피들에는 각기 나뉘대로 불려온 년호들이 있었다.

년호는 그것으로 통칭되는 시대의 성격과 내용을 반영하는 시대의 상징이다. 년호에 반영된 시대가 영원하면 그 시대의 상징인 년호도 영원하게 된다.

주체년호는 주체시대가 영원무궁한 시대인것으로 하여 끝없이 빛날 불멸의 년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시대는 인간이 자기 운명의 조종간을 튼튼히 틀어쥐고 력사의 중심에 서서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쳐물리치며 자기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투쟁과 창조의 새 시대이다.

주체년호로 엮어지는 새 시대, 주체시대는 인류의 영원한 미래, 유일한 앞날이다. 저 하늘에 해가 있고 이 땅우에 인간이 살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주체의 력사는 억만년 영원히 흐를것이다.

그 영원한 주체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주체년호!

자연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발전하듯이 참다운 인류력사는 주체의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체100년, 주체1000년은 우리 수령님의 영생백년, 천년이다.

주체의 년호와 더불어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천세만세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언제나 태양의 력사만을 엮어가는 영원한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으로 그 이름을 떨쳐갈것이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이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이 맞이한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 인민과 인류는 태양처럼 빛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영생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보고있으며 창창한 주체시대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세계에 위용펼칠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일떠세울것이며 그 자랑찬 승리의 력사, 영광의 력사를 주체의 년호로 떼떈하게 아로새길것이다.

자정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기 만수대 언덕은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 그리워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사람들로 차고넘친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는 영생기원의 념원을 담은 꽃다발, 꽃바구니들로 꽃바다가 펼쳐졌다.

그 꽃바다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후터워났다.

그렇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신다.

이 땅우에 억만년 무궁할 빛나는 주체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한 태양의 력사인 주체년호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대기를 흔들며 노래가 울려왔다.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옥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 김정일각하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좌우다트 마흐므드 사하

영원무궁할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민족의 희망이시여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새벽노을 안아오시는분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당신은 가장 밝은 빛을 주시는 태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속에 우리 앞길 희망에 넘치고

당신의 모습에서 투사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꿈

그려봅니다

당신의 손길아래 민족의 투쟁위업 성취되고

당신의 천재적예지로

자주의 새 아침 밝아옵니다

태양을 따르는 투사들과 혁명가들의 위업

훌륭한 서사시되여

당신의 탄생을 축하하나니

자유는 새들은 노래하고

해바라기들은 반기며

온갖 새들 기쁨으로 지저웁니다

당신은 새 세대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니

투사들과 명인들 당신께 인사를 보냅니다

**김일성**주석께서 비록 우리결을 떠나가셨으나

우리에게 새로운 력사,

태양의 위업, 자유와 민주의 새 시대

열어놓으시였으니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정을 주시고

인민의 기억속에 태양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의 서사시는 당신의 위대성 노래하고

당신의 사랑, 당신의 위대성,

당신의 용감성 칭송합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당신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김정일**각하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조선이여 무궁번영하여라

조선의 통일위한 길에

우리 함께 투쟁해나가렵니다

(필자는 수리아사람임)

## 눈보라를 헤치시며 이어가시는 인민위한 사랑의 길

눈, 눈이 내린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기쁨과 영광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을 승리적으로 장식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들을 축하하는가, 흰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무연한 공간을 짝 메우며 조용히 내려 이 세상 만물을 포근히 덮어주는 하얀 눈송이... 거리에든 가로수의 가지들에도 사람들의 어깨에도 소복이 눈이 내려쌓인다.

언제나 그런것처럼 소담한 눈을 맞는 감정이란 류다른것이어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랑만의 표정이 가득 실렸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몽땅 제품에 받아안으려는듯 하늘을 향해 두팔 벌리고 좋아라 소리치며 돌아가는 어린이들, 손바닥에 내려앉는 눈송이를 신기한듯 바라보다가는 허끝을 대고 맛을 보며 웃어대는 처녀들, 아이세개로 되돌아간듯 눈송이를 뭉쳐 얼굴을 비비며 활기에 넘쳐 걸어나가는 청년들...온 거리에 약동하는 생의 활력이 차고넘친다.

첫눈을 맞으며 즐거움과 환희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길에서 맞고맞으신 눈보라가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준엄한 폭풍우, 엄혹한 눈보라 속을 뚫고 전진해온 시련많은 우리 혁명이였다.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 나라찾을 굳은 결심 품으시고 열네살 어리신 몸으로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시여 눈덮인 압록강을 건너시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

그때로부터 우리 수령님 한평생 그 길에서 생눈길은 얼마나 많이 헤치시였고 세찬 눈보라는 또 얼마나 맞으시던가.

천교령과 남패자, 고산진과 강선...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그 눈보라를 피해가신적 없으시거니, 오직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그 시련의 눈보라들을 뚫고나가시여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항일전의 20성상 거칠은 만주광야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겪으시며 이 땅에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던 준엄했던 주체39(1950)년의 그 겨울에는 고산진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전쟁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

였고 내외의 정세가 그토록 엄혹했던 주체45(1956)년의 12월에는 몰아치는 눈보라속을 뚫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며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에 불러오시여 사회주의락원을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거니.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력사의 폭풍우, 혁명의 폭풍우를 한몸에 안으시고 복잡다단한 시련의 길을 헤쳐오신 성스러운 애국, 애민, 애족의 한생이였다.

조국을 위해,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걷고걸으신 눈보라길...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한생의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지켜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시는 그 길에서 또다시 눈보라를 맞고계신다.

겨우내 전선시찰의 길에서 얼구신 발을 녹일 사이도 없이 눈바람 몰아치던 지난해 정초부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던가.

잊을수 없는 지난해 설날, 그날은 여느해 설날과는 달리 류달리도 눈이 많이 내렸다. 하늘을 메우며 주먹같은 진눈까비가 쏟아져내리고 눈보라까지 세차게 일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에는 조금도 아랑곳없이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아 유서깊은 만경대로 떠나시였다.

봄부터 겨울,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고 새해 첫날 0시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 새해인사를 드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해 벽두부터 잠시도 쉬지 못하시는것이 마음에 걸려 일군들은 설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하신 원아들을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자고 오래전부터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봐야 하겠습니까. 안가면 아이들이 섭섭해합니다.》

새해 아침 수도의 거리는 아직 차들이 다니지 않아 고요하였다. 만경대예로의 길은 말그대로 숫눈길이었다. 그 길에 첫자욱을 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가시였다.

진눈까비를 헤치시며 자기들을 찾아주신 경애

하는 장군님을 맞이한 원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며 장군님의 넓은 품에 저마다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갔다가 설날아침에야 돌아온 친아버지를 맞이한듯 그리움과 행복에 울고웃는 원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장군님의 눈에도 이슬이 맺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과 함께 학원마당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이윽도록 서 계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머리우에, 어깨우에, 신발우에 흰눈이 수북이 내려쌓이고있었다. 하늘땅을 휩싸며 눈보라도 세차게 일고있었다.

백두광야에서 맞으시던 찬눈, 찬바람을 오늘도 원아들과 인민들을 위해 맞고계시는것인가, 수령님의 동상에 내려쌓이는 흰눈과 세찬 눈보라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엔 추연하고 승엄한 빛이 짙어지었다. 그러시며 혼자말씀으로 《만경대의 눈보라...》 하고 나직이 외우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만단사연을 불러일으키는 만경대의 눈보라였다. 조선혁명의 역사이기도 한 만경대가문의 역사를 비껴올리는 추억의 눈보라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를 이겨내고 양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시며 역사의 새벽길, 눈보라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

그 눈보라를 대를 이어 헤치시며 광복의 싸움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혈전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동지들을 바람거친 만주광야에 묻으실 때마다 피눈물을 뿌리시며 전사들이 남기고 간 아들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두시었고 조국이 광복된후에는 망망대해에서 금싸래기를 찾아내듯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내어 만경대혁명학원에 불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그러하신것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백두의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눈보라길을 헤치시었던가. 부모없는 아동단원들을 보살피시던 그 사랑으로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위해 맞고맞으신 눈보라는 또 얼마였던가.

정녕 눈보라는 만경대가문의 길동무였고 만경대일가분들의 한생애 굽이친 열렬한 애국, 애민의 열풍이기도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위대한 역사가 비껴있는 만경대의 눈보라를 한몸에 안으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는 찬눈에 축축히 젖어있었고 눈보라는 그이의 옷자락을 날리고있었다.

온 한해 그렇게 눈비를 맞으시며 역사의 만단을 단신으로 헤치시면서 현지도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장군님께서 맞으신 것은 혼풍이나 단비가 아니라 역사의 눈보라였다.

351고지와 대덕산, 초도와 판문점 이 땅의 곳곳에 이어진 길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대를 이어 걸으신 만경대의 눈보라길, 침략의 검은 구름을 산산히 흩날려버리신 백두의 눈보라길이었다.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겠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고 망국노가 되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킬것이다라고 판문점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력사의 그 의지는 원수의 아성을 뒤흔든 만경대눈보라의 퇴성벽력이었다.

원아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시간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밖으로 나오시다가 침중하신 안색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날씨가 추운 이 겨울날에 원아들과 어떻게 밖에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후에 따뜻할 때 찍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학원책임일군들이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금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찌할수가 없으신듯 다시 걸음을 옮기시다가 원아들이 외투를 벗고 기다리는것을 보시고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었다.

**《우리 아이들이 춥겠소. 귀중한 애들이 감기라도 들면 어떻게 하겠소. 빨리 촬영장으로 갑시다.》**

자신께서는 눈보라를 맞고 로고를 겪으시면서도 원아들은 바람 한점, 눈 한송이 맞을세라 깊이 심려하시는 그 다심한 사랑,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도 다 겪을지언정 인민들과 후대들은 어떻게해서든지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애민관, 후대관,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맞으신 설날의 눈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조선의 겨울은 참으로 힘의 정서를 풍기는 인상깊은 계절이라고, 백두산에서 싸우시던 우리 어머님은 겨울을 참 좋아하셨다고, 나도 겨울이 좋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계절은 겨울이며 제일로 일러주시는 경치는 드세찬 눈보라이다. 폭풍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움과 투쟁의 기쁨, 생활의 환희를 느끼시는것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빨찌산군복과 같은 야전복차림으로 백두의 눈보라, 만경대의 눈보라를 그대로 맞으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눈보라는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의 기상이고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천품,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상징이다.

참으로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내리는 세월의 눈비를 다 가려주시고 력사의 눈보라를 한몸에 다 안고 헤쳐가시기에 우리의 요람은 언제나 따뜻한 봄이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따스한 훈풍만이 흐르는것이 아니던가.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우리가 내리는 눈을 즐거움속에 맞으며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력사의 눈보라, 혁명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생ন길을 견고계심을!

눈보라.

우리가 높이 추켜든 붉은기가 숙어들지 말라고 세차게 불어치는 만경대의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그 눈보라는 혁명의 상징, 투쟁의 상징이며 열정과 랑만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높이 추켜든 우리의 붉은기는 눈보라와 더불어 더욱 힘차게 나뭇긴다.

본사기자

## 뜨겁다, 나의 타빈소리

리영백

뜨겁다  
타빈소리  
내 열정이 불붙어  
세차게 돌아가는 나의 타빈소리

세월과 함께  
천백배 뜨거워진 심장의 불길로  
박동높은 나의 타빈소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위해 바치신  
아버이수령님  
그 숭고한 유훈의 첫자리에  
타빈소리  
네가 있기에 심장 불타는것

하기에 꿈결에도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돌고있다  
보이라화실의 열도를 재여보며  
내 심장의 열도를 헤아려본다

단 한순간이라도  
배관의 증기압이 낮아질 때면  
한몸 그대로 한줌의 석탄되어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싶은 마음

내 마음은 언제나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아버이수령님 찾아오셨던  
그날의 타빈앞에 서본다

견장 없는 군복깃 여며주시며  
옛 병사답게 일을 잘해보라고  
나라의 보배  
귀중한 보이라를 맡겨주시던  
그 손길을 생각한다

정녕 내 오늘  
우리 수령님 생전에 주신 그 믿음 그 뜻  
우리 장군님 새해 첫아침 펼치신 그 구상을  
세찬 타빈소리로 받들지 못한다면  
어찌 그이의 영원한 전사라 말하랴

날과 달은 흘러가도  
언제나 나의 심장속에  
그날처럼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함께 계시는  
아버이수령님

수령님의 간곡한 바라심대로  
영명하신 **김정일**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부터  
대고조의 거센 불길  
나의 가슴 나의 타빈에 지피  
더 많은 전류를 온 나라에 섬겨가거니

아, 뜨겁다  
타빈소리  
내 가슴이 내뿜는 열정의 노래  
뜨겁게 뜨겁게 고동치는 심장의 메아리여!





## 얼굴빛을 보시고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몸임에도 보통 노동자, 농민 한사람한사람에게도 크나큰 관심을 돌려 보살펴주시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곤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이면 만사람 매 사람들의 얼굴빛에서도 그들의 기분상태를 알아내시고 몸가짐과 거동을 보시고도 그들의 마음속고충, 말못할 깊은 사연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 마음속한가닥 그늘도 말끔히 가해주곤 하신다.

주체66(1977)년 3월하순경에 있는 일이다.

어느 한 지방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느 일터를 돌아보시다가 한 녀성로동자의 얼굴에 수심이 비껴있는것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녀성로동자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그때까지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녀성로동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창문으로 멍하니 밖에 시선을 던지고있었다.

한 일군이 급히 그에게 알려려 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밀막으시며 그냥 놔두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 녀성로동자를 바라보고계시였다.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녀성로동자는 황황히 돌아보더니 그만 그자리에 굳어져버리였다. 꿈같은 일앞에 잠시 어쩔줄 몰라하던 녀성로동자는 뒤늦게야 그이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말씀을 건네시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녀성로동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무일도 없다고 하지만 동무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있다는것이 켜여있다고 하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시였다.

녀성로동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까지 어찌 그이께 말씀올기라싶어 고개를 숙인채 서있었다.

그러나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앞에서 그는 종내 마음속사연을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녀성로동자는 군대에 있는 둘째에게 새살림을 꾸려준 다음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홀 어머니품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살고있는지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더랬다고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시름이 늘어난다더니 자기도 공연히 걱정을 한다고 쪽스럽게 말쑤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가 세간난 자식 생각을 하는것은 응당한 일인데 그게 왜 공연한 걱정이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말쑤하시였다.

**《차를 내주어 아들한테 갔다오게 합시다. 장가를 가지 갔다니까 아들도 어머니를 보고싶어할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무엇을 좀 준비해 보내는것이 좋겠습니다.》**

일군들은 다심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이를 우리러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러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과류를 넣은 함을 실어 승용차를 보내주셨을 때 그 녀성로동자의 마음이야 어떠했겠는가!

얼굴색을 얼핏 보시고도 속마음까지 깊이 헤아리신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자식의 새살림을 보러 가는 홀어머니의 첫나들이길을 녀려하시여 승용차를 보내주시고 빈손으로 떠날가봐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녀성로동자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다.

얼마후 평범한 녀성로동자를 태운 사랑의 승용차는 봄빛길은 들판을 누비며 달리였다.

슬하를 멀리 떠나있는 자식을 두고 항상 마음을 못놓는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그러한 어머니들의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따듯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온 나라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인것이다.

## 우리는 영원한 동행자

장해명

나의 동시대 지식인들이여  
나도 이 나라 지식인의 한사람  
그대들과 내 오늘  
마음속 진정을 나누고싶나니  
우리에게 소중한것 무엇이던가

창조의 기쁨  
성공의 희열이던가  
아니면 빛나는 훈장  
만사람이 쳐다보는 영예이던가

창조의 기쁨도 귀중하여라  
명예도 귀중하여라

허나  
그 모두를 합쳐도 비길수 없고  
그 모두가 없이는 살수 있어도  
없으면 순간도 살수 없는것  
그것은 장군님 주신 그 믿음 아니던가

## 1

믿음이 아니라면야  
자신의 마음을 다 주시는  
그 믿음 아니라면야  
어찌 우리를  
동행자라 불러주시랴

믿으셨기에  
자신처럼 믿으셨기에  
좋은 길도 어려운 길도 함께 가자고  
동행자로 불러주신  
장군님의 그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것인지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사람들은 다는 모르리

지난 세월  
설움많고 곡절많은  
지식인의 운명을 다 모른다면  
그 믿음  
얼마나 크고 위대한것인지  
알수 없으리

안아주고 믿어주는 품이 없어

수수천년 지식인들은  
그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력사의 변두리에서  
간충으로 버림받아온 존재

지식의 열매는  
상품처럼 팔리우고  
상품을 썼던 포장지처럼  
값없이 내던져진것이  
또한 지식인의 운명이 아니었더냐

보라  
수령의 령도를 잃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그런 나라 지식인들의 운명을 보라

원자를 분석해낸 두뇌들이  
인공지구위성을 띄운 그 천재들이  
왜 피눈물을 흘리며  
먼지이는 저자거리를 헤매던가  
파연 그들이 약한이어서  
자기 조국에 침을 뱉고 돌아섰던가

수령의 령도가 없을 때  
수령의 믿음이 없을 때  
지식인들에게는 또다시 조국도 없고  
정의도 량심도 짓밟힌다는것을  
력사는 쓰라린 교훈으로 보여주나니

고마워라  
세상에 찬바람 몰아칠수록  
더 굳게 믿어주시고  
더 뜨겁게 안아주신  
아버이수령님께  
경애하는 장군님께  
천백번 고마움에 젖는 우리 마음

바라보노라  
우리의 모습인 붓도 새겨안고  
당중앙청사우에  
승엄히 나뭇기는  
우리 당 기발의 마크를 바라보노라

바라보면  
성스런 그 마크속엔  
우리 당이 첫걸음 떼던 그날부터  
지식인들을 한품에 안아

오늘은 어엿한 혁명의 동행자로 키워준  
수령님의 그 사랑 다 어려있고  
장군님의 그 믿음 다 보여오나니

말해다오  
우리 수령님  
마치와 낫과 함께  
지식인의 붓을  
당의 상징으로 세워주시던  
뜨거운 그 사연을 어디에 새겼느냐

그 어디에 새겼느냐  
이역땅에 누워계시는  
부모님의 묘소도 옮겨 오시기전에  
《위촉장》을 띄워  
피로 찾은 조국땅에  
지식인들을 첫 귀빈으로 맞아주신  
그날의 그 이야기는...

아버이수령님  
한사람  
한사람의 지식인을  
소중히 세워주신 붓대에  
오늘은 180여만의 운명을 다 묶어안으시고  
주체위업의 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연약하던 지식인의 붓을  
혁명의 불길로 다스려  
계급의 무기  
혁명의 총검으로 버려주셨나니

그 붓을 들고  
나는 시대를 노래하는 시인  
아, 나의 소박한 시가를  
그이는 조연으로 받아주신 단말인가  
이름없는 이 지식인마저도  
자신의 방조자로 여겨주신 단말인가

그이는  
계급이 생겨 수수천년  
뿌리없는 부평초마냥  
력사의 기슭에 밀려나던 지식인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워주신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고  
지식인의 목소리에서  
시대의 량심  
시대의 지향을 들으시며  
영원한 동지로  
영원한 동행자로  
굳게 믿어주시나니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토양  
그 믿음은  
우리의 생의 젖줄기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해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참다운 조국이 있나니  
아, 장군님의 위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니던가!

## 2

깨끗한 심장없이  
안울수 없고  
진실한 마음없이  
간직할수 없는  
장군님의 그 믿음

그 믿음속에  
우리 삶이 어떻게 안겼는가를  
그 믿음속에  
우리 삶이 어떻게 꽃폈는가를  
뜨거운 심장으로 노래하나니

아시는가  
사람들이여  
우리 장군님  
룡남산언덕을 내리신 그날  
어이하여 예술부문에  
령도의 첫 자욱 찍으셨는가를

그 언젠가  
지식인들과 마주하신 자리에서  
못잊을 그날을 회고하시던  
장군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리나니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해오는 과정에 지식인과의 사업이  
제일 힘든 일이였다고  
자신의 흰머리카락중에서 절반은  
예술부문 지식인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생겼을것이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바로 예술부문 지식인들속에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던  
아, 잊지 못할 그날의 말씀이여

새기면 새길수록  
뜨거움에 젖은 우리 마음  
지식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려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목메이는 우리 마음

물어보자 력사여  
말해보라 세월이여  
이 세상 그 어디에  
조선의 지식인들처럼  
곡절많은 수난자가 있었더나

식민지로 짓밟혔던 땅  
전쟁의 불길이 지나갔고  
들로 갈라진 땅  
이 땅에 살아오면서  
땀땀치 못한 과거  
씻지 못할 허물을 남긴  
그런 지식인들 없었던가

감정은 용서한대도  
리성은 용서할수 없는  
그런 지식인마저도  
우리 장군님만은  
차별없이 안아주고  
오히려 마음속에 그들이 질세라  
아껴주고 내세워주셨나니

처자에게도 말 못할 사연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는분도  
우리 장군님  
남들이 다 멀리하고  
자신마저 자기를 믿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믿어주시는분도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아,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30여년세월  
지식인들의 문제를 두고  
잠 못드신 밤은 얼마이며  
창가에서 새날을 맞으신적은 그 얼마였던가

문건을 보시다가도  
지식인의 아름다운 소행을 알게 되면  
그리도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소개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새로 만든 기계 하나를 보셔도  
거기에 바쳐진  
지식인의 숨은 노력부터 헤아리시고  
훌륭한 기계를 얻은것보다  
훌륭한 지식인을 얻은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는 우리의 은인

사랑의 그 품엔  
잊혀진 전사가 없으라  
믿음의 그 품엔  
끝도 기쁨도 없으라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행사에  
한 지식인을 빼놓은 사실을 아시고는  
일찌기 인류정치가사가 알지 못하는  
광복정치의 대용단을 내리신  
위대한 사랑의 태양

수령님대에 행복했던 지식인들을  
자신의 대에는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것이  
필생의 신념이라 하시며  
우리의 오늘만이 아니라  
먼먼 앞날까지 다 책임져주시나니

영광이여라  
사랑의 그 품에서  
믿음의 그 품에서  
그이의 전사로 사는  
궁지여, 기쁨이여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사상으로 당을 옹위하고  
지식으로 혁명에 이바지하는  
우리는 장군님의 동행자

하루를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그 품에서만 살고싶고  
죽어서도 그 품만은 못떠날  
아, 우리 장군님 믿음의 그 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품  
우리 삶의 영원한 요람이여라

### 3

그이가 우리를  
자신처럼 믿듯이  
우리 또한 그이를  
자신보다 더 믿기에  
우리는 그이의 동행자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이를 량심으로 따르노라

그이는  
령도자이기에 앞서  
위대한 인간미에 매혹되어  
우리 스스로 따르는분

높으신 그 지성  
그 실력에 끌려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가 있고

저마다 자기의 세계가 있는  
180여만 지식인들이  
심장다해 따르는분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의 밝은 눈 띄워주시고  
열정이 모자라면  
솜구치는 열정의 나라를 달아주시는  
그이는 지성의 빛발  
그이는 우리모두의 스승

력사의 페이지를 펼쳐보면  
천재는 얼마나 많았고  
명인재사는 얼마나 많았던가  
걸출한 사상이  
뛰어난 정치가인들 없었던가

허나 그들모두는  
어느 하나에만 능했고  
이쪽을 알면 저쪽은 몰랐지만  
우리 장군님은  
그 무엇에나 무불통달하신  
천재중의 천재  
명인중의 명인

문무를 다 겸비하시고  
지와 덕을 다 갖추시고  
누구도 오를수 없는 높이에서  
세계를 굽어보시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나니

살펴보시라  
사상과 문화  
과학과 예술  
그 어느 부문에나  
그이의 령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있는가를

더듬어보시라  
건축이면 건축  
교육이면 교육  
그 무엇이냐  
그이의 관심밖에 있는 일이 있는가를

그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크고작은 모든 일  
자신이 직접 책임지시고  
자신이 직접 지도하시는분

그이 위대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는  
하나의 거리가 일떠서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솟아나고

한편의 노래가 창작되여도  
백년천년후에도 불리워질  
기념비적명작으로 태어나거니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사상이면 사상의 천재  
예술이면 예술의 대가  
음악이면 음악의 원로  
건설이면 창조의 영재

오직 진리의 길로만 이끄시고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하시며  
기적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실력가형의 령도자  
희세의 걸출한 지식인

하기에 우리는  
장군님 사랑하시는것을 사랑하고  
장군님 좋아하시는것을 좋아하고  
장군님 믿으시는것이면 진리로 믿는  
그이 사상의 동행자  
그이 리상의 동행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그이가 믿으시기에  
남들은 사회주의를 버려도  
반드시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믿나니

항일의 날 고난의 행군을 걸던  
그 정신 그 신념 안고  
소왕청을 사수한  
그 투지 그 각오 높이  
붉은기를 휘날리며  
주체위업의 길 끝까지 가리라

아, 걸어온 길 뒤돌아보아도  
동행자되여  
장군님따라 걸어온 길은  
그 천만리가 다 승리의 길이였고  
영원한 동행자로  
장군님과 함께 갈 앞날도  
끝없이 창창한 영광의 길이거니

자랑하노라  
우리의 운명만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  
과학의 운명까지 다 맡긴  
위대한 천재  
위대한 스승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행운이여  
그 어떤 다른 행복 원치 않노라  
두번 다시 이 땅에 태어난대도

오직 그이만을 따를  
영원히 그이만을 받들어갈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동행자여!

## 정론시

# 세기의 영광

박근원

곡절과 시련  
격변과 승리...  
복잡다단한 20세기의 문을 닫고  
거창한 21세기의 대문을 열어야 할  
세기의 분기점

여기서 잠깐 들어보자  
마음과 마음을 합쳐  
하나된 소리로 칭송하는  
인류의 진정한 웨침을

...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온갖 반동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사회주의의 최고사령관  
혁명의 최고령수  
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

천리혜안의 예지와 천재적비범성  
강철의 담력과 무적필승의 기질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 지니신 품격과 자질이거니

우리 장군님 계시어  
사회주의가 과학으로 되고  
인류의 창창한 래일이 있는것이어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을 이 행성우의 가장 높은 언덕  
가장 빛나는 복판에 세워주신분

력사의 수레바퀴조차  
갈길없고 헤매이던 혼잡탕속에서  
조선을 앞세운 세계를  
자주의 궤도우에 세워주신분도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라

하기에 오늘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르며  
더없이 안타까와하여라  
최고사령관  
최고령수  
위대한 령도자...  
우리 장군님 더 높이 모실  
그이상의 존칭이 없는것을...

투쟁의 열풍안고 전진해갈  
21세기 혁명의 기관차  
그 운전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잡으시였나니

혁명의 장엄한 렬차에 몸을 싣고  
희망찬 21세기를 거쳐  
아득한 2천년대의 대지를 달릴  
인류의 배심 그 얼마나 든든하랴

오, 렬사여 자랑하자  
**김정일**장군님을 태양으로 모신  
인간중심의 세기를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세기의 영광을!

오, 인류여 높이 받들어모시자  
혁명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 주체 87년 새해여

리영철

백두산에 떠오르는 붉은 해돋이를 안고  
당중앙창가에 내리는 흰눈을 안고  
너는 왔구나  
새해여  
주체 87년 새해여

이 새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우리가 맞는 첫 새해  
그것으로 력사의 어느해보다  
더 새롭고 더 희망차구나

세월의 흐름에 실려오는 새해로만  
나는 생각지 않노라  
주체 87년이며, 너는  
우리 혁명의 새 년륜을  
위대한 변혁과 전환으로 수놓아가실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이 땅에 밝아오지 않았느냐

행복이 꽃피는 집집의 창문을 넘어  
축복의 눈 내리는 수도의 거리거리를 넘어  
봄우뢰소리처럼 우주에 울려퍼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크나큰 신심과 락관 속에 간직한 우리들

보아라 저기  
한눈에 안겨오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부하의 동음소리 높이 울린다  
김철과 황철의 용광로들에선  
잘 익은 쇠물이  
노을의 바다처럼 끓어번진다

파도 잔잔한 항구와 포구들에는  
큰배 작은 배들이  
정다운 기슭에 출항의 고동을 울린다  
푸른 산야와 거묵한 들판을 끼고  
굽이굽이 굽이쳐간 은빛철길우에는  
《붉은기》호 기관차가 만짐을 싣고 달린다

가자, 조국이며 인민이며 앞으로!

장군님 가리키신 손길을 따라  
땀흘려 건설하고 피흘려 지켜낸  
우리 식 경제의 무한한 위력을 떨치며  
부강조국을 세상에 더 높이 일떠세우자

수령님 주신 땅에 더운 눈물 흘리던  
아버지의 대를 이은 새 세대 농민이며  
그대가 땀흘리는 저 들판에  
보다 뜨거운 땀을 묻으라  
그 진심으로  
고향의 대지를 가꾸며  
황금의 이삭이 끝없이 설레게 하라

천길막장은 깊어도  
량심으로 조국을 받드는 탄부들이여  
그대들 캐내는 석탄이  
탁아소의 요람을 따스하게 덥히고  
인민이 사는곳 그 어디에나  
사회주의생활의 밝은 불빛이 되고있음을  
잊지 말라

오, 설날의 이 아침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진다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장군님의 력사로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통일조국의 앞길도  
장군님 걸으시는 그 길에서 열리어지고  
강성대국의 위용도  
우리 장군님 안아오시는  
영원한 그 승리에서 펼쳐지려니

새해여 주체 87년이며  
너는  
우리 혁명의 새 년륜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기여가는  
새 시대의 첫 돌기  
그 영광  
만대에 길이 전하랴!

## 5 중대 방위목표

전인광

## 1

수력발전소지도국 부국장 김석하는 《해부학적 일군》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다.

지금은 정무원 한 부서의 일군이다보니 좋게 불러 《해부학적》이지 짧아서 그의 별칭은 《메스》였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키에 칼칼한 용모, 좀해서는 감정의 변화가 없는 침착한 눈빛 등이 수술칼을 든 외과의사처럼 어딘가 차고 엄한 인상을 풍기는데서 붙은 이름인가 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그 어떤 기술적난문제도 완강한 의지력으로 마지막까지 파고들어가 해결해내고야마는 그의 성미, 특히는 남들이 다 됐다고 만족해서 일어서는 대목에서도 미세한 결점을 놓치지 않고 그 세부까지 완벽하게 완성하고자 끝을 보는 그의 높은 책임성과 예리한 지성도를 높이 사서 부른 이름이었다.

전쟁시기 화전에서 소환되어 전력설계사업소에 배치된 그는 수십년간 그런 피타는 탐구와 열정으로 수백건의 혁신적인 발명과 창의고안을 내놓아 나라의 전력생산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부에 소환된 그는 그후에도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그의 《지성의 메스》만 가해지면 안풀리는 기술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생겼다.

석하 자신이 아래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그닥 타내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외과의사의 수술칼이 한치의 오차만 허용해도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듯이 날로 높아가는 나라의 전력생산을 책임진 사업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 높여나갔다.

그런 석하에게 《ㅅ》발전소의 한 평범한 노동자가 보내온 편지는 그의 평생의 자부를 뒤엎는 하나의 《중대사건》이 아닐수 없었다.

얼마전, 북부고원지대에 자리잡은 《ㅅ》수력발전소에서는 발전능력을 무려 30프로나 더 높일수 있는 놀라운 기술혁신안을 도입했다. 높아진 발전능력에 맞게 물량을 더 확보하는것이 긴급한 문제로 나섰다.

발전소에서는 설천령너머의 호수에 고여있는 수역톤의 《죽은물》을 전력생산에 리용하겠다는 안을 부에 제기해왔다. 그 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지도국에서는 아무래도 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충분히 료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국장으로 소환되어온지 얼마 안되는 김석하를 발전소로 파견했다.

현지에 도착한 석하는 발전소의 김봉길기사장과 머리를 비롯한 기술일군들과 《죽은물》호수부터 돌아

보았다.

설경을 이고 뻗어내린 산골짜기를 메우고있는 호수의 물량은 대단했다. 잠자고있는 적지 않은 수원에다 세 방향에서 흘러드는 사철 마르지 않는 하천까지 포함하고있어 상시적인 물원천이 담보되는 호수였다. 석하는 무릎을 쳤다. 어지간히 흥분된 그는 현지의 기술자들과 얼음이 얼어붙은 호수가의 개바닥진펄을 여러차례 밟아보며 마침내 새로운 설계안을 작성했다. 그것은 《죽은물》호수 한복판에 큰 규모의 도중취수구를 형성하고 인수로를 새로 파서 초당 십여톤의 물을 현재가동하는 기본취수구에 짜넣자는것이였다.

오랜세월 쓸모없이 고여있던 《죽은물》을 가지고 단번에 전력생산을 30프로나 늘인다는 이 특기할 소식은 발전소사람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았다.

온 발전소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발전소일군들은 기본적인 중요설비만 보장되면 한달안에 《죽은물》을 《살아있는 물》로 만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런데 당장 공사를 벌리자고보니 예상찮았던 문제들이 앞을 막아나섰다. 공사에는 큰 규모의 도중취수구를 제작하는데만도 수천톤에 달하는 방대한 설비와 자재가 필요했다.

그 많은 설비를 역에서 100여리나 되는 공사장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사장으로 통하는 도로 전구간이 례년에 없이 내려쌓이는 눈에 꽉 막혀버린것이였다. 눈을 치고 길을 내자해도 북방의 세찬 눈보라는 다음날이면 전날과 다름없이 말끔히 도로를 메워버리군했다.

암만해도 길을 열 길이 막막했다.

그러나 이 길 여는 문제보다 더 난감한것은 도중취수구에서 기본취수구까지 물을 쏘아주는 인수로를 파는 문제였다.

《죽은물》호수에서 기본취수구까지 설천령을 에돌아 15리나 되는 호수의 밑바닥을 깊숙이 파야하는 인수로공사는 발전소의 가능한 로력과 기재를 총동원한다해도 대소환을 눈앞에 둔 지금 한 달동안에 끝낸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던것이였다.

석하는 며칠동안 발전소의 김봉길기사장과 머리를 맞대고 방도를 찾아보았으나 묘책이 없었다.

결론은 명백했다. 눈이 녹은 봄에 나가 공사를 시작할수밖에 없었다.

석하부국장의 참가하에 열린 발전소기술협의회에서는 논의가 심각하게 벌어졌으나 결국 공사를

봄으로 미룰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정을 가지고 석하가 평양으로 올라온지 열흘도 안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다. 출근하자바람에 국장이 급히 찾기에 방으로 들어서니 김봉길기사가장이 무조건 한달안에 공사를 끝내고 전력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재고려해달라는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너무도 뜻밖이어서 석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국장은 자못 심각한 표정이었다. 석하는 순간적으로 울컥 치솟는 김봉길에 대한 그 어떤 배반감같은 감정을 어쩔수 없었다.

《솔직히 난 그 전화를 받고 섭섭한 생각이 없지 않았소. 내려가 실패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런 결정을 짓고왔는가 하는 생각에 말ियो. 그런데 이것보소.

방금 또 이런 편지가 올라오지 않았겠소. 그런데 이것보소.

하며 국장은 책상서랍을 북- 열더니 그안에서 네겹으로 접었던 자리가 선명한 종이 한장을 꺼내 석하앞으로 내밀었다.

《거기 발전소 제관직장 교관이라는 오랜 로동자가 올려보내거요.》

석하는 까닭모를 조급증에 뒤쫓기며 편지를 받아 펼쳤다. 로인같이 않게 각체로 굽적굽적 활달하게 박아쓴 글줄이 눈에 안겨왔다.

《국장동지!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30프로나 늘일수 있는 큰 기술혁신을 해놓고 예비물주머니까지 다 찾아놓은 이제 도중취수구와 인수로때문에 반년나마 기다린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조건에 빙자한 그런 결정은 내려와 보지 않고도 우에서 얼마든지 내릴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려와 실패를 료해할 때 왜 몇몇 기술일군들의 말만 듣고 너무도 쉽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발전소기사장부터 공사는 어차피 봄에 나가 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기술협의회에 참가한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협의회야 봄으로 미루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회지 방도를 찾기 위한 협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는 웅당 무조건 해야 하며 할수 있다는 립장과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지에 불을 지피면 방도는 반드시 찾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놈들과 싸울 때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를 앞에 놓고 가능성부터 타산하고 나섰습니까? 기어이 침략자를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나섰기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봉쇄압살하자고 이발을 갈며 덤벼드는 오늘 그때의 그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하는 가슴속을 날이 선 얼음덩어리가 쪽 훑으며 내려가는듯했다. 이럴수가 있을가싶을 정도로 편지는 발전소에 현지로해내려갔던 자신에 대한 여지없는 불신과 타매로 가득차있었다.

활랑거리는 가슴을 도저히 진정할수 없었다.

석하는 마지막 최종협의회때의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 실상 그때 자기는 그 협의회에서 어떤 방도를 찾을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말하자면 자기나 봉길기사가장이나 현지로해과정에 내심 느껴오던 봄으로 미루는 결론을 매듭짓자는 생각에서 소집한 협의회였던것이다.

그날의 협의회에 제관직장 교관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로인은 어떻게 그 협의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심중까지 다 료량하고있는가.

기사장에 대한 비난도 결국은 그와 결정을 같이했던 자기에 대한 비난임이 뻔하다.

석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이 령감은 그 불가사의한 고원의 겨울을 녹여낼 어떤 뽕족한 수가 있기에 이리도 탕탕 큰소리인가.

반발과도 같은 충동에 격앙되니 나머지 글줄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의혹과 실망, 그 어떤 기대가 섞인 초조감속에 애써 마음을 진정하며 편지를 더듬어가던 그의 두눈은 그만 덩그러니 커졌다.

《아니, 뭐 준첩선올?...》

석하는 충격이 하도 커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국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심중이 리해되는듯 국장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소, 그 로인은 동해안의 수성강하류에서 작업하는 준첩선을 가져다 인수로를 파자는거요.》

《??》

이야기가 너무 동당지 않는곳으로 비약하는 바람에 석하는 한순간 멍해졌다.

그러나 착란에 빠졌던 머리가 정돈되는 순간 석하의 머리속에는 섬광같은 불꽃이 빙글 일었다. 그야말로 준첩선만 있으면 한달동안에 인수로를 파는 문제는 걱정할것이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은 환희의 파장과도 같은 여운만 피곳 남겨놓고 덮쳐드는 의혹에 순간에 사라지고말았다.

석하는 심중한 낮빛으로 편지를 손바닥으로 덮으며 국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수백톤에 달하는 그 덩치큰 준첩선을 도대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발 1,300이나 되는 그 높은 산정호수에 띄워놓는단 말입니까? 하늘로 날라올수도 없고 기차로는 더군다나 불가능하고...》

《하지만 그 동무들은 자신있다는거요.

그래서 난 거기 기사장동무를 불렀소. 오늘 낮



렬차로 도착하면 협의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토론해보자는거요.》

자기방으로 돌아온 석하는 갑자기 탁하게 목이 말라드는것을 느끼며 앞에 놓인 담배갑을 끄당겨 불을 붙여물었다.

60고개를 넘어선 오늘껏 수력발전문제에 들어선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다하는 전문가로 파찬만 들어온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니... 그랬다. 그것은 수치고 모욕이었다.

그때 현지에서 있을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놓친것은 무엇인가.

석하는 팽팽하게 따져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S》수력의 기술혁신안 실현을 위한 공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로인은 수백리 떨어진 바다가의 준첩선을 가져다 당장 공사를 끝낸다는것이다. 석하생각으론 분명 허황하기 그지없는데 자존심 강한 김봉길까지 로인에게 설득당한걸 보면 필경 기술적가능성도 충분히 타산한것 같다. 석하는 불이 이는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발전소로 달려가 그 교관로인을 만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 2

협의회는 한동안 부진하게 시간만 끌다가 렬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들어선 《S》발전소 김봉길 기자장이 참가하자 마치 독에 막혀 고패치던 격류가 동을 터치고 나가듯 단연 활기를 띠고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룡구선수처럼 들썩 큰 키에 속불지 않은 총센 고수머리가 불붙는 이마에 성갈지게 타래져오른 김봉길은 어딘가 고답적인 탁한 공기가 떠도는 협의회실에 고원의 공기를 그대로 안고온듯 신선한 찬바람을 쐬 풍기며 들어섰다.

부리부리한 두눈을 번뜩이며 한달안에 무조건 《죽은물》을 기본취수구에 밀어넣겠다는것을 강조하는 그의 온몸에서는 강인한 확신과 열정이 서리발처럼 풍겼다.

리지적인 빈듯한 이마에 조화되는 사려깊은 눈매, 높은 코마루와 역세계 각을 이룬 턱, 무게와 지성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석하는 발전소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다시보니 어디선가 꼭 본듯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도 떠오르는 기억은 없다.

봉길기사가장이 새 혁신안을 도입하게 된 과정부터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자 석하는 한손으로 목깃을 터치며 책상을 푹푹 쳤다.

《아, 기사장동무! 다 아는 문제는 그만합시다. 그 준첩선안말이요. 그 안은 누가 내놨소? 국에 편지를 썼다는 그 아바이요?》

《그렇습니다.》

《음.》

석하는 입을 다시며 다시 이었다.

《물론 준첩선만 있게 되면 인수로는 한달안에 파낼수 있소. 그 안에는 나도 동감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해안에 있는 준첩선을 무슨 수로 호수우에 날라다 띄워놓는가 하는거요. 그걸 생각해봤소?》

《기차로 실어나르자는겁니다.》

《기차로?》

잔뜩 기대어린 눈으로 봉길을 지켜보던 석하의 입귀에 그만 랭소가 어렸다.

《여보 기사장동무! 5백톤도 넘는 준첩선을 통채로 렬차에 싣는다는것도 말이 안돼지만 설사 싣는다해도 동해안 수성역에서 동무네 발전소까지 차굴이 몇칸줄 아오? 나도 어제 그 로인의 편지를 읽고 기차생각부터 했소. 헌데 알아보니 차굴이 그 어간에 열일곱개나 있단말이요.

그래 동문 코끼리틀 바늘구멍으로 빼내는 묘안이라도 있소? 기차나 겨우 빠지는 차굴로 그 큰 배를 어떻게 빼내겠다는거요?》

석하의 론리정연한 질문에 공감인듯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봉길에게 쏠렸다.

방안엔 일순 보이지 않는 높은 압의 전류라도 징 흐르는듯싶었다.

《우린 준첩선을 토막내여 기차에 싣자는겁니다.》

《뭘, 토막을?...》

석하는 아연해서 저도 모르게 놀란 반문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어마지무 놀란 빛들이었다.

《동무! 동문 이게 무슨 유희장짓는 놀음을 론하는 마당이요. 수백리밖에 있는 동해바다의 준첩선을 가져온다는 그자체도 너무 기상천외여서 난 놀랐소.

그런데 뭘 토막을 내 기차에 싣는다? 설사 그렇게 토막내 싣는다 하거요. 그래 몇토막을 내면 기차에 싣는 적중톤중이 되겠소?》

《차굴을 통과하자면 적어도 아홉토막을 내야 합니다.》

《뭘? 아홉토막...》

《저런...》

경악하는 소리가 방안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정신있소? 그렇게 란도질하듯 토막을 냈다가 원상태로 붙여가지구 정상가동하겠는가도 문제지만 그래 아이들 장난감도 아닌 그 큰 배를 떼고 불이고 하는 사이에 봄이 온다고는 생각못해봤소?》

석하를 돌아보는 봉길의 눈에 불이 이는듯했다.

《우린 뭘 주먹구굴줄 압니까? 정확한 타산과 기술적계산을 다해보고 할수 있다는 결론을 가진 겁니다.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열흘만에 준첩선을 호수에 띄워놓겠습니다.》

주먹을 흔들며 다짐하던 봉길은 문득 너무 흥분한 자신을 느낀듯 말을 끊더니 긴숨을 내쉬며

저르기 낮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부국장동지! 미안합니다. 열흘전에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그때 제가 부국장동지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의 난국을 다 마련된 조건이나 계산된 수치만으로는 뚫고나갈수 없다는 동지들의 비판을 받고야 이 안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떠날 때 저는 이미 준첩선 이설준비조직을 다하고왔습니다. 지금 교관아바이 인솔하에 준첩선이설조는 벌써 수성강현지에 도착해서 지시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국장의 눈빛이 근엄해졌다.

《그게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은 벌써 시작된셈이군.》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듣고있던 국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기사장동무! 인수로는 준첩선으로 된 다치고 도중취수구설비는 어떻게 운반한다?》

국장이 적극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문자 봉길기 사장은 받을듯 숙였던 허리를 펴며 활기를 띠었다.

《국장동지! 우린 발전소로력과 기재를 총동원해서 하루에 옮길만한 량만큼씩 눈을 치면서 운반하자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8일이면 충분합니다.》

《음.》

국장은 심분 수궁이 가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불긋하게 혈조가 번지는 너부죽한 얼굴을 들고 석하를 바라보았다.

《어떻소, 부국장동무! 이 동무들의 방안이 어설피고 모험적인데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생각들을 해냈다는 그자체가 얼마나 장하오. 긴장된 나라의 전력생산문제를 풀어 당에 기쁨을 드리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야 어떻게 감히 저런 생각들을 할수 있겠소.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국이 다 떨쳐나 이 동무들의 전투를 돕자는거요.》

석하는 내심 자기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현실적조건이나 기술적가능성으로 보면 아무리 무모하다해도 그 교관로인이 내놓은 방안은 은연중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발전소에서 천수백리 떨어진 여기 수도에까지 미쳐와 지금 이 협의회를 주도하고있을뿐아니라 온 발전소와 부의 책임일군들까지 그 실행으로 이끌어가고있는 것이다.

국장은 그자리에서 수성강에 이미 도착한 작업조에 준첩선을 절단하여 열차에 실을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 이미 발전소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석하부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전투지휘조를 발전소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어느새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 3

저녁이 돼오면서 하늘에선 눈발이 흩날렸다. 석하는 내리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대동강변의 유보도를 따라 걸었다.

시내의 거리로는 남새수송차들이 살진 무르팍 같은 흰 배추더미들을 적재함이 미여지게 올려쌓고 시외농장들에서 줄줄이 들어오고있다. 김장철도 어느덧 마감고비다.

회색빛의 뿌연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정작 어깨에 닿아서는 물방울로 변한다.

눈도 비도 아닌 진눈까비, 물기가 즐비한 유보도에 납덩이가 매달린듯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는 석하의 심정도 그처럼 착잡하다. 협의회에서 여러토막내는것을 우려했지만 따져보면 준첩선이란 구조설비가 복잡하지 않아 재조립하여 가동하는 문제는 그닥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석하는 지금 새삼스레 느낀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를 싸쥐고 며칠동안 방도를 찾으면서도 너무도 단순한 로인의 그 생각에 왜 미치지 못했던가.

로인의 궁리가 너무 엉뚱하고 모험적인때문이었을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신념의 눈을 들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지에 불을 지피면 방도는 있다고 썼던 로인의 편지구절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생활에 대한 강렬한 지향의 숨결이 열풍처럼 풍겨오는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어느 충격적인 계기에서 가슴깊이 새겨졌던 말같이 생각된다.

협의회를 끝마치고 비준된 설비들의 결재때문에 자재상사로 떠나면서 봉길기사장은 석하를 찾아왔었다.

《사실 저도 준첩선같은 안이 나오리라곤 꿈도 못꾸었습니다.》 하고 그는 면구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사의 기일연기를 함께 결정했던 석하의 심정을 헤아려 한듯한 그 말도 왠지 명치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나이먹은 사람들에게 대한 젊은이들의 관용, 그것은 항용 도의적인 례의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능력이 쇠진한 인생에 대한련민의 감정이 깔려있는것이다.

석하는 진눈까비가 그냥 내려앉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나도 이젠 늙었는가?)

흰눈이 아니라도 그의 머리는 이미 반백을 넘어선지 오래다....

《아버지!》

집에 들어서니 갓 시집간 딸이 달려나와 가방을 받아들며 팔소매에 매달려 돌아갔다. 막내로 오냐오냐 길러서 그런지 아이까지 있는 애가 철부지그대로다. 금속공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있는 사위가 달포나마 지방출장을 나가있다더니 함께 온 모양 안방에서 짜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재로 들어서는데 어느새 알고 따라들어온 사위가 인사를 했다.

《아, 자네타가?》

석하가 반겨맞자 사위는 《아버님! 이걸 한번 꺼보십시오.》 하며 안경을 히나 내놓았다.

세련된 품위가 느껴지는 새 안경이었다.

《아니, 지금 끼는게 어떻다구.》

석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연중 반가와 안경을 받아들였다.

학구적으로는 무섭게 파고드는 열정가이지만 성미가 너무 안조해서 젊은 안해의 어떤 지청구에도 전혀 응수를 모르는 순박하고 고지식한 사위가 일껏 맘먹은 지성이 고맙다. 무중 사위를 기쁘게 해주고싶은 생각에 끼던 안경을 벗고 새 안경을 눈에 걸었다. 눈앞이 환히 열리며 시원하게 정신이 번쩍 든다.

《참, 이럴수 있나?》

석하는 의아해서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보니 한도수 높여야 하는걸 팬스레 낚은걸 끼고있었군.》

사위는 흡족해서 손을 썩썩 부본다.

《전번에 아버님이 한참 책을 읽다나면 눈앞이 흐려지군한다구 해서...》

《허참.》

석하는 제풀에 웃었다.

제눈에 안경이라더니 사람은 십상 자기 고집적인 틀속에 박혀 살기 쉽다. 자기 안목이상으로 문제를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 안경을 낀김에 시선을 들고 방안을 휘둘러 보던 그의 눈길은 무심중 책상 맞은편 벽의 액자에 가뒀었다.

거기 액자속에 들어있는 전쟁때 사진에서 못박힌듯 굳어졌다. 세월의 흐름속에 너무 닳고 퇴색해서 크게 복사해 끼운 그 사진은 석하가 적후투쟁때 노을령전투를 끝내고 부대에 취재온 중군기자를 줄라 찍은것이였다.

눈굽이 찢르르해왔다.

수십차례 계속된 격전속에 중대의 과반수가 희생되고 서른다섯명이 남았던 5중대전원이 찍은 사진, 저중에서도 또 많은 전우들이 전쟁이 끝난후에 돌아오지 못했지.

한중대에서 3년세월 탄우속을 헤치며 피와 살을 나눈 전우들의 관계는 전후에도 각별했다. 전국각지의 각이한 초소에 흩어져있어도 서로의 사업과 생활에 대해 늘 편지를 주고받으며 고무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가정대소사가 있으면 서로 오가며 화선의 우정을 두터이했다.

그런 그들도 어느덧 40여년 세월이 지나 예순나이를 넘기자 하나, 둘 년로보장으로 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 있다가 지난해 마지막으로 집으로 들어간 이름난 저격수였던 송동무는 얼마전에

석하를 만나자 너그럽게 권고했다.

《자식들 뒤바라지를 하며 추억속에 여생을 보내는 맛도 팬찮다네. 젊은이들의 뒤욕먹기전에 어서 물러나라구.》

그러나 석하에게는 그럴수 없는 마음의 사연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중대사진의 맨 우측에 선 키가 유별나게 큰 중사의 사진에 가뒀었다. 자동총을 앞에 총하고 머리 하나는 작은 자기의 어깨우에 한손을 얹고 느슨히 웃고있는 김윤호분대장.

못잊을 추억이 가슴에 몽클 사무쳐와 석하는 사진액틀을 두손으로 집어 들고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

《김석하라, 에이 무슨 로인이름 같구만.》

어때? 전선에 나오니 가슴이 떨리지. 하지만 팬찮아. 이제 인차 습관될테니.》

남해가까운 어느 소도시해방전투가 끝나고 처음 만나던 날, 열일곱 애어린 전사의 가슴을 톡치며 다독여 주던 윤호분대장.

전투와 행군으로 날이 새고 날이 어둡던 남진의 싸움길에 그의 날개가 되고 의지가 돼주었던 화선스승.

련속 사흘간 밤낮없이 계속되는 추격전에 그만 파김치처럼 녹초가 된 석하는 너무도 지독스레 달라붙는 잠에 쫓겨 걸으면서도 자고 뛰면서도 자야했다. 그때마다 석하의 앞에서 걸으면서 대오가 조금이라도 서서 기다리는 때면 《석하! 여기 기대라구.》 하고는 자기 잔등에 기대여 섰채로 자게 하고 정 졸음을 못이겨 정신을 못차리면 잔등에 그냥 얼굴을 박은채 걸게 하기도 했지. 그럴 때면 그 땀내와 초연내에 젖은 넓은 잔등이 얼마나 푸근했던가.

휴식때면 발을 벗으라 하고는 작은 물집을 성냥으로 딱총을 놓아 가라앉히고 큰 물집은 바느질로 꿰어 마지막 끝을 남기고 잘라주면서 《석하! 우리 분대가 중대기준분대란걸 잊어선 안돼.》 하고 일깨워주곤했다.

입대하여 치른 첫 매복전투에서 미국놈땅크를 까고 첫 훈장을 수여받았을 때 너무 대견해 번쩍들어 목마를 태우고 《우리 석하 장하다!》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던 그 모습도 눈굽을 지지며 떠오른다.

중대적으로 제일 큰 키, 붓자리같이 콧썩은 눈썹이 유표하던 너부죽한 얼굴 그리고 늘 연기가 푸실푸실 날리는 담배를 입귀에 물고 맛나게 빨곤하던 그 텁텁하고 락천적인 성격의 윤호분대장을 두고 중대전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중대 방위목표》라고 불렀다.

석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알고보니 그 이름엔 유별난 사연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전 윤호분대장이 상등병이던 때였다. 어느날 련대에서 대렬검열이 있었는데

검열이 끝난 뒤 런대장은 런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위가 5중대라는 참모장의 보고를 받고 직접 자기가 가보기로 했다. 런대장과 함께 5중대앞에 이른 참모장은 중대의 기준병사로 첫렬의 첫자리에 선병사를 가리켰다.

《런대적으로는 5중대가 가장 모범이지만 중대에서는 이 동무가 제일 우수합니다. 규정을 파악하고있는 점이나 대렬적면모, 무기기재준비상태가 제일 완결합니다.》

참모장의 소개를 받으며 미덥게 병사를 바라보던 런대장은 무심중 판소리를 했다.

《동무 키가 요란하구만, 5중대 찾으려면 먼데서도 이 동무를 보고가면 되겠소.》

그바람에 윤호당자는 물론 동행했던 지휘관들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다.

《제가 이 큰키때문에 해방전 머슴살때 지주놈에게 옥깨나 봤습니다.》

호방한 성격의 상등병은 스스럼없는 런대장에게 끌려 묻지 않는 말까지 했다.

《그렇소? 왜 말이요.》

런대장은 호기심이 동했다.

《우리 마을 지주놈이 신통히 얹어놓은 오지독처럼 난쟁이였는데 머슴사는 이 띠꺼머리를 항상 쳐다보며 일을 시키자니 율화가 뻗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참은 일을 농구두 늘 꿰어앉히곤 밟고 치구 했습니다.》

런대장은 심중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그 큰키때문에 안반을 학대와 멸시를 더 받은셈이구만. 음, 계급적원썹들이란 그렇게 악착한거요.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지. 안그렇소? 상등병동무!》

《그렇습니다.》

《음, 그 정신이 중요하지. 앞으로도 중대의 앞장에서 계속 위훈떨치기 바라오. 믿겠소.》

《알았습니다.》

그후부터 런대에는 김윤호라는 이름보다 《5중대방위목표》라는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다. 기실 런대의 수많은 중대들과 직속구분대들이 운동장에 한꺼번에 정렬할 때면 5중대전사들은 김윤호를 알아보고 그를 목표삼아 찾아가군했던터여서 그 이름은 자연스런 그의 별칭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전사들은 그린 그의 외모적인 특징보다 언제나 간고한 중대의 싸움마당에서 호랑이같이 용맹 떨치며 동지들을 이끌고나가는 그의 전투정신을 더 높이 사서 그 이름을 부르곤했다.

전쟁이 일어난 며칠후 남으로 질풍같이 진격하던 중대는 문산동북쪽에 위치한 백악산을 적들보다 먼저 차지하라는 긴급명령을 받았다. 적아사이에 가로놓인 이 고지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런대작전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그때는 중대가 적들의 예상외의 반공격을 물리치느라 힘겨운 격전을 치르고있던중이어서 중대장은 윤호가 속한 분대만을 뽑아 한시간안으로

백악산을 타고았으라는 임무를 주었다.

적들의 반공격을 격퇴한 중대가 뒤미처 결사적으로 내달려 백악산마루에 올라섰을 때 온통 적들의 시체가 깔린 고지우에서 그들을 맞은것은 윤호분대장 혼자뿐이었다.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몸으로 선홍색노을이 피어나는 새벽노을을 배경으로 바위처럼 번디디고 서서 중대전우들을 맞던 장신의 그 모습.

고지밀에서 적들의 기습을 받아 분대원들이 모두 희생되자 총가까지 결합한 육중한 중기관총을 맨 윤호는 혼자 기고 번디디며 험한 날벼락을 돌아올랐다.

천신만고끝에 그가 고지정점에 올라섰을 때는 적들도 불과 수십미터앞까지 접근해있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를 두고 먼저 고지를 타고았은 것이었다. 바위를 툴느라 손톱이 빠지고 무릎과 팔굽의 군복이 다 찢겨나간 그를 보고 전우들은 그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간고한 사생결단의 혈투를 벌렸는가를 가늠했을뿐이었다.

그때부터 중대전우들의 가슴속에는 선홍빛노을을 기발처럼 배경으로 중상당한 몸을 억척같이 번디디고 동트는 고지우에서 자기들을 맞던 《5중대방위목표》의 모습이 잊지 못할 모습으로 새겨졌다.

그후 미국놈들과의 첫 조우전이 벌어졌던 평택에서 그리고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런대공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금강도하전투에서 그가 떨친 용맹을 어찌 다 꼽으랴.

그처럼 중대의 앞에서 기발처럼 나가던 《중대방위목표》가 희생된것은 바로 적후투쟁이 한창이던 그해 겨울이었다.

지금도 석하의 눈에는 그날의 피빛어린 강기슬이 눈에 선하다.

...포위당한 적해병련대의 유일한 퇴로인 쇠바줄다리, 그것을 파괴할 임무를 받고 돌입하던 석하는 그만 다리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신을 차린 그가 눈을 떴을 때는 그보다 먼저 허리를 부상당하고 쓰러졌던 윤호분대장이 흰눈판을 피로 물들이며 다리목을 향해 기여가고있었다.

그앞에 흔들거리던 팔뚝같은 강력로쁘로 량대안을 련결한 쇠바줄다리...

《분대장동지!-》

석하는 피타게 그를 부르며 뒤따라 눈판을 기었다. 목메인 부름소리를 들었는지 폭약묶음을 안고 일어서던 윤호분대장이 피곤했던 뒤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은 웃고있었다. 무슨 부락인가 되뇌이는듯 그 얼굴에 떠올랐던 마지막 그 웃음이 사진처럼 석하의 망막에 인찍혀 사라지지 않는다...

승리한 런대가 또다시 진격의 길에 올랐을 때 석하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서나 쉽게 보이던 그 큰키 그리고 늘 입귀에 담배를 물고 푸실푸실 연기를 날리던 그 호방하고 락천적인 윤호분대장이 대렬뒤에서 자기를 부르며 따라오는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석하, 부탁하네.》

마지막 순간에 윤호분대장은 그런 말은 한것만 같았다. 아니 기실 그것은 오늘까지 수십년 세월 석하에게 못다한 의무를 깨우쳐주는 고무의 목소리로 그의 심장속에 살아있었다.

그의 뒤통까지 조코앞에 성실하자고 늘 마음다지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석하는 피로운 눈길을 사진에서 뺄수 없었다.

밖에서는 넓은 길을 드달려온 눈보라가 창문에 매달려 아우성치고있었다.

## 4

협의회가 끝난지 사흘이 지나 석하와 김봉길은 취수구설비를 실은 렬차를 편성하여 《人》수력으로 떠나보내고 뒤이어 무산행급렬차에 몸을 실었다.

김봉길은 며칠동안 잠도 변변히 못자고 상사들을 뛰어다니며 설비들을 받아신느라 두눈이 벌겍게 충혈되었으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것에 한숨 놓인듯싶었다.

렬차에 자리를 잡자 차락의 주전자에서 더운물부터 한고뿌 따라 목을 추기더니

《사실 전 이번에 아버지압력에 하마트면 기사장자리까지 다 내놓을번했습니다.》 하고 말하며 허구프게 웃었다.

석하는 그건 무슨 소리가싶어 의아한 눈을 들었다.

《아니 기사장동무 아버지님이 발전소에 함께 있소?》

봉길은 계면쩍은듯 뒤더수기를 긁었다.

《예, 실은 그 제관직장 교관이 제 부친입니다.》

《아니? 기사장동무! 그게 정말이요?》

석하는 끔찍 놀라며 되물었다.

《예, 이거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하는걸...》

봉길은 얼굴이 벌겍게 돼서 말했다.

《글쎄 어쩐지...》

그러니 그 로인이 편지에서 발전소 몇몇 간부라고 막 말할수 있는데는 다 연고가 있었던것이다.

《헌데 전번엔 그런 말이 없지 않았소?》

입을 다시던 석하가 의아해서 묻자 봉길은 멋적게 입을 다셨다.

《그동안 아버님은 전쟁때 입은 부상처가 도저 병원에 입원해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부국장동지가 올라간 며칠후에 돌아오셨지요.》

봉길은 그때가 새삼스레 돌이켜지는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아버님은 30여년을 제관직장장으로 일하다가 나이가 되어 직장교관으로 돌아앉았지만 발

전소전력생산문제엔 예나 다름없이 관심이 큼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30%증산안 도입이 어떻게 돼가는가 묻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지요.

아무말없이 담배를 연거퍼 갈아대며 몇대 피우시더니 당장에 그 결음으로 설천령을 넘어 <죽은물> 호수로 넘어가시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줄담배를 이어대며 심각한 낮빛으로 생각에 잠기면 꼭 무슨 일이 터지구하는것을 잘 아는지라 전 하루종일 전전공공해서 기다렸지요.

아닐세라 저녁늦게야 온통 눈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신 아버지는 기사장방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으로

<래일 당위원회를 찾아가 기사장자릴 내놓겠다고 해라.> 하시는겁니다. 허참! 너무 뜻밖이어서

<아버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네가 원래 학교다닐 때보니 잔잔한 물만 찾아다니며 놀구, 질러가는 산길보다 늘썽 넓은 신작로를 더 좋아하더라. 한번도 나무에서 떨어졌단 소릴 못들었다. 그래서 저너석이 큰일은 못하겠구나 했다. 헌데 그게 공연한 기우가 아니었다.

넌 당초에 사고방식이 글렀다. 그런 패배주의 정신을 가지군 이 큰 수력의 <고난의 행군>을 못 끌구나가. 애당초 가능성여부를 놓고 감론을박한게 잘못이다. 큰산을 무너뜨리고라도 무조건 해야한다고 결단하고 생각을 넓혀봤느냐?>

이렇게 추궁하시더니 불쑥 그 준첩선안을 내놓으시는겁니다.

부국장동지도 처음 그 안을 들었을 땐 너무 생각밖의 문제여서 놀랐다고 하셨지요. 저도 마찬가지로였습시다.

하도 어이없어 <아, 아버님! 수백톤짜리 배를 동해바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했지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은 수백톤짜리 철덩이지만 한장한장 첩판은 용접해서 만든 물건인데 토막내 가져다 다시 붙이면 될게 아니냐.> 하시는겁니다.

너무도 답이 큰 용단이 번뜩이는 아버지의 제안에 솔직히 말해 전 그때 그만 기가 질리고말았습시다.》

봉길은 그때의 광경이 되살아나는듯 소나무숲이 흘러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날밤 저는 잠을 못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채찍질과 격려에 오늘까지 이끌려오면서도 아직 그 높은 정신력에 도달하지 못한 제가 새삼스레 돌이켜지더군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문 봉길은 생각깊은 어조로 천천히 이었다.

《제가 이번에 평양으로 떠나오던 날 역에까지 따라나오며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전쟁이 거의 끝나갈무렵에 아버지는 적의 종심

깊이에 있는 어떤 대상물을 습격과파할 임무를 받고 적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무는 성과적으로 수행했지만 다섯명의 습격조는 귀로중에 어느 험한 산동굴에서 적들의 겹겹한 포위에 들고말았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남은건 아버지가 휴대했던 물통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을 약 나눠먹듯 입술만 추기며 싸우다보니 이틀후엔 그것도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데다 목마른 갈증에 입술만이 아닌 온 내장이 타들대로 타든 대원들이었는데 그 절반되나마나한 물을 보는 심정이 제각각이더랍니다.

어떤 전사는 벌써 절반이나 없어졌으니 저 물마저 떨어지면 우린 끝장이겠조속작 하고 나약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전사는 <소대장동지! 걱정마십쇼.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으니 3일은 견뎌낼수 있겠군요.> 하고 오히려 마음 든든해하더랍니다.

다음날 저녁, 사생결단의 결사전끝에 포위망을 뚫고 집결지점에 이르러보니 결국 약한 소리를 하던 두 전사는 도중에 쓰러지고 끝내 오지 못했더랍니다.

<작은일같지만 그 일을 겪은 다음부터 나는 사람은 같은 현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눈에 따라 절망과 희망, 극과 극의 립장에 설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니겠니.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먹자고 포위진을 치고 덤벼드는 이때 마음속 신념이 든든하지 못하면 눈이 흐려지고 그러면 나갈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법이다. 이걸 명심해라.>

아버지의 그 말씀은 다시한번 저에게 내리는 뼈아픈 매였습니까.

전쟁때 여섯번이나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다는 아버지가 영예군인의 그 몸으로 40여년 당정책관철에 앞장서올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억척신념으로 가슴속에 자리잡은 불굴의 그 정신력이 아니겠습니까.

부국장동지! 제가 바로 그런 신념의 눈을 뜨고 방도를 찾았더라면 아버지처럼 준첩선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음.》

석하는 긴 호흡을 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렇기는 자기 역시 마찬가지인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한 인간의 모습이 우렷이 보이는데만 같았다.

비뿌리고 눈보라가 날리고 태풍이 겹쳐드는 풍진 광란속에서도 대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기백으로 발전소로동계급의 앞장에서 기발처럼 대오를 이끌고가는 한 로당원의 강직한 모습이...

석하는 그 제관직장 교관아바이에게 강렬하게 이끌리는 자신의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석하부국장과 봉길기사장이 발전소로 넘어가는 세곡역에 도착하니 그사이에 벌써 준첩선의 네토막이 당도해있었다.

국에서 지시를 떨군지 닷새만이다.

그야말로 번개같은 속도다.

그들이 실어보낸 도중취수구설비도 호수건너편의 만평역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다. 역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속도전》, 《전격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기어이 공사를 한달안에 끝내자!》는 구호와 속보들이 역구내 곳곳에 보인다.

준첩선선체와 부속설비를 실은 기관차를 구내에 들이대는 기적소리, 기증기소리, 호각소리, 옛사엿사 구령소리, 떠들썩한 노래소리로 조용하던 산간역은 온통 부글부글 끓는다.

흠에 내려서서 사위가 사준 새 안경의 허리를 추스르며 역구내를 둘러보던 김석하는 이 벽찬 현실과 자기사이에 벌어져있는 엄청난 거리감, 격차간 같은것을 느꼈다.

보름전, 공사를 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올라갈 때는 정적만이 깃들었던 역이다.

그때는 사나운 북방의 추위에 움송그리고 기를 펴지 못하는듯싶던 발전소지구가 지금은 온통 창조적열정의 기지개를 켜며 움쉴움쉴 요동하고있다.

그 교관로인의 말마따나 같은 조건에서도 인간은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있는가에 따라 극과 극의 상반된 결실을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다.

언제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갈라보는 해부학적안목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과찬속에 살아오는 사이 저도 모르게 자리잡은 일종의 자부, 그것은 얼마나 이 벽찬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현시의 안목이었던가.

석하는 늘 화선의 그 정신, 그 자세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어느사이 저도 모르게 현실의 그들속에 빠지고만 자기의 사업 태도가 심각하게 돌이켜졌다.

진정 당의 요구를 무조건적인 삶의 요구로 받들고 결사의 각오로 걸린 문제해결에 뛰어드는 교관아바이의 그런 정신은 결코 계산자의 해부학적수치로는 잴수 없는것이다. 그런 정신이 과연 나에게 있었던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이 단순히 막아선 난관을 극복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이 앞장서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말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또하나의 혁명이며 창조과정이라는 자각이 심장속에 끓고있었더라면 자기역시 준첩선문제를 생각 못해낼리 없는것이다.

결국 풀어야 할 근본문제는 자신의 머리속에 있었다.

깊은 자책속에 석하가 새로운 결심으로 큰숨을



들이쉬는데 하차작업을 지휘하던 설비과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뛰어왔다.

옆에 켜던 장부책을 들고 철길레루를 정동정동 뛰어넘어온 그는 너부죽한 얼굴을 노상 빙글거리며 래일중으로 준첩선의 나머지 부분과 부속기재들이 전부 도착한다고 보고했다.

《우리 아버님도 오셨소?》

《예, 벌써 첫 토막을 싣고 령을 넘어갔습니다. 기사장동지가 돌아오면 자기는 준첩선조립장에 가있겠으니 설비수송문제부터 대책하라고 하더군요.》

《알겠소.》

봉길기사장은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것이 아뭏게 흡족해서 머리를 끄덕였다.

《거 누가 기사장인지 알겠소?》

석하가 옆에서 한마디하자 봉길은 기름한 얼굴에 벌썬 웃음을 담았다.

현장지휘를 하던 지배인을 비롯한 발전소일꾼들의 참가밑에 역에서는 구체적인 전투계획이 작성되었다. 석하는 준첩선조립장으로 넘어가 인수로작업구간과 도중취수구설치자리를 재확정하기로 하고 봉길기사장은 도중취수구설비운반을 담당하기로 했다.

준첩선이 분리해체되어 제기일에 도착한 조건에서 한달안으로 《죽은물》을 전기생산에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도중취수구설비를 공사장까지 8일동안에 운반하는가 못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렸다. 전투지휘부에서는 발전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을 도로 눈치는 작업에 총동원하기로 하고 시간이 긴박하면 린접에 주둔한 인민군군인들의 방조를 받기로 했다.

석하가 준첩선조립장에 바빠 가기로 한데는 그가 가서 결정해야 할 기술적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재판직장 교관부터 만나보려는 생각에 더 동해하였다.

인수로구간과 도중취수구자리를 돌아보느라 하루종일 눈코 뜰새없었던 석하는 저녁녘에야 준첩선의 부속기재들을 협궤차에 싣고 조립장으로 넘어갔다.

발전소의 한다하는 용접공들이 다 달라붙은 준첩선조립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쏟아지는 용접불꽃이 붉은 화광속에 눈보라와 한데섞여 온 골짜기를 메우며 흩날리는것이 장관이다.

그런데 석하가 아무리 둘러봐도 교관로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재판직장장말이 눈치는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취수구설비수송이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아침에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도로작업장으로 넘어갔다는것이였다.

석하는 급히 림시 가설해놓은 휴게실로 들어가 전화로 봉길기사장을 찾았다. 한참 찾아서야 다급히 뛰어온듯 기사장의 거친 숨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다.

《부국장동지! 이거 설상가상이라더니 야단났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세차서 눈을 쳐내면 금방 또 그만큼 메워놓으니 도무지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길...》

석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달아올라 목깃을 터치며 소리쳤다.

《거 기상관측소에 알아보오. 바람이 언제면 자겠는지...》

《아, 알아보나마납니다. 우리고장에선 이 <곰장내기> 바람이 터지면 장 며칠은 사람이 밖에도 나다니지 못합니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호수를 건너온 아버님말씀이...》

기사장의 목소리는 여기서 문득 끊어졌다.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다. 세찬 눈보라에 전화선의 어딘가 절단된 모양이다. 이러다가는 취수구설비들을 도로상의 눈더미속에 파묻고 며칠을 기다릴수 있다.

가슴을 파고드는 절박감에 석하는 천막밖으로 뛰쳐나왔다. 호수 건너편이 바라보이는 둔덕우로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올라섰다.

발전소를 둘러싼 높낮은 산발아래 흰눈에 덮인 호수우에는 온통 뽕얀 눈보라의 장막뿐이다. 그 틈으로 건너편 대안을 휘돌아간 도로가 얼핏얼핏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한다. 표호하는 눈보라는 거칠것없는 호수우를 마음껏 줄달음쳐서는 자연의 광포에 엇서나서는 인간들에 분노한 주먹을 내지르듯 아우성치며 산벼랑에 부딪치고 부딪쳐서는 굴고 온 눈더미를 도로우에 내팽개치고 허공중 아득한곳으로 달려올라간다. 기발대들이 부러지고 길옆에 켜던 천막이 통채로 붕 떠서 휴지처럼 날려가는것이 보인다.

석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슴이 단근질하듯 세차게 뒹다.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준첩선조립장으로 생각에 모대기며 걸어내려오던 석하는 문득 공포 얼어붙은 호수우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들처럼 호수의 얼음우로 곧바로 건너올수만 있다면...

부지중 심장이 후드득 뒹다. 그러면 100리길을 8일동안이나 예뉘것없이 단 하루면 된다. 그런데 저 호수의 얼음이 과연 수백톤에 달하는 설비의 무게를 이겨낼것인가. 석하의 눈앞에는 순간적으로 육중한 취수구설비들을 실은 대형쇠발구와 련결차들이 한꺼번에 호수속으로 꺼져들어가는 환각이 일었다.

오싹하는 전율이 온몸의 세포까지 싸늘하게 흐르며 지나간다. 다른 사람들도 그 우려때문에 감히 그 생각을 못하고있을것이다.

그때 그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전쟁시기 노을령전투때 군단에서 지원나온 대구역포들을 강건너로 도하시키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포의 무게가 육중하다보니 강에 얼어붙은 얼음이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꺼져내렸다. 그때 윤호분대장이 머슴살때 발구에 나무를 해싹고 강을 건드던 방법이라며 얼음우에 버짚을 깔면서 물을 부어 얼음의 심도를 두텁게 한다음 건너보자고 했다. 대구정포들은 끄떡없이 강을 건너갔다.

어쩌면 이 다급한 대목에서 다시금 맺힌 실머리를 풀어주며 윤호분대장이 기억에 떠오른것인가.

홍분을 건잡지 못하고 현장지휘부천막안으로 뛰어들어간 석하는 무작정 전화통을 들고 호수건너편의 봉길기사장을 찾았다.

그사이 전화선을 복구한 모양 전화기에서는 기사장대신 드레진 목소리의 설비과장이 나왔다.

《부국장동집니까? 마침입니다.》

석하가 미처 말쑥지도 뽀사아없이 상대방에서 먼저 범석 고아댄다.

《취수구설비를 말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호수우의 얼음우로 끝자는겁니다. 쇠발구에 태워서...그럼 닻새가 아니라...아 들습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

석하는 그만 대답할 생각도 잊고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어쩌면 이렇게 신통한가. 저쪽에서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는것이다.

《듣소. 그런데 파장동무! 지금 초겨울인데 호수의 얼음이 수백톤의 무게를 꽤 받아낼가? 그걸 생각해봤느냐 말이요.》

《예, 그래서 우린 물차를 동원해서 버짚을 깔면서 물을 뿌려 얼음심도를 보장하자는겁니다.》

석하는 말문이 막혔다.

저쪽에선 마치 석하의 머리속을 다 짚어본듯싶다. 이쪽에서 인차 대답이 없자 저쪽에서는 송화구를 후후 불며 소리를 높였다.

《부국장동지, 진흙말입니다. 진흙에 버짚을 섞어 토피를 찍으면 트지 않고 든든하듯이...바로 그렇게 하자는겁니다.》

석하는 홍분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다.

《알겠소. 절대찬성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생각했소. 버짚을 깔면서 얼구는것말이요.》

《누구건 누구겠습니까. 윤호아바인 지금 벌써 물차를 끌고 호수가로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동해안의 준첩선을 날라다 인수로를 팔 생각같은 기상천외한 궁리는 아마 그 평감밖에 할 사람이 없을겁니다. 누구나 안되겠다고 하는 대목에서도 그 아바인 꼭 방도를 찾아내거든요. 하.》

석하는 자기귀를 의심했다.

《파장동무! 이자 그 아바인 이름이 뭐라구?》

《윤호아바인말입니다. 김윤호...》

석하는 뇌리에 번쩍하는 강한 충격같은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농칠세라 전화기를

꽂아 넣어주며 다급히 물었다.

《참, 그 아바인 키가 크지 않소?》

《아, 키가 들썩 크지요. 앓은키가 웬만한 작은 사람 선 키만 하답니다.》

한번은 발전소회관에 종업원이 다 모였는데 새로운 직명위원장동지가 맨뒤에 앓은 아바인 보고 아, 아바인 왜 거기 섰습니까? 여기 나와 앓으십시오 하는통에 굉장한 웃음통이 터졌지요. 수천명의 종업원이 다 모여도 아바인 첫눈에 알립니다. 하긴 무슨일을 해두 항상 발전소앞장에 기발처럼 서서 나가니 더 그렇긴 하지만서두...》

(윤호분대장동지!)

석하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맷혔던 만단사연이 한꺼번에 매듭을 풀고 열리듯 해득이 되어왔다.

봉길기사장이 것처럼 낮익어보였던 까닭도, 부에 올려보낸 편지의 자자구구들이 언제나 고무와 일깨움으로 떠밀어주던 아득한 옛시절 그 누군가의 목소리로 귀전에 들려오던 리유도...

그리나 그런것을 캐고 따져볼 정신적여유가 그 에겐 벌써 없었다.

《윤호분대장이 살아있다. 우리 5중대방위목표가...》

석하는 전화를 동댕이치고 허둥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저녁어스름이 짙게 내려앉은 얼음판우를 비칠거리며 호수우를 내달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어떤 인력에 이끌린듯 사나운 눈보라속으로 반달음쳐가던 석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호수의 건너편 대안에서 거대한 불의 화광과 기계군단의 동음이 움쭉거리며 이쪽으로 건너오고있었다.

둔중한 발동소리, 방송차의 노래소리, 구령소리, 호각소리가 호반우에 가득차서 열기를 풍긴다.

눈보라가 휩쓸어가는 호수의 한복판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뿜아올린 물을 만재한 두대의 물차가 엇바꾸어 달려온다.

버짚을 한가득실은 화물차들이 편이어 앞서나가며 얼음판우에 부리워놓는다. 그러면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버짚단들을 자동차 몇대가 어길만한 대통로너비로 퍼놓는다. 그러면 그우에 뿜어지는 물차의 물이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잠간사이에 넓은 빙판으로 얼어붙고만다. 그 썩뒤에는 취수구설비를 만재한 대형 쇠발구를 끄는 불도젤들이 출발시간을 기다리며 령지어섰다.

맨 선두의 불도젤우에는 방한모끈을 뒤더수기에 잡아매고 해불을 높이 든 키가 큰 로인이 두발을 번디디고 서서 길을 밝힌다. 운전칸에서 역시 키풀이나 한 사나이가 나오더니 불을 붙인 담배를 로인에게 권한다. 봉길기사장이다.

담배를 받아 입귀에 물고 푸실푸실 연기를 날



리며 다시 화불을 높이 쳐드는 로인을 보는 순간  
석하는 그만 목이 꺾 메었다.

《분대장동지!》

이 땅, 이 제도를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  
지 고이고 보듬어 빛낼 그 결곡한 마음 하나를  
기둥처럼 가슴에 꼭 채우고 한생을 전투장의 앞  
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 바로 저런 인간에게서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칠수록 혁명적열정과 무한대  
의 창조력이 열풍처럼 뿜어져나오는것이 아니겠  
는가. 두드릴수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강쇠처럼.

석하는 눈곱으로 흘러내리는 무엇인가를 느낄  
새도 없이 그 화불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머리속에는 전국의 곳곳에 살아있는 중대  
전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불꽃  
처럼 스쳐간다.

그렇다! 전하자. 우리 《5중대방위목표》가 살  
아있다고.

그가 오늘도 대오의 앞에서 화선의 전우들을  
새로운 돌격전으로 힘차게 부르고있다고...

## 맑고 푸른 하늘

류동호

그날엔

우리 장군님 비행장에 찾아오신

바로 그날엔

하늘도 맑고 푸르렀네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도 빛나는 별

사랑하는 영웅비행사를 그려보시며

장군님 생각깊이 바라보시던

내 조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네

이런 영웅들이 있어

우리 마음 든든하고

우리 조국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백전백승한다고 하실 때

비행사들의 마음은 푸른 하늘을 날았네

비행사들은 날았네

사랑의 향로

믿음의 그 향로로

신념의 은빛날개를 더 활짝 펼쳤네

태양을 따라 별들이 돌듯이

철조망도 없는 만리대공에

태양을 옹위하는 신념의 향로를 정하고

무적의 불새들이 날으는 하늘이라네

땅우에서 받아안은 삶

하늘에서 빛내이고

하늘에서 떨친 위훈

땅우에 실어내린다네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어

날개우의 태양을 옹위하고

날개아래 평양을 지키며

장군님 비행대가 날으는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다네

아, 하늘

우리의 하늘은 장군님 펼쳐주신 하늘

조선의 하늘은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

비행사들은 그 하늘만을 안다네

맑고 푸른 그 하늘만을 안다네

## 조국이어 더욱 빛발치라

전찬기

눈곱뜨거이 바라보노라  
맑고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저 거세찬 퍼덕임  
어떻게 날리는 우리의 기발이나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고  
내리는 햇빛에 빛나는것이라면  
우리 가슴 이리도 뜨겁지 않으리  
우리 생각 이리도 깊어지지 않으리

간고분투라는 의미와  
최후승리라는 그 뜻  
가슴가슴 새로이 생각해 하며  
불굴의 넋으로 나래치는 공화국기발

자랑이여라  
영광이여라  
《고난의 행군》길에서 우리 뼈와 살 속에  
새겨진  
주체성, 민족성으로 빛나고  
궁지높은 존엄으로 누리에 떨치는 모습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받들었기에  
겪어온 그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힘은 백배로 솟구쳤고  
필승의 신념 금강석처럼 불변했거니

아, 전선에서 전선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따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힘차게 휘날려온  
공화국기발이 하늘높이 휘날린다

그 어떤 원썩도 무릎 꿇리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위대한 인민이 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대 세계를 굽어보며 더욱 빛발치라  
주체의 년호로 세월을 이으며  
태양절을 향유하는 강성대국 자랑스러운  
조국이어  
주체의 찬란한 빛발을 뿌리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으로  
해와 달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발치라  
무궁한 세월우에 더욱더 빛발치라

## 충효의 화신

문동식

그이는 홀로 계신적이 없으시다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그이는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신다

해썬는 아침이면 의례히  
노을속에 쏘는 태양 마주하시고  
가장 경건히, 가장 정중히  
어버이수령님과  
새날의 일과를 의논하신다

집무실의 창밖에 은하수 기울면  
분망하신 사업의 심연속에서  
그이는 문득 일어서시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시선을 보내신다  
수령님께 하루일을 아뢰이신다

인민에게 더 좋은 휴양지를 꾸려주시려  
수령님 그리도 마음 쓰시던  
구월산과 칠보산도 그 몇차례...  
수령님 뜻대로 일떠세우신  
공장지구 살림집도 다 돌아보셨고

우리 수령님 한평생 아끼시던  
인민의 안녕이 걱정되시여  
최전연의 초소들도 다 다녀오셨건만  
그이의 심중은  
그 언제한번 가볍지 않으시다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유혼을  
더 빨리 더 잘 이룩할것인가  
오로지 이 하나의 지향과 열망뿐

그이는 그 마음 안으시고  
인민을 더 뜨겁게 품안아주신다

그이의 품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충효를 싣고 이어지는 해와 달  
비오고 눈내리며 계절은 바뀌어도  
장군님의 변함없는 충효의 세계는  
수령님의 유혼이 꽃피나는 봄세계

그 봄의 해빛으로 이 땅위에 흐르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원한 사랑속에  
후손들이 길이길이 안겨살도록  
천세만세 조선을 수령님의 나라로  
충효일심으로 빛내어나가도록

오늘도 유혼을 이룩해가시는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그이는 행성우에 인류가 생겨 처음  
충효의 새 국가를 건설하신 창조자

그이를 삶의 태양으로  
인민은 격찬의 함성을 터치건만  
그럴수록 가없는 충효의 우주에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더 높이 우리려 받들어모시는

오, 그이는 충효의 화신이다  
지구우에 인간이 생겨나 백만년  
하지만 그이만이  
문명의 절정우에 높이 서시여  
인류를 가장 빛나게 완성해주시는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다

## 내 조국은 지금 아침이다

리종덕

새해의 기쁨과 환희로  
소리치고싶은 이 아침  
온몸에 넘치는 싱싱한 활력으로  
기름진 룡마처럼 내달고싶은  
지금은 아침이다

단잠 깬 새들이 무리지어나는 소리  
산굽이를 도는 화물열차의 먼 기적소리  
이때라고  
산원의 큰 창문들을 흔들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첫 고고성도 물밀듯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예대로가 아니구나  
어버이수령님 생전의 뜻대로  
경애하는 장군님 더 높이 받들어갈  
그 맹세를 안고 일떠선  
이 땅의 새해

5천년력사의 행운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땅의 수위에 높이 모신

대경사의 경륜속에  
새해를 펼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청년돌격대원들의 저 기발은  
얼마나 뜨겁게 불타는것이나  
들길을 가는 처녀들의 눈빛은  
그 얼마나 밝은것이나  
백배로 더 억세여지고 높아진  
병사들의 발구름소리  
아이들의 노래소리

주체의 새 세기를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더없이 평온한 새날의 날개를 펴고  
대양처럼 크나큰 숨결로 설레이는  
내 조국은 지금 아침이다

그이의 예지로 밝고  
그이의 열정으로 끓고  
그이 꽃피우신  
공산주의미풍의 향기로 만발하는  
주체의 숲 더욱 무성한  
사회주의 이 강산

비오고 눈오고 바람불어도  
눈부시도록 밝은 아침이여  
지구가 통채로 암흑속에 잠기여도  
사회주의 내 조국만은  
언제나 밝고밝으리

정일봉의 하늘가에 이글거리는  
광휘로운 태양의 저 빛발을  
그 어떤 광풍인들  
검은 구름인들  
감히 가리울수 있으랴

그이의 강철의 의지와 신념으로  
또 한걸음 큼직이 내딛는  
사회주의승리의 이 아침  
오늘도 빛나고 래일도 빛나  
천만년 영원할 조선의 아침이여

오오, 무궁하여라 양양하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내 조국은 지금 아침이여라  
언제나 아침이여라

## 나는 강판에 자호를 쓴다

천일수

꼭꼭 눌러  
검사원-나는 자호를 쓴다  
방금 밀어낸 강판통구리에  
새해의 첫 강편더미에

예나 다름없는 글발이여도  
예와 다른 마음으로 글발을 새긴다  
이해의 첫 강철난가리  
엄숙한 맹세의 무게를 실은  
뜨거운 그 강편마다

위대한 장군님 더 높이 추켜드신  
우리 승리의 표대인 붉은기  
그 힘찬 숨결로 심장을 끓이며  
높이높이 쌓아가는 신념의 산악이여

강철로는 더 세차게 쇠물을 끓이고  
압연기는 더 힘차게 강판을 밀어내고  
기중기는 긴 팔을 휘두른다

나는 드바베 자호를 새긴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쓴다  
강철의 질만을 담보하는  
그런 자호만이 아닌 자호  
나는 꼭꼭 눌러 강편마다 새긴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  
새해의 첫 강철더미

아,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 굳게 다지는  
끄떡없는 성세의 성벽인가  
생각깊은 강철난가리에  
보란듯이 새긴다

래일도 변함없을  
우리의 힘과 기상이 맥박치는 글발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채 식기도전에  
뜨거운 강편마다 새긴다

##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

최길상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주체문학의 새로운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문학의 빛나는 미래를 문학창작으로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작가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류레없이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고난의 행군》의 최후돌격전을 벌리며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에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위력한 무기인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혁명에 이바지해온 우리 작가들은 지금 신심도 드높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며 전진, 투쟁, 투쟁 또 전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앞에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주체문학 창조와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우리 식대로 창작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창작하며 생활하는 여기에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에는 문학에 대한 우리 인민의 요구가 집대성되어있으며 문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문학활동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에만 문학을 주체성있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식대로 창작활동을 벌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에 의거하여 문학 창작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구현이며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지침이다.

현시기 문학 창작과 건설을 오직 우리 식대로 할 문제가 절박하게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대적요구에 비롯된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제국주의반동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횡포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가장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과도 같은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도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나라를 없애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벽으로 지켜야 하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대에 맞게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무겁고도 숭고한 임무에 비추어볼 때 사람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감화력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가 격동하는 시대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도 정치사상적진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사상으로 승리하고 사상으로 진로를 힘있게 개척하여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며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이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당의 작가의 본분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오늘의 시련을 뚫고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창작하는 문학작품이 투쟁과 위훈의 기치가 되고 붉은 기발이 되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설 때 우리는 명실공히 혁명에 이바지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의 이러한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창작하여야 문학작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투철히 구현할수 있고 당의 의지를 체현시킬수 있다. 오직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 장군님의 뜻을 창작에 그대로 반영할 때에만이 우리 문학이 당의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작품의 종자도 인간문제도 형상수법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하는것이 바로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근본 자세와 립장이다. 모든 작가들은 작품의 소재를 탐구하고 사상주제적대를 세우며 구성을 짜고 표현 하나를 고르는 창작의 모든 과정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미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우리 식 문학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식으로 창작하는것이 우리 문학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우리 문학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혁명도 건설도 오직 우리 식대로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철저히 고수하고 견지하여온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상문화적공세를 들이대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 어떤 고립, 봉쇄,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택한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더는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지금 원썬들은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를 침습시켜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불어대는 황색바람은 특히 문학예술분야에 더욱 교활하고 악착하게 덤벼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적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인 공세로 맞서야 하며 적들의 비렬한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우리가 혁명적인 문학작품, 붉은기사상이 나래치는 문학작품을 더 좋게, 더 훌륭히 창작한다면 적들의 그 어떤 사상문화적공세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우리 내부에 자그마한 황색바람도 스며들지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적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나가자면 우리 식대로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창작하여야 당의 문학,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문학의 언덕 위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릴수 있을것이며 우리 문학의

혁명적원칙성을 고수할수 있다.

오늘 현정세의 요구로 보나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으로 보나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식대로 문학 창작과 건설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 총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였고 지난 30여년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위업의 영원한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태양위업의 빛나는 계승자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문학은 시대적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얼마전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작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 작사, 설명순 작곡)는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시대와 력사의 의지와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담은 **김일성**민족의 태양위업송가, 만고절세의 위인찬가이다. 불멸의 송가는 우리 인민이 오랜 기간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던 절절한 념원의 실현이였고 력사가 갈망하여마지 않던 위인에 대한 칭송이였다. 하기에 불멸의 혁명송가는 비상한 견인력으로 파급되어 민족과 겨레의 심장을 환희와 격정에 끓게 하고 인류의 심장을 뜨겁고 세차게 울려주었으며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력사적사변을 맞이하여 도래할 새 세기의 태양송가로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희망찬 21세기에로의 교체가 일정에 오르고있는 력사의 전환점에서 불멸의 혁명송가가 높이 울리는것은 태양민족의 영예이고 자랑이며 우리 문학과 인류문학이 누린 특전이다.

최근 우리 문학은 또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정기종 작)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 작)를 비롯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수많은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우리 식 문학의 본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 위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우리 문학은 수령의 문학이며 수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문학에 있어서 수령형상은 기본이 기본이며 수령형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의 근본핵이며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데서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기된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서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고있으며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의 운명을 책임지고 개척해나갈 유일한 등대, 희망의 붉은 노을을 력력히 보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상에서도 제일이시고 령도력과 령도품모에서도 제일이시며 업적에서도 으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청사와 세계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탐구와 사색과 창작적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작품이 주장하는 문제성이 풍부한 형상을 통하여 안겨오게 하는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령형상작품에서 격식과 틀을 없애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릴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며 투쟁도 벌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지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시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는 수령의 형상이 친근하게 안겨오지 않으며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수 없는 울타리가 있는것 같은 감을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생활적으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안겨오도록 하는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작가들이 힘을 넣어 형상해야 할 점은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담력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속에서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보루인 주체조선의 기상을 세상에 펼치시고 세계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세계사적공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는 력사의 동란속에서 조선의 운명만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맡아안으시고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를 지키시며 정의의 수호신으로 솟아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힘있게 부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귀중한 창작적시사를 주는 성과작이다. 장편소설은 적들의 무모한 핵사찰소동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가 극도의 긴장과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강철의 담력으로 적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결출한 모습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위인의 내면심리를 파고드는 분석적이고 정론적기백이 약동하는 묘사, 생활사실을 종합분석하고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작가의 비상한 탐구정신의 발현으로 하여 시종일관 위대한 령장의 강철의 담력과 의지를 것처럼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강철의 담력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에 있어서 특히 최근 우리 혁명의 시련과 결부하여 장군님의 위인상을 부각하는데 탐구를 깊이 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뜻밖의 대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최대의 슬픔을 겪고있을 때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비렬하게도 우리에게 대한 립체

적인 공세와 고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준엄한 격전의 시각에 용약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판가리싸움의 진두에 나서신 용장은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우리장군님이시다.

우리 작가들은 총을 들고 날치는자들은 총대로 다스리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는자들은 강경자세로 제압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을 열렬히 격찬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담력이 없는 지도자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총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공포에 질려 붉은기가 아니라 흰기를 들기마련이며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장의 강철의 담력에서만 백승의 총대가 태어난다. 령장의 담력은 어떤 위험과 강권앞에서도 겁을 모르고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며 생사를 가르는 마당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비판이 없이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인간정신, 인간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배심, 퇴성벽력에도 드놀지 않으며 천하대적도 무색케 하는 영웅정신의 위대한 힘, 위대한 의지이다. 그것은 백두산호랑이의 기상과 위엄그대로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소리로 번개를 일으키며 먹구름을 몰아내고 눈사태를 내려 천만대적을 혼비백산케 하는 백두산형의 담력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이 더욱 박력있고 격조높이 청송되도록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대와 력사 앞에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계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운명은 구원되였다는것을 격찬하여야 하며 력사는 이 시대를 명실공히 **김정일**시대로 칭송한다는것을 청높이 말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창작하며 우리 식 문학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인 문제는 우리 문학에 혁명적량만을 풍만하게 구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문학예술작품들을 지도하시면서 작품에 신념과 락관, 량만을 구현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첨예성으로 보아 문학작품에 혁명적량만을 구현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창작실천적요구로 나선다.

우리가 창작에서 구현하여야 할 량만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통같은 신념과 의지에서 우리나라오는 량만이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랑만은 행복한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아기의 고르로운 숨소리도 아니며 유보도강가를 거닐며 로동의 회열과 미래를 언약하는 청춘들의 속삭임도 아니다. 우리 시대의 랑만은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인생관,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를 력력히 보는 붉은기의 랑만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의 광풍이 사나운 격랑을 몰아오는 망망대해우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켜 고난을 맞받아 돌진해나가는 시련의 절정에서 분출된 랑만이다. 이것은 령하 40도를 헤아리는 자연의 횡포와 기아를 이겨내며 눈보라 천리길을 헤쳐 북대정자로 진군하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장에서 격찬된 철의 신념이다.

이것이 우리 작가들이 구현해야 할 우리 시대의 랑만이다.

지난해 본 조국땅이 추대환호로 들끓던 9월의 어느날에 있었던 력사적인 사실앞에서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흥분을 받은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인민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시각마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진 구월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신비로운 절경을 이룬 어느 한 폭포에 이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폭포벽에 씌여진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글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격하신 음성으로 이것이 우리 병사들의 랑만이요, 길지 않은 이 글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사랑과 확신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이여, 바로 이것이 고금에 없는 시련을 헤치며 위대한 장군님따라 결사의 싸움의 나날에 실천적진리로 체득된 우리의 랑만, 우리 장군님식랑만이다. 이 걱정적인 하나의 사실에서도 우리의 창작적 충동과 열정을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촉발시키는가. 참으로 우리 장군님식 랑만은 지구가 동강나고 천하가 뒤집힌다 해도 추호의 비판이나 동요없이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이겨내는 담력이지, 락관의지이다. 바로 이 랑만의 세계를 격정적으로 펼쳐보이는것, 이것이 우리 작가들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류동호 작)은 시대의 랑만성을 구현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끝없는 전선길을 달리는 최고사령부 야전군용차가 병사들의 환호의 메아리를 싣고 달리는 그 길우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병사들과 함께 보내신 야외점심식사의 한때와 석양이 비낀 저녁과 별이 돋는 깊은 밤도 있다. 작품에 펼쳐지는 시형상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친아버이로 믿고 그이께서 가리키

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웃으며 바치려는 병사들의 랑만이 질게 드리우고있다.

작품에 펼쳐진 랑만적색조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 혈연적으로 맺어진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있으며 그 어떤 천하대적도 이처럼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병사들을 당하지 못하리라는 신심을 안겨준다.

우리 문학에서 랑만성구현문제는 시와 소설, 극문학, 아동문학 등 모든 형태의 문학작품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미학적문제이다.

우리 문학을 우리 식대로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문학작품에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옹게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이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서 근본문제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 문학에 있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근본요구이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옹게 구현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며 그것은 문학 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바로 이러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문학창작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는것이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문학작품에 민족자주정신을 깊이있게 구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민족문학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 고유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반영하는것으로써 실현된다. 우리는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강의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자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최절정을 이루고 발전하였으며 오늘 태양

민족의 영예와 존엄과 기개는 세상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되는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풍만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그것이 산문이든 운문이든 극문학이든 관계없이 민족적정서와 감정이 작품전반에 차고넘쳐야 우리 인민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될수 있으며 독자들을 공감시킬수 있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정성환 작)가 사람들에게 풍만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내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것은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뜨겁게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핵으로 하여 그 우수성이 최고로 발현되고있는 민족의 감정정서를 작품에 구현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충효의 나라, 충효로 자기 령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드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작품에 뜨겁고 도도하게 굽이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과 함께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우리 인민에게 낯익은 아름다운 자연풍경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문학작품에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삼천리강토위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고야 말리라는 민족의 의지와 지향을 잘 반영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

반세기이상이나 민족분렬의 지속으로 하여 지금 우리 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비극을 체험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전에는 발편잠을 잘수 없고 신들메를 잡지도 풀어놓을수 없다는 사상이 세차게 뿜어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지향과 념원과 각오는 현시기 우리 인민의 시대적 감정과 정서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그날을 앞당기게 하도록 고무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더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식으로 문학 창작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받들려는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자기 수령을 영원한 스승으로 우러르는 혁명가의 자세에는 사소한 드림도 없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세련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스승

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하며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품모를 체득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워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장군님과 한식솔이 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김정일**제일숭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쓰고 탐구를 하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안녕과 권위를 먼저 생각하고 장군님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색도 열정도 다 바치며 명작창작의 실적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적극적인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식의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기량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창작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만이 문학창작으로 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고 작가로서의 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며 현실속에서 체험하고 단련하면서 자기의 창작기량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하며 실력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 식의 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식대로 창작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조선인민군 창작가, 예술인들이 발휘하고있는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칠 때 우리가 창작하는 한편한편의 작품에 수령절사용위의 정신이 나래칠수 있으며 명실공히 우리 문학이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오늘처럼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사변들로 충만되고 격동하는 현실속에서 창작하며 생활한적이 없다. 우리 시대의 이 장엄한 현실을 문학형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길에서 순간의 드림이나 털끝만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작가들이 우리 식, 경애하는 장군님식대로 창작하는 여기에 주체문학의 승승장구하는 찬란한 미래와 그 위력의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창작하며 주체문학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조국이 부르는 소리

최승철

아는듯 몰랐구나 조국이란 무엇인가  
내 어릴적엔 보는것마다 새로워  
신기한 그림책같은 나라  
이제는 흠을 만져도 숲길을 걸어도  
백두의 천둥소리 피줄에 울려오고  
사연많은 부름소리 꿈속에도 들려와라

그 어떤 희생이 네게 바쳐졌던가  
누가 알랴 산에 들에 피는 꽃은  
가신이들 감지 못한 눈빛이 아니런가  
장술같이 익센 우리의 정신도  
영웅들의 피자옥우에 엉글었나니

조국이어  
너는 력사가 모여 파도치는것  
선렬들이 우리에게 화불을 넘겨준  
엄숙한 투쟁의 터전  
죽어도 못버릴 인생의 전호  
너는 사람마다 창조의 선물안고  
후손들을 마중가는 도도한 흐름이어라

진정 조국은  
민족의 거창한 집단예술  
대를 이어 다듬는 인민의 궁전  
거기 구경군은 설자리 없나니  
사람마다의 참다운 이름도  
한생의 충성우에 지어지더라

명상에 잠겨 바라보지 말라  
나라는 띠를 풀고 쉬여가는 려관방도  
함부로 손을 댈 소모품도 아니더라  
그것은 운명처럼 소중한 가꾸는것  
빈손, 빈말로는 통할수 없으리  
투사는 나라와 하나되어 영생하여도  
건달은 순간의 락업이더라

뜻을 높이 더 높이 세우자  
우리 장군님 이 땅에 펼쳐오신  
저 금강처럼 장엄한 사상과 건설의 거봉들  
엄엄한 요새를 두룬 락원을 보아라

창조는 절정에 올라서는것  
한계도 끝도 없는 탐구의 전투로  
순간마다 영원을 아로새기는것이더라

집을 지어도 기계를 만들어도  
그이처럼 세계에 건주고  
후손들을 생각하라  
나무를 심고 한권의 책을 써도  
나라의 자랑으로, 혼패로 빛나게  
기름땀 쏟아 보석처럼 다듬으라  
말중의 참말은 지성품이거니  
일손으로 증언하라 사랑한다고!

한평생을 다 바쳐 조국을 빛내오신  
절세의 성인 굽어보신다  
저 심혼을 비쳐주는 해빛같은 미소앞에  
아침 저녁 랑심을 티없이 닦으며  
분발하자! 분발하자!

원하노라  
수령님 바라보시는 저 한끝까지  
조국을 온통 눈부신 탑으로  
하늘 가득히 세우고싶구나  
그러면 그 광채 누리를 휩쓸제  
인류는 소리모아 웨치리라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알려거든  
조선의 사회주의를 보라!-고

오 영예높은 주체문명의 조국이어!  
살을 갈라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여  
이제 우리 그대를 업고  
승리의 별천지로 치달아오르리  
걸음마다 폭풍우 휘몰아쳐도  
신들메 조이고 끝까지 오르리

붉은기 드높이 북소리 울려라  
일터마다 혁신의 포문을 열라  
그렇다, 장군님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타는 심장이 있고  
하늘아래 대지가 펼쳐져있노라

## 수령영생기원의 숭엄한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에 대하여-

최언경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영생》(백보흠, 송상원 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년상에 삼가 드리는 영생기원의 서사시적화폭이다.

여기에는 일찌기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의 혁명적생애의 가장 빛나는 나날이 아로새겨져있으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영생기원의 절절한 념원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의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복잡다단한 혁명의 초행길들을 씩없이 헤치시여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사랑과 로고의 나날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자라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래 3년세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에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이런 인민이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간직하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의 가슴에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였다.

장편소설 《영생》은 이 위대한 력사의 진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하여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서거 3년상을 맞는 우리 인민에게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으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년만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갈 충성의 맹세를 더욱 뜨겁게 다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영생》이 총서 《불멸의 력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력사적지위와 그 거대한 사상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생애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가장 가슴저리게 새겨진 그리고 가장 빛나게 새겨진 1994년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이다. 바로 여기에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과 더불어 장편소설 《영생》이 가지는 력사문헌적 의의와 영원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인간이 위대하여 위대한 인간학이 있고 생활이 위대하여 위대한 예술이 있다.

우리 인민이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되새기면 새길수록 가슴뜨겁게 하는 1994년의 위대한 력사적사변들, 1994년의 신년사로부터 시작하여 1994년 7월 8일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한걸음한걸음의 길, 친히 보아주신 한건한건의 문건들... 저택시험포전의 한 늙은이와 나누신 평범한 담화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보내신 그 한초한초의 시간들과 사건들이 위대하고 비범하기에, 그것이 인간적이기에 그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형상인 소설도 것처럼 눈물겹도록 감동적인것이다.

소설에는 기승전결로 맺어지고 발전하는 사건과 인물관계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종 독자들이 책을 덮을수 없게 하는 거대한 사건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의 나날에 있었던 력사적사변들과 사건들이며 그 력사의 나날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생활의 이야기들이다.

여기에는 또한 자기고유의 운명선속속에서 발전하는 기타 인물들의 성격은 없으나 저택시험포전의 관리원인 오삼수로인, 담당간호원 채순이, 책임서기 리대천 그리고 외교일군 문선규 등과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령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되어있는 뚜렷한 개성의 인간성격들이 있다. 뜨거운 사랑과 충성으로 맺어진 이 눈물겨운 인간관계들은 소설에 극을 주고 감동을 주고있으며 그 어느 소설보다도 더 비상한 견인력을 보장해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력사문헌적소설로서의 장편소설 《영생》의 고유한 양상과 함께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서의 소설의 가치가 있다.

이 고유한 양상속에서 소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놓지 않는 김일성동지



의 위대성에서 가장 위대한것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무한하고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민위전>,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숭상하는 정치적인양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는 나의 한생이 결국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고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뿐이다.》**라고 감회깊이 한생을 회고하시였다.

장편소설 **《영생》**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의 좌우명이었던 **《이민위전》**의 인생관, 인민관, 혁명관의 진리성, 그 위대성을 역사적화폭속에 고증하고있다.

1994년. 참으로 나라의 천만가지 중대사가 겹쳐든 그 복잡다단한 해에 80고령에 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지어는 급한 수술과 수술후 치료까지도 뒤로 미루시며 불철주야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해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집무탁에 보시던 일감을 그대로 놓으신채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였다. 력사여, 인류여 물어보라, 우리 언제 이런 수령, 이런 위인을 본적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신년사를 하신 그길로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였고 불같은 애민애족의 정을 안으시고 단군릉개건공사장에 몸소 나가시였다. 밤이면 밤마다 예나 다름없이 새벽 3시가 되도록 문건을 보시고는 정당, 사회단체 일군협의회, 전국농업대회, 국방위원들의 협의회도 지도하시였으며 소년단원들의 대회에까지 몸소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7월 5일과 6일에도 경제부문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친히 지도하시였다.

항일혁명렬사유자녀 랑귀동너로부터 시작하여 꾸바의 녀성법률가, 재미교포언론인 리영숙 그리고 손원태 지어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시여 만나주신 사람들 또한 그 얼마인지 모른다.

눈수술이 있은후 다문 얼마간이라도 치료휴식을 하였던들,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 지도사업 만이라도 뒤로 미루시였던들 7월 8일과 같은 비보는 없었을수도 있을것이였다. 허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느 하나도 뒤로 미루지 않으시였

다. 미루실수가 없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안타까이 휴식과 치료를 바라시는 간절한 장군님의 권고에 그것을 들어주시지 못하는것이 가슴을 어이듯 괴로우시였으나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인민들앞에는 백살이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나도 인간이니 명예 한계가 있는거요. 사람들은 내가 인민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을 다 해주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인민들에게 주자던것을 다주지 못했소. 나는 혁명을 하면서 나라의 완전광복을 내다보았지 절반을 찾자고 하지는 않았소. 나는 아직 인민들에게 나라의 절반땅을 찾아주지 못했소. 통일을 주지 못했소. 앞날은 많지 못하는데 해야 할 일은 많소!…》**

소설은 이 모든 실재한 위대한 력사적사실들을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하여 피에 젖고 눈물에 씻기운 우리 인민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을 자아내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력사문헌적성격의 장편소설로서의 **《영생》**의 특징과 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영생》**은 이처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기본축으로 하면서도 그 어떤 복잡성속에서도 중심고리와 사태의 본질을 단번에 갈라내시는 천재적인 선견지명,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거룩한 동지에, 인민적인 사업작풍 그리고 위인적인 인간적풍모 등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전모를 참으로 의의깊게 보여주고있다.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의 접견장면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장면의 하나로 소설에 그려지고있다.

빌리 그라함과 카터, 사실상 적들편에 서있는 그들의 시점에 비친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그들을 놀라게 하고 경탄케 한 그이상의것, 심장을 통채로 매혹시킨 너무도 거대한것이였다.

핵문제와 관련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박식은 원자력전문가인 카터를 무색케 하였다.

화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문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카터는 완전히 매혹되였다. **《제재》**의 해체가 주석님께 기쁨을 드리리라고만 생각했던 카터로서는 오히려 미국에 대하여 쌓인 분노를 자극시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접견하고 돌아간 카터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던것이다.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하다. **김일성**주석은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라는것을 나는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바이다.》



그 어떤 명문가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이보다 더 진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을것이다. 하물며 카터는 적대국의 대표정객이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은 절대적이고 만인공인의것인것이다.

소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력사의 진리를 영원히 화폭에 새겨놓았다.

장편소설 《영생》은 외교책임일군의 하나인 문선규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훌륭히 부각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수령님식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인민적작품의 위대성이며 세상만사에 막힐데 없는 만능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것처럼 매듭을 찾기 어려울듯하던 적들의 《핵의혹》소동의 본질도 한눈에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타개할 만능의 열쇠를 그에게 안겨주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하많은 자료들중에서 본질적인것을 재빨리 포착하시고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를 돌파하는 관점에서 정치적개괄과 결론을 도출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계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언제한번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시였으며 일군들의 의견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카터의 영접정형에 대한 문선규의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그의 그 긴 보고를 한번도 끊지 않고 다 들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아래일군들이 사업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좀해서는 중단시키는 법이 없으시였다. 간혹 의문이 생긴다든가 부정확하다든가 혹은 확인할 대목이 있다해도 다 듣고난 다음에야 하나하나 반문하군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시면서도 자신의 그 판단을 두번세번 두드려보는 습관, 습관이라기보다 자신스스로가 선택하신 계를 엄격히 준수하시였다.

이러한 습관과 계를 얼핏보면 위대한 위인의 품모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한 이 인민적인 작품과 겸허성, 심중성으로 하여 수십여년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나가시면서도 단 한번의 정책상 착오도 범하지 않으시였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또하나의 절대적위대성이 있다.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있어서 《핵의혹》에 대한 일본과 로씨야, 남조선, 미국의 동향을 손금보듯 헤갈라내시는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적중하게 인용확인하는 묘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력사문헌적성격의

소설로서의 예술적진실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력사적사실이 그러한바와 같이 빌리 그라함, 카터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외국인들과 해외교포들의 눈에 비친 수령님의 영상은 참으로 위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나서 재미교포기자 리영숙은 위인의 위대성이 바로 그 어떤 최악의 사태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신념에 넘쳐 웃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락관성,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 강철같은 의지에 기초한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접견끝에 자기의 취재수첩에 무한히 강하면서도 무한히 부드러우신분, 한없이 격렬하고도 따뜻하신분, 인류력사 그 어디에도 그러한 령도자는 있어보지 못하였다고 썼다.

장편소설 《영생》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애의 위대성, 동지애의 위대성에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이야기하고있다.

그것은 저택시험포전관리원 오삼수, 강희원, 안달수와 그의 아들 안성철, 림근상과 그의 아들 림경찬, 도농촌경리위원장 허복덕, 천태협동농장관리위원장 배련실 그리고 담당한호원 채순에 이르기까지 그이와 연고관계를 맺고있는 모든 인물들과의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가슴뜨겁게 그려지고있다.

30여년 함께 계시면서 인연을 맺은 오삼수로인과의 관계는 류다른것이였으며 그에 대한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은 각별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여든두살이 된 로인을 친히 《동갑이》라 불러주시며 시간이 있을 때면 그와 만나 이야기하는것을 그리도 즐겨하시며 그에게서 농사형편, 인민생활형편도 료해하시였다. 특히 오삼수가 그이를 위하여 만들어드린 지팡이는 아버이수령님께 그에 대한 뜻깊은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평범한 모든 인민들이 그 누구라없이 귀중한 혁명동지였던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아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두고 이처럼 귀중히 간직하신 그이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그이의 서거이후 그리도 소중히 금고속에 보관되어있는 사랑하는 혁명전사와 함께 찍은 사진속에 가장 빛나게 체현되어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누구도 모르게 생전에 이처럼 소중히 건사하신 금고속에는 억만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전사와 함께 찍으신 한장의 사진이 보관되어있었던것이다.

우리 수령님은 이처럼 불같은 인간애, 동지애의 인간이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

동지는 수령이기전에 가장 존경하는 동지이시고 친아버지이시였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한 인정미, 인간미를 보여주는 잊을수 없는 세부들과 기품진 생활화폭들이 잘 그려지고있다.

그 수많은 눈물겨운 생활세부들과 화폭들중에서도 류다르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것은 류달리 더 따뜻이, 오래 했었을수도 있는 장군님과의 마지막작별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저리신 마음, 그것과 함께 경희동지가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가지고왔던 새벽이슬에 대한 세부이다.

경희동지가 눈수술을 받으신 아버지수령님을 찾아왔을 때 그이께서는 사사로운 면회를 뒤로 미루시고 그대로 돌려보내시였다.

경희동지가 써놓고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수령님, 새벽에 받는 찬이슬이 눈병에 좋다가에 꽃잎에서 듣는 이슬을 한병 받았습시다. 약효가 있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침마다 그 이슬물로 눈부위를 씻어보십시오. ... 김경희 올림.》

편지를 보신 김일성동지의 가슴은 몽클해오고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이께서는 해빛에 비쳐보시는 그 유리병에서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어두운 새벽마다 꽃발에 나가 이슬을 받는 경희동지의 모습을 보시였다. 그리고 이렇게 한병이 넘치도록 많은 이슬을 받으려니 얼마나 많은 품이 들었겠는가, 참으로 돌에도 꽃을 피울 지성이라고 가슴뜨거이 생각하시였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평도자이시기전에 정에 뜨거우신 정의인, 열의인이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영생》은 그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높이 모시고 시종일관 두 위인의 교감속에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소설의 무게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있다. 여기에 또한 장편소설 《영생》이 총서 《불멸의 력사》에서 차지하는 또하나의 이채로운 양상과 독특한 지위가 있으며 거대한 력사적전환기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서의 작품의 불멸의 가치와 력사적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영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있으나 평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주로는 수령님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있다.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에서 총서《불멸의 향도》의 소설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장편소설 《영생》은 조미회담을 비롯하여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 등 중대국사를 중심에 놓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면서도 주로는 아버지수령님의 눈수술과 건강 문제를 놓고 그토록 심려를 놓지 못하시고 지성을 다하시는 충신 효자의 최고화신으로서의 장군님의 형상을 그리

는데 묘사를 집중하고있다.

그 누구도 간파하지 못하였으나 신년사를 하시며 멀리 혹은 가까이로 원고를 옮기시며 초점을 맞추느라 애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전에 없는 모습을 마음을 조여가며 뵈게 된 장군님께서서는 좀처럼 걱정을 놓지 못해하신다. 과연 자연의 법칙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것인가?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한해 두해 더해가는 세월의 흐름앞에서는 무력한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즉시에 아버지수령님의 눈수술을 조직하시고 빨리 눈치료를 받으시도록 수령님께 권고를 드리였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좀처럼 그 권고를 받아들이실수 없으시였다. 그 지성이 그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는 위인의 심장!

수령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게 되자 장군님의 색안경밑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을 보시게 된 수령님께서도 참기 어려우시였다. 극이면 이보다 더 심각한 극이 어디 있겠는가!

극은 극으로 이어져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성은 진정 끝이 없는것이였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은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 참가문제를 놓고 최절정을 이루고있다어떤 위대한 인간도 한해 두해 더해가는 세월의 흐름앞에서는 무력한것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년로하신 몸으로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방금 얼마전에는 카터를 접견하시였고 며칠후에는 최고위급회담이 그이를 기다리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중한것이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이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경제부문책임일군들의 협의회에 참석하시려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것은 자신개인의 소원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임을 몇번이나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두분께서 들고계시는 전화기는 침묵을 지키는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가 통일되고 우리 인민들이 잘살게 되는것을 보고야말겠다고, 그래서 협의회에 기여이 참가하자는거라고 걱정을 터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시려는 수령님의 그 열렬한 갈망을 장군님께서인들 어찌 막으실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동의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의 마지막날들인 7월 5일과 6일마져 회의를 친히 지도하셨던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정일동무, 정일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갈리신 음성으로 그이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아버님!》하고 부르시

였다. 소설은 마침내 극의 절정에 이르고있다.

수령님께서서는 하마터면 송수화기를 떨굴번하시였다.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는 부름을 받고계시는 그이이지만 이 순간에는 참으로 놀라시였다. **김정일**동지로부터 오래간만에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보시는것이였다.

아마 인민학교에 입학한 때부터였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동안 《수령님》, 《장군님》, 《총비서》라고만 부르시였다. 간혹 명절이나 가정적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때조차도 결코 다르게 부르시지 않으시였다.

수십평생을 두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였다. 그런데 방금 그이께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신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수화기에 귀를 강구시였다.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그 부름을 듣고싶으신것이였다. 그러나 다시는 들을수 없으시였다. 전화는 끊어졌다.

독자들이여, 우리 어찌 눈물없이, 뼈에이는 아픔없이 여기서 눈길을 멈추지 않을수 있겠는가!

《아버님!》이라는 그 부름이 생전에 수령님께서 듣게 되신 마지막 기쁨이었음을, 장군님께서 수십년만에 불러보신 그 정다운 아버지란 부름을 더는 다시 불러보지 못하게 되실줄 우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장군님께서인들 차마 생각이나 하실수 있었으랴!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을 위대한 두분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시였던것 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이 마치도 아드님과 마지막 작별이 될줄 예감이라도 하신듯 그때 문득 평양역두에서 **김정일**동지와 헤어지실 때 미처 하지 못했던 그 간절한 말썽을 이제 터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허나 금시 불처럼 뜨겁게 올려나올것 같던 그 말썽이 과연 무엇이었던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가슴에 사무친 간절한 말이 왜 그처럼 쉬이 떠오르지 않는단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목이 메이시였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야 수령님께서서는 《조직비서동무, 내 걱정은 말고 조직비서동무 자신의 건강을 돌보오. 조직비서만 건강하면 나는 더 바랄게 없소. 그러면 나는 자연히 건강해지고 나라도 튼튼해지오.》 하고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어쩌면 그리도 간절히 하시고싶었던 말썽이 이것이었던것 같으시였다....

진정 인간이 인간에게 주고 바칠수 있는 사랑과 충효성의 정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이 인간적임을, 인간의 위대함을 어떻게 이 위대한 사실보다 달리 더 잘 표현할수 있겠는가!

장편소설 《영생》은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영

원히 가시여지지 않을 이 만점짜리 장편의 묘사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두분의 인간관계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을 전예없이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다.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위대한 수령님 서거이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정면으로 형상한 제5장부분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그것은 일찌기 공산주의운동력사에 있어본적없는 숭고한 도덕관, 철저한 수령관의 최절정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당하시고서도 그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거연히 일떠서시여 비애에 잠겨있던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완강하게 일을 하시였다.

첫물과일이 생겼을 때는 수령님의 뜻대로 과일이 적은 북부지구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보내주어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다름없이 수령님의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지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로동신문》 사설도 예전같이 보아주시고 강선제강소 1강철직장의 전기로 로장도, 평양화력발전소 타빈직장 담당기사도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소망을 헤아려 추모행사날자를 두번이나 연기하시고 영결식날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태양상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수령님의 사상을 백프로 받아들이고 백프로 계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 그이의 유훈교시 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생하시는것이다.

이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철의 신념이며 불수필

멸의 의지이다.

## 시련과 승리

최한섭

밤탁상등밑에서 한창 글을 쓰고있던 나는 문득 펜을 멈추고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아래방에 놓인 텔레비존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을 랑송하는 방송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었다.

나는 잠시 귀를 기울이었다. 이번에는 보다 유연한 너방송원의 목소리가 그 명언을 반복하였다.

《시련은 일시적이고 승리는 영원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펜을 놓았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고이었다. 착잡한 생각은 심원한 세계에 나를 이끌어가는것이였다.

누구나 다 그러하듯 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들을 때마다 구절구절 배여있는 심오한 뜻을 경탄의 마음으로 거듭 새기게 되고 그 의미심장함에 스스로 심취되군한다. 이 시각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시련,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 크나 작으나 시련을 겪기마련이다. 혁명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 위업의 승리를 위해, 삶과 생존을 위해 시련을 겪게 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한생을 시련없이 사는 사람은 향락과 무위도식을 일삼는 자산계급족속들밖에 없을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겪은 시련은 천태만상이었다.

항일전에 참가한 투사들에게는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며 겪은 피어린 시련과 함께 싸우며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도 있었고 얼음을 깨물며 허기진 배를 달래야 하는 혹한과 굶주림의 시련도 있었다. 또한 나무껍질로 발을 동이고 초근목피로 연명해가면서 유격근거지를 지켜야 했던 처창즈인민들의 간고한 시련도 있었다.

3년간의 전쟁참가자들에게는 조국의 위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생사를 판가리하며 전략적후퇴를 해야 하는 엄혹한 시련도 있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을 더듬던 나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나에게도 시련이 있었던가고.

해방동일로 태어난 행복한 세대인 나로서는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탄알이 귀전을 스치는 가렬한 전투마당에서의 시련은 맛보지 못했다. 그러

나 가법기는 하지만 시련은 있었다.

그것은 전쟁시기와 정전직후 후방에서 겪은 시련이었다. 그때 나는 어린 소년이었다. 철없는 덕분에 그 시련을 심상히 여겼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생활을 놓고보면 시련이라 아니할수 없다. 전장이나 후방이나 가릴것없이 초토화해버린 미제야수들의 폭격에 집도 학교도 병원도 밭도 폐허가 되어버렸다. 읍소재지의 전경을 보느라면 재더미와 그우에 우뚝하고 공허한 공장굴뚝뿐이었다.

공습정보를 알리는 군내무서의 다급하고 요란한 고동소리, 급강하하는 폭격기 《비-29》의 아츠러운 동음, 내장이 뒤집힐듯싶은 요란한 폭음, 비명과 아우성소리... 우박처럼 퍼붓는 줄폭탄과 소이탄은 거리와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 그토록 행복하던 생활의 리전을 여지없이 짓이겨놓았다.

불비같이 쏟아져내리던 기총탄에 쓰러진 무고한 사람들은 또 얼마였던가. 처참한 현실이었고 간고한 시절이었다.

참혹한속에서도 멈춤이 없이 의연한것은 생활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했고 입어야 했다. 남정네들은 모두가 총을 잡은 때이니 후방에는 태반이 로약자들과 아이들, 아녀자들뿐이었다.

우리 집은 형제 셋에 고아가 된 사촌형제 셋까지 더부살이를 하여 대가정이였는데 아이들이 연약한 어머니 하나에 매달려 살림이 어렵기 그지 없었다.

그때 여름은 고마운 계절이었다. 입을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마 그래서 여름은 가난한자를 위해 있다고 하는것 같았다. 옷이란 단하나 가랭이옆에 땡기오리같은 빨간줄을 띄우고 무릎에도 못미치는 흰 광목으로 지은 짧은 바지면 고작이었다. 모자도 옷웃도 신발도 없었다. 드러난 살점은 해벌에 까맣게 타고 먼지와 땀흐른 자국으로 얼룩졌다. 발바닥은 말가죽같이 든든한 썩살이 올라 깨여진 벽돌장과 부서진 기와장, 철근들이 엇가락같이 휘여든 유리투성이인 폐허우에서도, 강변의 자갈밭에서도 끄떡없이 마음대로 쏘다닐수 있었다.

먹는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i 콩쭈쭈역 비



지, 쌀겨는 호구지책에서 상등품으로 치부되었다.

삶고 우려내고 방치로 두드리고 또 우리는 역사질이 많은 송기떡은 가루가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먹기는 괜찮았다. 하지만 수수겉절과 콩깍지를 가루내어 만든 음식처럼 뒤가 순란치 않아 야단스럽기는 매일반이었다.

풀음식도 많았다. 쭈떡, 조뱅이떡, 길짱구떡, 세투리범벅, 능쟁이무침, 쇠비름, 달래깨비... 무엇인들 못먹어봤으랴. 눈물겨운 시련이었다.

하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어 조선은 미제를 꺼꾸러 뜨리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겼다. 우리의 불굴의 인민은 풍랑을 막아선 억센 바위와 같이 모든 시련을 꿋꿋이 이겨냈다.

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에 천방지축 방공호로 줄행랑을 놓다가 지나가는 어른한테 손목을 잡혀서야 그것은 공습경보가 아니며 전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된 쪼꼬맴당 우리도 시련을 이겨냈다.

나는 옆구리에 끼고다니던 가제천 책보가 언제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는 물들인 광목책가방으로 그것이 다시 멋부리던 번쩍 거리는 비닐들가방으로 바뀌어졌는지 몰랐다. 생각만해도 진저리나는 세투리와 능쟁이따위들이 언제부터 토끼풀바구니에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느끼지 못한채 행복은 서서히 나를 에워쌌고 어느덧 시련에 찬 소년시절은 끝났다.

내가 겪은 난관들을 빈약한 줄로써 몇줄 끄적거렸지만 부끄럽게도 그것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극복한 시련은 아니었다. 흘러가는 물위에 뜬 징검돌같이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사품에 스스로 떠밀리워갔을 따름이었다.

진정 시련을 이긴다는것은 만난을 박차려는 완강한 의지가 안받침된 자아정신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그럴진대 시련은 강요한 정신을 키우며 승리를 담보하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시련은 또한 비판과 락관, 락오자와 승리자, 출신과 간신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시련의 최절정기는 승리자와 락오자가 갈라지는 계선이다. 일시적인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영원한 승리자의 단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는 과연 찬연히 빛나는 **김정일**시대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결에는 영예로운 승리자도 많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락오자도 있었다.

승리의 날이 바로 래일임을 알면서도 그 승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참되고 숭고한 인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온갖 시련을 다 겪

고 남은 마지막 최후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락오자가 된 사람도 있다.

력사는 수령관이 투철하지 못하고 필승의 신념이 없는 인간들속에서 락오자와 변절자가 생겨났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겹치는 시련을 승리의 신념으로 충만된 발걸음으로 광광 짓밟고나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 패배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를 고립말살하려고 날뛰며 커다란 시련을 들쭉우고있어도 용감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임을 굳게 믿고있다.

장군님은 곧 승리이다. 그이는 인민의 수호자, 민족의 구성으로 거룩하게 높이 서계신다.

위인중의 위인, 장군중의 장군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 무비의 담력, 천재적인 지략은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고계신다.

우리는 최후의 돌격전으로 새로운 비약의 해를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후대들에게 시련을 꿋꿋이 이겨나갈 때 승리는 필연적이며 그것은 영원하다는것을 실증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앞에는 희망의 표대인 붉은기가 펄펄 날리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극복 못할 난관과 시련이란 없을것이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것으로 될것이다.

하여 많은것이 잊혀지는 먼먼 미래에도 승리의 환희로 시련의 나날들을 회고하는 즐거움을 맛볼것이다.

항일혁명전쟁에서 일제를 쳐몰리친 승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눕힌 승리,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 이 모든 승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이 시련속에서 안아와 력사앞에 조국청사앞에 길이길이 남아있는것이다. 수백수천광년을 헤아리는 무궁광대한 우주와 같이 영원히...

세상에서 승리의 영원성에 대한 철리를 가르쳐 주신분은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 한분뿐이다.

어느덧 나는 책상앞에서 물러섰다. 창밖은 어두웠다. 여기는 어둠이 왔어도 태양은 지구의 그 어느곳을 비치며 영원하듯이 승리의 길이는 무한하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나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 숭엄한 생각에 잠긴 나는 불밝은 따뜻한 방안이 아니라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장에 이 몸을 세우고 입속으로 조용히, 심장으

로 뜨겁게 명언의 자자구구를 외워본다.

## 단편소설

《시련은 일시적이고 승리는 영원하다.》

# 행복의 방아

리성식

《할머니, 저 달속에 무엇이 사나?》

《토끼가 산단다.》

《토끼는 뭘 하나?》

《절구질을 한단다. 엄마토끼랑 아빠토끼랑 둘이서 흰쌀을 찧어 땅에서 사는 착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뿌려준단다. 그래서 저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않냐. 넌 이담 크면 엄마토끼가 되어 달속에 올라가살거라.》

《아빠토끼 누가 되고.》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지.》

《그건 누구냐?》

《랑군님이란다.》

《랑군이란 뭐냐?》

세월이 흘러 친진한 손녀는 처녀로 자라 고향마을 작업반장이 되었고 할머니는 달나라에 올라간 손녀를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송경심작업반장은 미모의 처녀였다. 그는 인물이 잘났다가보다도 매력있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그런 형이었다. 직업도 가정환경도 각이한 총각들이 그의 주변을 항상 맴돌았고 찾아드는 소개자들로 하여 집 문돌쩌귀가 다 닳아빠질 정도였다.

했건만 경심은 매년 같은 대답만 외웠을뿐이다.

《전 일을 더 하고 가겠어요.》

그러던 경심이앞에 한 싱검둥이청년이 나타났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현실체험을 내려온 림성철이었다. 경심이네 반에 농장원으로 배속되어 일하게 되어있었다.

《반장동문 옛말이나 동화책을 몹시 좋아했겠군요. 아니 애착정도가 아니라 작가가 될 꿈을 안고 몇편 쓰기도 했을겁니다.》

인사끝에 불쑥 건네온 그의 말이 경심을 놀래웠다.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비밀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선 문학소조가 아니라 다른걸 요구했을겁니다. 예술과 체육이 절반씩 배합된 그런...》

(성철은 후날 경심의 다정다감한 눈빛과 매혹한 몸매를 보고 그걸 짐작했노라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감탄할만한 예측이었다. 경심은 중학교때 예술체조를 했었다.

《동문 군대때 경찰부문에 있었지요?》

《아니요. 공병에서 복무했습니다. 술한 총각들이 반장동물 따라다녔겠는데... 세상 못난이들같이니라구. 난 그럴 시간이면 저 산에 올라가 풀이라도 몇단 베었을겁니다.》

그 소리는 그만에야 경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경심은 당장 창고에 가 낫을 한가락 꺼내왔다.

《요즘은 풀베기철이니 이 일박엔 할게 없군요. 분조는 맘대로 택하세요.》

《나처럼 키가 큰 사람이 분조장을 하는 분조가 있는가요?》

《있어요. 랑기택아바이가 분조장을 하는 1분조...그럼 오늘부터 그 분조에 배속되어 일하세요. 저기에요.》

성철은 1분조 작업장인 선아봉등판으로 혼연히 떠나갔다.

경심은 자기가 지나친것 같아 오후에 우야 시간을 내어 그한테 올라갔다. 도소재지가 고향인데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후 군사복무를 거쳐 대학을 다녔으니 무슨 농사를 해봤겠는가, 아마 지금쯤 나무그늘속에 들어앉아 입건사를 잘못된 자신을 탓할거야. 래일부턴 부업분조로 돌려주자.

했었던만...

성철은 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런닝그바람으로 일을 하고있었다. 땀이 목살이며 잔등으로 줄줄 흘러내리는것도 쏠췌기며 따벌이 악스레 쏘는것도 아랑곳 않고 수풀속에 몸을 푹 잠그고 낫을 와썹 후려나간다.

그는 경심을 띄여보자 빙그레 웃었다.

《고맙습니다, 반장동무! 앞으로도 주저하지 말고 아무 일이나 막 시켜주십시오. 제가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해가 누엿해져 일을 끝내고 나란히 앉았을 때 경심은 미안한 심정으로 말을 나누었다.

《풀베기가 힘들지요?》

《아무렴 먹는 문제를 푸는 일인데 헐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걷이, 영양단지찍기... 어느것이냐 헐치 않지요.》

《그런줄 알면서 하필 농업대학을 다녀요. 다른 대학도 많은데...》

《반장동문 어째서 농업전문학교를 다녔습니까. 사범대학이나 예술부문대학을 갈수도 있었겠는



데.》

《...》

《반장동무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할게 있습니다. 키 큰 사람 싱겁지 않은데 없다고 하는데 나도 키가 커서 좀 싱거운데 앞으로...》

《그럼 소금을 쳐주어야겠군요.》

두사람은 마주보며 웃고말았다. 웃음소리는 둘의 간격을 허물며 산판으로 메아리쳤다.

경심은 비로소 성철의 모습을 유심히(아직 어떤 청년도 그렇게 본적이 없었다) 뜯어보았다.

후리후리한 키, 넓은 어깨, 두글두글한 눈망울... 남자답게 생겼다는 인상보다도 활발하면서도 가식이 없을것 같다는 느낌이 앞섰다. 은근히 믿음이 갔다. 성철의 얼굴이며 목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이 경심의 마음속에 구슬처럼 안겨들었다.

성철이는 제대군인의 완강한 기질과 대학졸업생으로서의 해박한 지식을 농사일에 바쳤다.

가을걷이가 시작되자 성철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들떠 노상 벌에서 살았다. 본조장 량기택은 누구보다도 좋아했다. 본조원들도 떨쳐나 부쩍 열성을 내었다.

농팔부위원장(경심이네 작업반담당이였다.)까지도 예없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경심이는 말없이 그를 떠밀어주었다. 하지만 성철은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반장동무한테 충고할게 있습니다.》

그날... 두사람은 달래강가에 서있었다.

넓고 긴 밭이 그들의 발 밑에 누워있었다. 온통 모래투성이인 《사막틀이》였다. 새 정보반... 부업분조 비경지다.

이랑우로 우죽비죽 솟은 콩그루터기며 여기저기에 지저분한 잡초덤불을 더듬던 성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이 밭이 반장동무네 터밭이었다면 이 꼴이 되도록 내버리진 않았을겁니다. 밭 석정반이면 못해도 강냉이 서른다섯톤은 날텐데.》

경심은 마음이 쾅해져 눈을 깔끔히 치켜떴었다. 우리가 이 《사막틀이》를 수확이 높은 강냉이밭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제가 알기나하는가? 술한 노력을 들인 흙갈이, 산더미같은 거름, 값비싼 비료, 품종좋은 강냉이종자. 그 모든것이 매해 7~8월의 홍수앞에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걸 알았으면 아마...

경심의 속생각을 들여다본듯 성철은 명령조로 뇌였다.

《우선 룡소하구의 꺾임돌이부터 없애치웁시다.》

꺾임돌이란 달래강 상류와 동암천이 합류하는 합수목 웃쪽의 흐름구간이다. 장마때면 그곳에서

방향을 돌린 량수가 합수목으로 곧장 달려들어 제방을 넘고 허물고 하여 《사막틀이》를 휩쓸곤 하였다.

물론 경심이네도 물길을 돌릴 생각을 못한건 아니였다. 공사량이 방대한데다가 바쁜 영농공정에 몰두하다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성철은 누가 뭐라고 하든 계획된 일을 빈틈없이 밀고나갔다. 군당책임비서를 만나 강하천정리사업소의 불도젤을 동원시키기로 승인을 받았다. 화약과 발파심지를 얻자고 먼 광산에도 다녀왔다. 그 사이 군농기계공장에서 약속대로 흙갈이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해주었다.

성철은 드디어 발파심지에 불을 달았다.

황!-

물길돌림공사장에서 울린 발파소리는 온 마을에 메아리쳤다.

경심은 일단 판이 커지자 강심을 먹고 앞장에 나서서 뛰었다. 농경지 1만 5백평, 아니 알곡 서른다섯톤을 얻기 위한 자연개조투쟁으로 반원들을 불러일으켰다. 한쪽으론 물길공사를, 다른 한쪽으론 박두한 흙갈이의 삭도화를 진척시켰다.

그 무렵 새해를 맞으며 당보, 군보, 청년보들에 공동사설이 실렸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밝힌 공동사설은 청춘의 가슴을 들끓게 하였다.

어느날 선아봉에 삭도기들을 세우려 올라갔던 성철이 산턱벼랑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경심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돌아올 때 그는 룡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키 어려운 소리를 하였다.

《하마트면 농업전선의 영예군인이 될번했는걸. 내가 만약 영예군인이라면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있을가요?》

《그건 우리 녀성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림동무가 만약 영예군인이라면 전 기를 써 따라가서라도 동무의 반려자로 될거예요.》

경심이 진심으로 준 대답이였다.

이튿날 그들이 일생을 약속하며 산에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아 두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선아봉 원토장에서부터 흔들레벌 한가운데까지 늘인 삭도선을 따라 흙 가득 실은 쇠바가지가 등기둥등 춤추며 떠오던 날 경심은 땀흘린 보람과 창조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꼈다.

《좋지요. 반장동무?》 성철이가 능글거렸다.

《좋아요!》

경심은 까르륵 웃으며 눈갈린 들판을 달리였다.

햇숨같은 함박눈이 풍년을 예언하듯 평평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문득 세상 떠난 할머니의 옛말이 생각났다.  
《흰쌀을 찢고 찢어 땅에 사는 착한 사람들에게...》

(저 평평 쏘아지는 눈이 몽땅 쌀이었으면...)  
언젠가 들은 농팔의 힐난이 귀가에 살아올린다.  
《물론 공상이야 좋지. 하지만...》

(우린 그 공상을 현실로 펼쳐놓을거예요.)  
우리라고?! ... 우리라?! ... 나와 성철동무를...  
아이참, 내가 무슨... 경심은 황망히 도리를 저었다.

1월, 2월... 강추위와 눈사태에 정력을 만나마 소모하다나니 물길돌림공사를 30프로도 못한채 로력을 떼어 영양단지찍기에 들어가야 했다. 다시금 3월중순... 벼모판씨뿌리기를 시작했다. 몸뻔새없이 련속적으로 들이닥치는 영농공정앞에서 누구보다도 당황한 사람은 성철이었다. 그는 물길공사를 7월 장마전까지 끝낼 가망이 없다고, 그러면 굶이 없는 강물이 마구 범람해 벌판의 포전들을 통채로 삼킬거라며 근심하였다. 호미난방격이 되어 어쩔바를 몰라하던 성철은 이제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강을 본래대로 놔두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의논해왔다.

경심은 눈살이 콧곳해서 쓰아불었다.  
《이렇게 될수도 있었다는걸 예상 못했었어요?》  
《술직이 말해 이럴줄은... 농사일이란 참...》  
《림동문 농장원들에 대한 믿음부터 가져야겠어요. 불가능때문에 서슴거리다가도 필요에 의해 일단 시작낸 일은 몸이 열쪼각 나도 끝내고야마는게 우리 농장원들이예요. 처음부터 그들과 합심할 궁린 안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이라는데...》  
경심은 땅이 풀리자 천년돌격대를 무어가지고 매일 야간전투를 벌렸다.

성철이도 결코 속이 썩한 남자는 아니었다.  
《첫 걸음부터 단단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허허.》

×

송경심은 누구보다도 봄을 사랑하는 처녀였다.  
뽕죽뽕죽 읊트는 벼삭, 푸르러지는 들, 하늘에선 종달새가 노래하고 트락트르 달리는 전야에선 온갖 꽃이 피어나 향기를 풍기는 향촌... 이 모든 것은 봄에 있기때문이다.

한편 봄은 그한테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했다. 논밭갈이, 씨뿌리기, 모내기... 절기를 다루는 그 순차적인 영농공정들이 그를 쓰러뜨리길라도 할듯 파도식으로 들이닥치고 지나가군하였다. 허다한 일감들이 그의 손을 기다렸고 발길을 재촉했다.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대요.》  
연분홍빛 잠자리수건이 나풀거리는데에선 이런 쟁쟁한 목소리가 종종 울리군했다.  
발이랑으로, 논두렁으로 쿵쿵 뛰어다니는 처녀

의 살결은 벌에 타고 벌바람에 끄슬려 가뒀해졌고 그 다정다감한 빛이 언제나 남실거리던 반달눈엔 피발이 다 생겼다.

하루는 읍에 들어갔던 성철이 채양넓은 태양도와 색안경을 사갖고와 경심이앞에 내놓았다.

《쓰십시오. 미를 아낄줄도 알아야지요.》  
《고맙긴 한데 전 이런걸 좋아 안해요.》  
경심은 듣기 좋게 거절하였다.  
성의를 무시당한 성철은 멋지게 웃었다.  
《아직도 전번 일이 속에 맺혀있는게 아닙니까?》  
쑥 내려가도록 침을 한대 뉘줄가요?》

《천만에요. 물분해되어 흘러나간게 언젠데요.》  
물론 통담이었다. 하지만 통담속엔 진담이 어려있는 법이다. ...

오늘은 그 말썽거리 《사막틀이》에 강녕이과종을 하는 날이다.

《자, 나가자-》  
여기서 소리치면 저기서 기꺼이 맞받아웨친다.  
《나간다아-》  
한 사람이 한 이랑씩 말아잡고 웃고 떠들면서와짜닥 일손을 돌려나간다. 처음 발머리를 출발할 때는 일직선이던 횡렬이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각선으로 변하는가싶더니 어느새 날개짓는 갈매기모양으로 달라진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는 일꾼들속에서 송경심반장의 일숨씨가 그중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는 생김새 그대로 동작이 아주 유연하고 재빨랐다. 호미자루를 감아쥔 손이 허공에서 가벼이 반원을 그리자 가름한 쇠날이 경쾌한 음향을 내며 이랑흙을 움푹 파제긴다. 기다렸다는듯 다랑치안에 들어갔던 왼쪽손이 살짝 나오며 오그렸던 줍을 펴자 도글도글 영근 샛노란 강녕이알들이 다그록 떨어져내린다. 그의 길고 날씬한 다리가 일정한 보폭으로 내짚어지며 오이씨같은 발을 감각적으로 끝자 발모서리에 밀린 흙바미 구멍속에 떨어진 강녕알을 알맞춤이 덮는다. 갈매기형의 머리부위를 차지했던 경심은 맞은편 발머리에 다달으자 숨 한번 돌림없이 맨 꼬리를 차지한 성철의 이랑을 맞잡아축냈다.

성철은 엉치가 하늘로 치솟도록 기다만 허리를 짓속인채 엉기적거리는데 종자다랑치가 두다리새에서 흔들거린다. 동작은 별로 굵뜨지 않았는데 종자가 랑비되는게 아깝다고 구멍안에 한알 두알 정확히 세여넣다나니 남보다 뒤떨어졌다. 하긴 농사가 처음인 그가 어떻게 손이 재봉침같은 녀인들을 당하랴...

《아무래두 반장이 립선생을 영원히 말아야겠수다. 흐흐.》, 《춘향이 리도령 마중간다아-》  
누가 이래서 웃음통이 왁자르르 터졌다.  
그제서야 경심이가 마중나오는걸 안 성철은 미

안해하였다.

《이거 정말 신세를 어떻게 갚는다...》

아낙네들은 그 값으로 재미나는 이야기나 한마디 하라며 떠들었다. 사실 남자한테 종자다랑치를 채워 밭이랑에 들어세운 그 자체부터를 죄스러워하는 녀인들이다. 옆에 서서 아무렇게나 몇마디 번지며 일동무만 해줘도 감사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좀 쉬우기도 할겸...

《붕이 김선달이가 말입니다.》

옛날 평양에서 세상 유식하다고 뽑내던 어떤자를 골탕먹인 이야기인데 제법 귀맛을 돋군다.

...

<나리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무엇이옵니까?>

김선달이 이렇게 묻자 나으리는 단마디명창으로 대답한다.

<그거야 쌀이지.>

<아니올시다.>

<그럼 황금과 보석이라는건가? 그겠도 먹은 다유에 필요한걸세.>

<금과 보석도 아니올시다.>

《에그, 김선달인지 김앉은달인지 하는게 <나리>보다도 모르누만요.》

입빠른 앵두집머느리가 쏙딱 나선다. 누군가의 호미끄트머리가 그의 넘적한 등을 슬쩍 찌른다.

<바로 이거올시다.>

김선달은 이파리가 길고 깔깔한 풀을 한줌 내놓는다.

《오호라, 산삼이었구만요.》

《아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보십시오.》

성철은 아낙네들한테 이야기를 통채로 꺼내넘긴다.

경심은 그의 능청스러운 모습을 훑쳐보며 혼자 웃었다. 저렇게 또 옛말을 기름기들도록 엮어대는건 처음 본다.

(그 똑쟁이 분조장아바이가 훌쩍 녹을만도 해.)

경심은 첫날 성철을 1분조에 배속시킨것은 본인이 키큰 분조장을 요구하기도 했거니와 기본은 싱겁동해보이는 그가 일욕심많고 손탁센 랑기력한데 들어가야 농사도 생활도 옹게 배울것이라는 속생각에서였다. 현대 결과는 꺼꾸로 되어 그 꺾두룩한 분조장은 《림선생...》으로 성철을 깎듯이 존대하며 분조운영을 통채로 내맡기다싶이한다.

따르릉-

자전거종소리가 일터의 흥취를 깨치였다.

농팔부위원장이 《사막틀이》에 나타났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참.》

기가 막히여 혀를 차던 농팔은 경심을 불러세웠다. 대뜸 어성을 높였다.

《동문 농사군이요, 아니면 들놀이 나온 사람이요? 귀한 종곡을 이런 모래땅에 묻어버리고 어찌 자는거요?》

《왜 버린다고만 생각합니까? 싹트고 자라면 알찬 열매를 맺을텐데...》

《허- 동화적이로군.》

《난 우리 생활의 전부를 하나의 동화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는 줄기찬 투쟁속에서 우리는 나날이 새로운 행복을 마련해가지 않나요. 그 행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는 흙갈이도 하고 물길공사도 하고있어요.》

《흙갈이나 했다고 가물을 이겨낼것 같소? 저웃쪽 꺾임목은 사방 파헤쳐났으니 빨리 정리작업을 해야지 장마가 지면 이 달래벌이 물속에 잠길수 있소.》

《그건 넘려마십시오. 대책을 세웠으니까요.》

성철이가 끼여들며 경심을 옹호했다.

그러자 농팔의 미간에서 갈매기가 뿔뿔 날아올랐다.

《동문 농장원으로 현실체험을 내려왔으면 농장원답게 시키는 일이나 착실히 할것이지말이야 무슨 자꾸...》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인 농장원이 그 쌀독을 채워가는 일을 놓고 누가 시킨다고 하고 안시킨다고 안하고 하겠습니까.》

모욕감을 누르며 저력있게 대꾸하는 성철이다.

그의 배허벅밑에서 데롱거리는 종자다랑치를 건너다보는 농팔의 눈에 알곶은 색조가 비끼었다.

《긴장한 식량문제를 어쩔다며 돌피알까지 따들이던 사람갈질 않군. 여하튼간에 여긴 비경지니 팔이나 메밀을 심소.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도록.》

《주식작물인 강냉이를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군에겐 일기변동과 나쁜 땅이 관계없이 않습니다.》

《원참, 소밭통같은 고집이로군.》

농팔부위원장은 입을 쓰겁게 다시고만다. 성철이네의 주장을 도저히 꺾을수 없음을 깨달았던지 아니면 좀더 도수를 높였다간 젊은이들한테서 현대관료주의자란 비판을 받을것 같아서였던지 그는 《어쨌든 일이 잘못되는 경우 랑비된 종곡에 대해선 책임을 지라.》며 오금을 박고 인츰 자리를 떴다.

따르릉...

그 어떤 운명의 예고인듯 자전거종소리가 귀따깝게 울리였다.

그 순간 경심이와 성철의 눈길이 마주쳤다.

(어떻게 하잡니까?)

(어떻게 하긴요. 일단 시작됐던 일이야 끝까지

해야지요.)

경심이 먼저 일하던곳으로 총총히 들어갔다.

성철이도 뒤따라 들어섰다.

강냉이심기는 다시금 진행되었다.

너인들은 아까 그 풀이 무슨 풀이냐고 마저 대달라며 즐겼다.

《벼포기였습니다. 그걸 내놓으며 김선달은 <나으리, 이게 바로 쌀 조상이올시다. 그러니 이게 쌀보다도 중하지요.>하고 한फल 먹였습니다. 알곡도 기실은 곡식에서 나오는것이니 아주머님네들-우리 심고 가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지요?》

이야기를 끝내며 완만한 동작으로 호미질을 해나가는 성철의 자세와 표정은 제집 텃밭에 앉아 제 좋아하는 곡식을 심는 시골로인처럼 편안하고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경심은 성철의 옆이랑은 타고나가며 그가 말하는 정신에 놓치군하는 빈구석을 남모르게 살짝살짝 뒤겨둬해주었다. 성철의 티실티실 트고 꺼멓게 탄 얼굴이며 호미날에 찍혀 천을 감싼 손가락이 경심의 눈썹리를 아프게 찔렀다.

×

새각시마냥 얌전히 찾아들어 조심스레 새싹을 움티우던 봄은 5월에 들어서자 열광적인 애무로써 이 땅을 살찌웠다. 밀보리가 파릇파릇 돌아나던게 엇그제같은데 어느새 농장벌엔 벼모 윽기는 철이 닥쳐왔다.

…오늘도 모를 내는 논판에서는 대오의 선두기인양 분홍색 잠자리수건이 나뭇기고있었다.

송경심은 팔에 지그시 힘을 주며 모내는 기계를 운전해나갔다. 앞을 겨냥하며 방향을 잡다가는 이따금 고개를 젖히고 청제비 날아에는 푸른 하늘을 살며시 바라보기도 하는 곱살한 얼굴에선 희열의 미소가 생긋 피어난다. 그 미소는 이따금 진중한 표정으로 변하여 이미 해놓은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려본다.

한두해전까지만 해도 경심은 농사일을 단순히 나라의 쌀독을 채워가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인식이 달라졌다. 원수들은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으로 사회주의 내 나라를 말살하려고 한다. 경제… 그중에서도 먹는 문제는 가장 초미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농사를 잘 지어 올해에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는데 크게 기여하자. 이런 숭엄한 감정과 굳은 결심을 안고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마음속으로 웨치며 풍요한 가을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는 그였다.

옆배미에선 림성철이 소로 판대기씨레를 치고 있었다.

살찐 황소를 이리저리 능숙하니 몰아가면서 바닥매를 고루는데 그 숨씨가 실농군 찹쌀떡을 정도다. 무거운 씨레를 형그러이 들었다왔다 조절하는 울룩불룩 근육살 뻗친 팔뚝이며 굵은 다리통 그리고 넓적한 잔등에서는 청춘의 혈기가 왕성히 흐른다. 하면서도 이따금 부하가 걸릴 때면 어딘가 말쑥하는 몸놀림이다.

성철은 경심이와 눈이 마주칠 때면 손시늉으로 자기가 쓰고있는 채양모를 가리켰다.

경심은 웃으며 살살 도리를 젖는다.

《넌장, 자존심두… 생긴 값을 한다니까.》

성철은 입안소리로 투덜거리며 애매한 씨레만 들었다왔다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시가 울리고있었다.

봄을 사랑하는 처녀는 하늘의 종달새  
처녀를 사랑하는 총각은 땅우의 황소

누렁황소가 주인의 애끓는 마음의 메아리를 느낀듯 읊머- 구울진 영각을 지른다.

경심이 논머리에 이르러 기계를 돌릴 때였다.

농팔부위원장이 털썩거리며 나타났다.

《반원들을 한곳에 인차 모이도록 하시오.》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긴가보다 예감하며 기계에서 내린 경심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모내기과 관련한 기술상식침투제강을 띄여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공해졌다.

농팔은 찍하면 분조장이상 초급일꾼들이나 농장원들을 모여놓고 회의하기를 좋아한다. 출석까지 그어가며 빠짐없이 둘러앉히고 장황히 력설을 늘어댄다.

《에- 다들 알다싶이 올해 농사를 잘 짓자면…》

《다들 알다싶이…》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청중들이 이미 알고있다는걸 안다는 소리인것이다. 한다면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뭐란말인가?

쓸데없이 랑비되는 술한 로력과 아까운 시간들…

경심이 그때문에 서슴거리는데 오가는 말을 들은 성철이 그들한테로 다가왔다.

《제가 매 분조마다 다니며 하겠습니다.》

《참, 동문 대학졸업생이지.》

농팔은 반기는 태도였다. 《사막들이》에 펼쳐진 옥도와 강냉이 초기작황(아주 좋음)을 보면서 또 오직 알곡증산에 청춘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경심이네의 투쟁모습을 목격하면서 뭔가 감득되는바가 있었던지 그들을 대하는 투가 전갈지 않았다.

성철은 실참마다 이웃분조로 떠나군했다. 일 시작할무렵이 되어 뛰어오군하는 그의 얼굴엔 땀이 질벽하였다.



오후 휴식참이다.

경심은 분조들의 벼모뜨기정형을 알아보느라 들길을 걷고있었다. 밭머리를 지나느라니 기분이 더없이 상쾌해진다. 모내기전에 옮겨심은 어린 강냉이들이 어느덧 뿌리않이를 끝내고 땅살이 한껏 울랐다. 제법 기름기 도는 이파리를 실바람에 하느적이며 애교를 부린다. 《날 좀 안아주고 가세요!》

(모내기나 끝내고 보자.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구나!)

경심이 수로를 건너 최쪽에 올라설 때였다.

감흥에 뜬 남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요것들이 참, 빨리두 크는데. 그래 뭘 먹구싶냐?》

너머편 《사막틀이》 이랑머리에 림성철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줄안에는 어린 강냉이포기가 안기여 한드작 한드작 어리광을 부린다. 그 소담한 곡식포기는 풀물이 들고 흙냄새가 났 작업복차림으로 발속에 들어앉은 청년한테 놀라울 정도로 어울렸다. 저녁해의 불그레한 빛살은 밭머리수로에서 반사되어흐르면서 파아란 강냉이 이파리와 보위색옷자락 그리고 듬직한 어깨우의 반고수머리카락을 감돌며 어리광치는데 그 칠색령롱한 후광에 휩싸인 성철의 모습은 경심의 마음을 야릇하니 흔들었다.

언젠가 성철은 서른한살의 총각인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앞에서 반롱조로 말했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상을 한명 선정해주십시오. 현실체험 내려왔던 기념으로 이곳에 처가집을 완전히 맡가두고 갈 생각입니다.》

《농사짓는 처녀라두 일없수?》

《농사군처녀가 어째서요. 천하지대본의 주인인데… 나이는 스물일여덟쯤 되고 분조장이나 작업반장같은 초급일군을 하는…》

《그런 처녀 오봉리에 경심반장밖엔 없는데 혹시 그를 맘에 둔게 아니우?》

량기력분조장이 그 일을 전하며 넋지시 중뜨었을 때 경심은 깔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가 오봉리사람만 되란다고 하세요.》

그렇게 될수가 없었기때문이다. 성철은 이제 현실체험이 끝나면 대학으로, 그다음엔 새 배치지로 가야 될 몸이다. 영원히 고향마을에서 살아갈 결심을 안은 경심이한테는 사람보다도 그것이 선차적문제였던것이다.

인기척을 느낀 성철이 강냉이포기의 떨어져 일어났다. 자기를 지켜보는 경심을 본 그는 당황해하였다. 경심의 봉싷 솟은 가슴아래로 매력있게 흘러내린 잘쭉한 허리며 미출하니 다듬어진 아래도리를 스치던 그의 눈길이 초점을 잃고 허둥거렸다.

《제가 이거… 자유주의를 자꾸 하는게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설참에 쉬지도 못하게 분조별 기술학습까지 맡겨서 정말 안됐어요. 주인집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식사도 제대로 안하고 잠잘 땐 앓음소릴 세계 낸다던데 본인이 건강에 주의하세요.》

성철이와 헤어져 최쪽길을 걷는 경심의 마음은 왜서인지 싱숭생숭해졌다.

그는 추억속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때요, 할머니? 이자 그 사람이 꽤 달속의 아빠토끼가 될것 같아요?)

《그건 네가 기준점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달려있단다.》

(저의 기준점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현시대의 진짜배기 주인인… 그런 남자만이 나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될거예요.)

《여하튼 서둘러라, 애야. 호박은 늙을수록 맛이 있어도 처녀는…》

(할머니두 참…)

경심은 순간이나마 온갖 시름에서 해탈되어 있을수 없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으는 동화속의 무릉도원을 거닐었다.

성철이가 꺾임돌이의 공사장에 나가 매일 야간작업을 한다는걸 경심이 안것은 며칠후였다. 그 《개인영웅주의》에 대해 따끔히 충고를 줘야겠다고 은근히 버르던 중인데 성철이 덜컥 앓아누웠다. 너무도 몸을 혹사시켰던것이다.

경심은 죄의식을 금할수 없었다. 본토배기인 자기들이 주인구실을 쓰게 못하여 한해 잠깐 와있다 갈 사람한테 이것저것 부담을 주고 고생만 시켰다는 자책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경심은 성철의 병문안을 갔다.

숙소집 대문을 넘어서는데 머리우에서 가름대의 방울이 딸라랑… 울렸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집 차단봉이 앞을 막았다.

딸라랑, 딸랑… 방울소리는 묻는다.

<출입리유는?>

손에 든 닭알꾸레미가 통과중이 됐는지 아니면 마음속의 호소가 감동을 시켰는지 그 《차단봉》은 서서히 들리웠다.

이불속에 누워있던 성철은 경심이가 들어서자 침대 안벽에 붙였던 종이장을 당황히 뜯어내리다가 실수하여 흘렸다.

연필로 속사한 그림이었다. 모내는 기계를 몰아나가는 처녀-잠자리수건, 반달눈, 잘쭉한 허리…

사진속의 자기를 보듯하여 경심은 귀밀이 빨개졌다. 방안은 발 옮겨짚을 자리도 없었다. 《작물학》, 《비료학》, 《토양학》, 《농기계편람》 등

의 기술서적들, 각종 모양의 유리그릇들, 벼라별 기계부속들...

침대머리맡에는 고열로 신음하는 속에서도 그리고 지우고 하던 축력식김매는 기계도면이 널려 있었다.

밖에 나와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지어는 병석에 누워서도 농업생산을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은 경심의 심정을 아릿하니 적시였다.

...경심은 대문 방울의 경쾌한 음향을 안고 속소집을 나섰다.

샘골 벼들방천쪽에서 누군가의 건드러진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을 그리는 청년은 땅우의 프락퐁  
청년을 그리는 처녀는 하늘의 뽕꼭새

훈훈한 밤바람에 능수버들이 춤을 춘다.

봄, 열정의 봄!

황금가을을 안아온 희망의 계절...

6월 7월... 물바게쓰를 이고지고 힘겨이 달리며 왕가물과의 투쟁을 벌릴 때도 그리고 삼복철의 폭양아래서 키넉게 자란 강냉이밭속을 헤가르며 비료주기를 할 때도 또한 전투장에서 일하고 자고하며 장마전으로 물길돌림공사를 끝낼 때도 경심은 곁에 성철이가 있음으로 하여 힘든줄을 몰랐고 마냥 즐거움에 넘쳐 작업반사업을 밀고나갔다.

그러던 8월 초순...

×

림성철을 소환하는 지령이 내려갔다.

아무때건 그는 자기네 마을을 떠나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있는 경심이었으나 정작 그 순간이 닥쳐오자 속이 철렁해졌다. 비로소 성철이라는 인간이 자기 가슴속에 어느새 안겨들어 뽑아내기 힘들 정도가 되었음을 깨닫고는 안타까운 한숨만 남모르게 쉬었다.

경심은 언젠가 성철이 자기 방에 가져다 걸어준 그 채양모를 벗겨 쓰고다녔다. 마지막으로나마 그의 성의를 받아주고싶어서였다.

성철이가 떠나게 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채찍같은 비가 온종일 쏟아졌다.

레년에 없는 큰물에 대한 비상경보가 방송에서도 알리고 전화로도 알려왔다.

성철의 일로 하여 마음이 허전해지고 생각이 어수선했던 경심은 할바를 잊고 작업반실에 멎혀들어박혀있다가 중낮무렵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서야 편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황망히 앞벌로 뛰쳐나갔다...

농장원들과 함께 밭머리둘레로 물빼기도랑을 쳐나가던 경심은 《사막틀이》의 어느 한곳에 이

르려 못박혀버렸다. 모내기철의 언젠가 림성철이 어린 강냉이를 어루쓸며 속삭이던 곳이었다.

경심은 그때의 그 강냉이일지도 모를 개꼬리가 노릿하니 꽤고 이삭수염이 맺힌 곡식포기를 매만지며 한동안 움직일줄을 몰랐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햇강냉이맛을 보련만...

성철은 합수목제방에다 소달구지로 돌을 실어 다부리고있었다.

비에 화락하니 젖은 맨웃바람이었다.

망작같은 돌을 혼자서 힘겹게 들어옮기는 그를 젖어드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경심은 종종히 다가가 일손을 도왔다.

《고마워요, 림동무!》

《허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응당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막돌로 보호뚝을 쌓고난 그들은 뚝막에 들어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세차지는 비발을 물끄러미 내다보던 경심이 쓸쓸한 어조로 뇌였다.

《이제 가면 다신 안오겠군요. 고향이 도소재지인데다가 또 형님네들도 중앙기관의 중요한 직책에 있으니 아마...》

《...》

막안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버짚나래를 위어썩은 지붕을 때리는 비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리었다. 풀밭 어데선가 불안스레 씨르럭거리는 벌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애달픈 감정을 자아냈다.

막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눈을 슬며시 감고 무슨 상념엔가 잠긴듯하던 성철이 문득 침묵을 깨치었다.

《어쨌든간에 전 농업전선에서 일생을 보낼 결심입니다.》

《...》

《식량! ... 난 이것을 오늘의 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내 조국을 지키는 총포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총포알>을 마련하는 농업이상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

경심은 감동하여 애뒤틀린 미소를 보냈다. 옳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전쟁때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갔듯이 오늘 날 손에 쟁기를 쥐고 논밭에 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할줄 아는 공민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어요.

《허허. 이거 우리가 마치 영원한 리별이라든 하는 사람들처럼 심각해졌군요. 반장동무가 땅과 곡식을 사랑하듯이 나도 그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겁니다. 참, 그때 또 소금을 쳐주겠다고 그러진 않겠지요? 하하.》

《아이참, 무슨 ...》



성철의 가벼운 툭으로 분위기가 일변되었다.  
경심은 꺼죽꺼죽 웃는 그를 곱게 할겨보았다.  
《하긴 동문 소금을 또 쳐야겠어요. 그러니 꼭 다시 오세요. 오지 않으면 제가 소금자루를 지고 찾아갈줄 아세요. 호호.》

경심은 그와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서 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생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다른곳의 일들이 걱정되어 할수없이 일어났다.

자기의 파란 비옷을 벗어 성철이앞에 내놓았다.

《입고 일하세요. 그러단 감기 들겠어요.》

그는 비속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무래도 가야 될 사람인데 웃으며 보내자. 우리 마을에 와서 그간 많은 수골 했는데 송별상이라도 따듯이 차려주자고.

이 분조 저 분조를 다니며 피해방지를 지휘하던 경심은 저녁무렵 기진한 몸을 가까스로 움직여 작업반실로 들어왔다.

뜻밖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림성철이 무너져내리는 제방돌에 몸을 다치여 리진료소로 업혀간것이다.

경심은 가슴이 철렁해졌다.

그 길로 진료소에 달음쳐올라갔다.

성철은 없었다. 상태가 중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옷을 벗겨보니 복부와 하체에 군대때 입었던 상처자리가 험하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영예군인이었수다. 발전소건설장에서 전우들을 구원하고 부상을 당했던 ... 우리가 너무도 림선생을 ...》

성철을 업고왔던 량기택이 울먹이며 한장의 편지를 내주었다.

-경심동무,

인사를 못하고 갑니다. 저한테 많은것을 배워주고 따뜻한 관심을 돌려준 동무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여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향촌의 꽃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림성철은 그렇게 마양마을을 떠나갔다.

그를 꽃수레가 아닌 담가에 실어 떠나보낸 심한 자책과 비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경심은 반원들앞에서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날 경심은 진료소들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농팔부위원장을 만났었다.

대학으로 올라간 성철이한테서는 그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가 없어진 다음에야 경심은 자기가 얼마나 큰 그의 후원속에서 사업했는가를 그리고 마을 곳곳에 특히는 자기의 심장에 남겨진 그의 자욱이 얼마나 진한것인가를 절감하였다.

달 밝은 어느날 밤 풍작이룬 곡식밭머리를 걷던 경심은 동기동기 헤엄쳐가는 황금빛 달속에서 빙그레 웃고있는 림성철을 보았다.

성철은 절구공이를 들고 어서 와 쌀방아를 찧자며 자기를 손저어 부르지 않는가!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경심은 폭포쳐드는 그리움을 건잡지 못해 팔뚝같은 이삭들에 몸을 실으며 어깨를 들먹였다.

《할머니- 전 아빠토끼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는 갔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기전에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떠나간 련인을 다시 붙들어올 힘이 그한테는 없었다.

손녀의 행복을 바라던 할머니도 그 일만은 할수 없었다.

처녀는 때늦은 애정을 곡식포기에 그대로 쏟아부으며 풍요한 가을을 향해 일해나갔다.

×

년로보장으로 넘어간 관리위원장대신 새 관리위원장이 임명되어왔다.

군당책임비서가 그를 승용차에 태우고 내려와 부임인사를 시켰다.

연미색 체킨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새 관리위원장이 들어섰을 때 장내에는 탄성의 물결이 일렁이였다.

《림선생!- 아니, 이런...》

량기택분조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는 바람에 회의실이 떠나갈듯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송경심반장은 모임이 언제 끝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관리위원회마당을 벗어났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놀라움속에 환희속에 줄곧 마음이 등 떠 날알 향기 넘치는 들판을 걷고 또 걷다가 작업반실에 들어오니 하늘에서 내려온듯 림성철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그간 잘 있었소, 반장동무!》

《오셨군요! ...》

《경심동무가 소금자루를 지고 힘들게 찾아올가봐 제가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욕하지 않겠지요?》

《!...》

그날밤 경심은 꿈에서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달속에서 행복의 방아를 찧고있는 자기들을 축복해주고있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새해결의

## 먼 후날에도 부끄럽지 않게...

새해 첫아침에 저는 창작의 붓을 들기 앞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명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고 또 외워봅니다.

《인간은 자기를 알면 강해지고 자기를 모르면 약해진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된다.》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자기 집에 있는 쇠덩어리가 낫다.》

얼마나 깊은 뜻이 새겨져있는 귀중한 명언들입니까!

저는 주체사상의 철리를 담고있는 이 생활의 좌우명에 기초하여 새해에는 중편동화 《큰 장수》를 창작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대문을 열어줄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큰 장수는 과연 누구일가? 그 장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찾아낼수 있을까?

중편동화에 나오는 세 아이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뜨거운 불언덕도 넘고 사나운 물바다도 건너야 합니다. 세상살이 쓴맛단맛을 다 맛보며 세 아이가 걷는 인생길에는 배신과 죽음도 있습니다. 깨끗한 랑심과 억센 신념을 지닌 나의

주인공은 부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끝내 자기 손으로 자기 행복을 찾고야합니다.

제가 펼쳐보일 흥미진진한 동화세계가 어린 독자들의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키게 되겠는지...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대를 이어 나가는 우리 후대들이 제가 쓴 중편동화를 영원한 길동무로 삼아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작품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동화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작기량이 너무나도 어린 저로서는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부족되는 공간을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탐구로 메꾸어나감으로써 세상에 떳떳이 내놓을수 있는 명작의 높이에 기어이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새해 첫 진군길에 오른 조국과 더불어 뜻깊은 올해를 저의 창작생활에서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보람찬 한해로 되게 하렵니다.

먼 후날에도 부끄럽지 않게...

아동문학작가 **김청일**

## 위력한 무기가 되게!

조국은 또 한해 새해의 언덕에 올라섰다.

생각만 해도 가슴벅차고 그러만 봐도 행복에 겨운 우리가 살게 될 새 세기가 저앞에 바라보인다.

이 땅우에 통일조국이 일떠서고 강성대국으로 빛나오를 조국의 위상이 펼쳐진다.

희망찬 래일을 눈앞에 바라보는 이 력사의 전환기에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 대답은 명백한것이다.

우리 조국을 빛내주시며 세계혁명을 향도하시는 21세기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

성을 더 높이 구가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새해진군길에 나선 지금 나의 결심도 새로와졌다.

내가 쓰는 한편한편의 시가들에 **김정일**송배사상, **김정일**옹위정신이 짙 들어차게 하여 그 시가들이 그대로 몇개 군단을 대신할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한 무기가 되게 하리라.

주체87년의 희망찬 노을빛에 붓을 물들이며 새로운 작품창작구상으로 회월에 넘쳐있는 우리 작가들의 심정은 누구나 한결같이리라곤 본다.

시인 **김석천**

## 위대한 역사적사변의 목격자, 증견자, 체험자의 영예를 지니고 주체문학건설을 힘있게 선도하겠습니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옵니다. 21세기가 비껴오는 때에 맞는 려명입니다. 이해를 맞는 감격이 류다 른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을 따라 남해의 한끝 까지, 동에서 서에로 온 조국강산을 뒤흔든 지난 10월의 영광의 환호가 아직도 귀전에 메아리칩니다.

그럴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21세기는 **김정일**세 기라고 그리도 기쁘시여 하시던 말씀이 다시금 뇌리에 깊이 새겨집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역사적사변의 목격자, 증견자, 체험자로 사는 궁지와 영광이 가슴벅차게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평론가로서 당사상전선의 한 초소를 굳건히 지키려는 결심은 새해를 맞으며 더욱 굳어만집니다.

올해에 저는 기어이 《주체문학전서》(9권) 편찬사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평론가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과업입니다. 편찬사업이 마감고비에 들어섰으므로 《고난의 행군》을 벌리던 때의 그 열정, 그 기세를 계속 앙양시켜나간다면 책의 완성은 확정적입니다. 책은 풍부한 사료와 심오한 일반화, 논리정연한 설득력으로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의 진수, 문학창작에 대한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인식시키는데 일

정한 기여를 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로 골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평론가들앞에는 참으로 무거운 과제가 제기되고있습니다.

저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공격과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는 전위투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도 우리 문학부문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회깊은 추억과 가슴벅찬 희망을 안고 뜻깊은 올해의 새 전투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창조되겠습니까. 시련의 풍파를 헤치고 승리의 언덕들을 쉬임없이 넘어갈 이 미더운 시대의 주인공들을 빛나게 형상하자면 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저는 창작실천에 깊이 침투하여 작가의 창작심리와 작품의 생리에 정통한 평론, 창작의 주제방향과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그어주는 평론을 기동성있게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을 힘있게 선도하고 아울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장군님밖에 모르는 열렬한 충신으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평론가 정룡진

## 현실속에서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조국강산에 밝아온 희망찬 새해 주체87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끝없는 환희와 격정을 안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이다.

우리 인민이 밝은 미래를 더욱 확신하며 21세기의 문어구에 또 한걸음 들어선 이해는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역시 생각이 많아진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후회가 많다. 그중에서도 가책되는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만한 시대적명작을 내놓지 못한것이다. 쓰겠노라고 했고 쓰느라고 했지만 써내지 못했다.

새해에는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롭게 분발하겠다. 지금 진행하고있는 조국기행의 길을 더 용기백배하여 이어나가겠다. 현실속으로 찾아들어가 더 많은 인간들을 만나자! 이것이 새해의 결의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새 세기를 향해 힘차게 진군해가는 우리 조국의 숨결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땀내나는 생활속에 몸을 잠그겠다. 창작의 무한한 원천인 생활속에서 노동하는 인간들, 성실한 로동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기며 고난도 역경도 웃으며 헤쳐가는 진실한 인간들을 보겠다. 새해에 나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장편문학기행을 끝내야 한다. 나는 현실속에서 우리 당을 변함없이 따르고 받드는 충신의 전형,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들을 찾아내어 우리 문학의 화원을 빛내이는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내가 만났던 훌륭한 인간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더 많다. 나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낀다. 내가 피우는 한송이 꽃을 더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우기 위하여, 그 한송이 꽃에 내 나라의 모습이 비껴게 하기 위하여 멀고먼 기행의 길에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겠다.

소설가 최성진

## 거울같이 산 이름들

최영화

내 주작봉마루에 올라  
못잇을 투사들의 이름을 되새겨보노니  
살아 불리운 세월보다  
가서 불리운 그 세월이 더 긴 이름들

백두산에서 싸우다 백두산에서 갔기에  
그 세월엔 아는지 많지 않았어도  
오늘은 인민이 다 부르는 이름들이다  
래일도 한창 피던 그 나이로 살 이름들이다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

모진 풍상고초 다 겪었어도  
티 한점 묻지 않은 이들의 신념과 량심을  
우리 장군님 여기에  
세상 제일 큰 금별로 빛내주시었으니

찾는이의 마음에 별같이 빛나는 이름들이여  
보는이의 마음에 거울같이 산 이름들이여  
수령앞에 하도 깨끗했던 그 신념 그 량심에는  
허구한 세월도 흐른 흔적을 남기지 않아  
오늘도 그 꽃나리로 영생하는 아, 그 이름들이여

## 마지막한발

박호범

조국이 나를 불러  
한밤중에라도 나를 불러  
홀로 적진을 뚫고나아가라면  
나는 서슴없이 떠나가리라  
탄창에 가득 총탄을 채워가지고

생사의 판가리  
다시는 돌아올 길이 막혀  
피값을 받아낸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  
나는 세찬 불을 뿜으리라  
마지막 한발만은 남겨두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길게도 살고  
짧게도 살지만

그 마지막순간이  
그 사람으로 남나니  
  
남겨두었던  
그 마지막 한발의 총성이  
이름모를 적구의 산밭에서  
전사! 나를 향해  
높이 울리거던

어머니조국이여  
이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달라  
고향의 언덕에서 나를 부르던 그때처럼  
아들은 몸은 가면서  
인간의 지조 그것만은 남겨두고 갔다고

## 인생과 신념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에 대하여-

정순희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에게 사상정신적양식을 더해주면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전 조선인민군 중군기자였던 리인모의 특이한 인생체험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란 무엇이며 그 가치가 무엇에 의하여 지켜지고 빛나게 되는가에 대하여 절절히 꿰치고있다.

전 조선인민군 중군기자였던 리인모는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자라나던 해방전 청소년시절과 해방후 공화국의 품속에서의 보람찬 생활,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어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에서 치른 34년간의 옥고, 출옥후의 생활 그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송환되어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최상의 영광을 지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과정을 통하여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은 신념이며 그 신념을 변함없이 지킬 때 인간은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고 위대한 힘을 지닌 존재로 된다는것을 시대와 력사 앞에 떼떳이 자랑하고있다.

장편회상록은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신념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신념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투쟁할 때 그 어떤 고통과 역경과 난국도 다 이겨낼수 있다는 삶의 철리를 그의 남다른 인생행로와 인간최악의 옥고체험을 통해 비장한 목소리로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장편회상록은 리인모의 자서전적행로를 따라 전개되고있는데 여기서는 다만 리인모의 혁명적신념의 형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만 서술하려고 한다.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무엇보다도 리인모의 혁명적신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의 녀에, 심장속에 역세계 뿌리내렸는가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리인모는 주체6(1917)년 8월 24일현재 김형권군 미감리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화전을 두지며 근근히 연명해가던 홀어머니품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하던중 좌익사건에 관여한탓으로 풍산에 내려와 교편을 잡고있던 외삼촌의 영향밑에 성장하였다.

그가 청소년시절부터 항일의지를 지니게 된것은 두가지 력사적사실을 직접 목격체험한것과 관련된다.

그 하나는 주체19년 8월 파발리에 나타난 백두산무장부대가 일제의 악질경찰인 《오빠시》놈을 처단하는 광경을 목격한것이다. 조선인민을 못살게구는 왜놈들을 쏘아눕힌 파발리 총소리는 그가 항일전선에 나서게 한 운명의 총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주체26(1937)년 6월 5일 아침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보천보전투소식을 접한것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천보를 치셨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직접 연설하셨는데 왜놈들이 인차 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고 하셨다!》는 보천보전투소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파발리의 총소리가 그의 어린 가슴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놓았다면 보천보의 총소리는 청년이 된 그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리인모에게 있어서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조선민족의 힘의 상징이였고 꺾이지 않는 녀의 상징이였으며 강철같은 의지의 상징이였다. 또한 그의 믿음이였고 신념이기도 하였다.

특히 리인모는 주체 26(1937)년 7월중순의 어느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만나 뵈고 그이로부터 조국광복회창립소식과 **김일성** 장군님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내용을 알게 되였으며 그해 9월경 황수원언제공사장에 나오신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고 장군님으로부터 광복된 조국의 래일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였다.

당시으로써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이신 줄 미처 알아뵈지 못하였다. 해방후에야 비로소 그때 만나뵈운분들이 꿈결에도 호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이심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광복회 회원인 리인모가 투쟁의 지침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안고 서울로, 도교로 뛰여다니면서 투쟁의 불씨를 뿌려나가는 과정에 그의 심장속에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이 뿌리깊이 내리게 되였다.

해방후 5년간의 황금시절은 리인모가 지닌 신념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보람찬 삶의 시절이였



다.

주체34(1945)년 10월 8일 리인모는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주체35(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 영광스러운 도대표로 선출되어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우러러뵈게 되었다. 이때 리인모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모시고 한생을 보람차게 살려는 맹세를 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신념으로 굳어졌다.

로동당이 창립된후 리인모는 풍산군당 선전부장으로, 그후 흥남시당 선전부장으로 일하던 나날에 결혼도 하고 어머니를 모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 그가 결혼식날에 그 많은 노래들가운데서 혁명가요 《적기가》를 불렀다고 하는것은 혁명가로서의 그의 사상정신적일단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한생에서 5년이란 너무도 짧지만 황금시절과 같은 해방후 5년생활이 있었기에 리인모는 차디찬 지리산에서, 교도소와 형무소에서 34년간의 어렵고 간고했던 모진 시련을 이겨낼수 있었으며 그 생활은 리인모의 가슴속에 혁명투쟁은 정당하며 그 5년간의 기쁨과 환희를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땅을 포함한 삼천리 강토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굳건히 세워주었다.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다음으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의 혁명적신념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공고화되는가 하는것을 주로 지리산에서의 투쟁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리인모는 주체39(1950)년 7월 23일 조선인민군 종군기자로 최전선에 나가게 되었다.

주체39(1950)년 9월중순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적아간의 중과부적인 역량차이로 하여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긴박한 정황앞에서 리인모에게는 두갈래의 운명의 길이 놓여있었다. 태백산줄기를 따라 북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남쪽에 남아 유격투쟁을 할것인가.

그도 북상하여 어머니와 안해, 딸 현옥이를 보고싶은 마음 간절하였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전선으로 떠나올 때 그는 어머니와 안해와 동지들에게 《승리의 날 만납시다!》라고 약속했고 중앙당에서 과업을 받을 때도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당앞에 맹세를 남기었다.

승리란 곧 통일이 아닌가. 승리하기전에 어떻게 어머니와 안해와 동지들을 만나고 평양하늘을 뽕뽕이 보랴!

바로 그때문에 그는 누가 보건말건 시키건말건 신념과 량심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6사단 후퇴대렬과 떨어져 혼자서 지리산으로 들어갔던것이다.

장편회상록은 지리산유격대의 연혁이나 력사에 대해서만 쓰지 않고있다. 다만 지리산에서 만났

고 알게 되었으며 함께 싸웠던 동지들에 대하여 이야기할뿐이다.

지리산에서 그는 《경남도당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리인모의 혁명적신념은 지리산에서 동지들의 영웅적투쟁과 그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을 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역세게 다져졌다.

산청군 오부면 떡갈령 중간련락소 책임자였던 홍팔십(그의 아버지가 80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팔십이라고 지음)이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웨치던 그 최후, 《인민들이 언제나 잘사는 북조선과 같은 인민의 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있습니다.》고 웨치며 산청군 시천면 시천장터싸움을 지휘한 《호각부대》(호각을 불며 전투를 지휘한다고 하여 《호각부대》라고 함)장의 전사, 함흥시너맹에서 정치공작대로 싸우다가 입산하여 도너맹문교부장으로 일하던중 마천전투에서 부상당하고 동지들에게 부담만 될것 같다고 하며 수류탄으로 자폭한 신순월, 심한 열병에 걸려 운신조차 힘든 상태에 처해있다가 토벌대놈들이 불지른 산죽밭에서 앙상한 해골로 남은 원산교원대학 로어과 2학년 학생이었던 정치공작원 최정옥이, 포위속에 든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인하다가 막부득이한 정황에서 수류탄을 빼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자폭한 진주군너맹위원장, 변절자의 밀고로 적의 포위속에 들자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자폭한 《카프》작가이며 평양사범대학 강좌장이었던 리동규 선생, 동상을 입은 두발을 마취제없이 자른후 놈들이 환자터에 달려들자 수류탄으로 자폭한 송중명.

이 모든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자폭정신의 목적은 기나긴 옥중생활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겪을 때마다 빈번히 리인모의 눈앞에 생생히 떠올라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의 노력에 보탬을 주었다.

지리산유격대 대오안에서 변절자들이 나타났다를 때 이에 대하여 리인모는 그런자들은 신념을 지니기전에 먼저 간직하여야 할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도 량심도 없는자들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처럼 리인모의 신념은 결코 저절로 역세진것이 아니다. 해방후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이 키운 혁명가들의 산 모범을 직접 목격체험하면서 체득되고 더욱 공고화된것이였다.

그렇게 놓고보면 리인모의 철의 신념은 혁명가들속에서 그들의 투쟁속에서 굳세어진것이지 결코 천성적으로 역세였던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이런 혁명적신념만이 변할수 없고 포악무도한 원쑤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다.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다음으로 신념과 총칼과의 대결, 인간과 야수와의 대결, 정의와 부정의와의 대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결을 34년이라는 옥중투쟁을 통하여 비장하게



서술하고있다.

리인모는 주체41(1952)년 1월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뢰군에게 포로되어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법에도 어긋나게 부당한 판결을 받고 7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썩은 시대기국에 살아진 죄를 뜯어먹어야 하였고 문둥이들이 들어있던 피고름투성이의 감방에 처박히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리인모가 겪은 7년간의 감옥생활이 얼마나 몹서리쳐지고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옥살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리인모의 하늘처럼 푸른 청춘기를 좌절시킨 옥살이는 결코 이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었다.

리인모는 주체48(1959)년 1월 27일 출옥한후 조직의 비밀자금을 대주었다는 구실로 다시 두번째로 체포투옥되어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장편회상록은 리인모의 옥중생활을 통하여 남조선피뢰역도들의 반인민성과 피뢰정권의 반동성, 귀족같은 만행과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자태를 폭로규탄하고 력사에 고발하고있다.

그러면 리인모는 감옥에서 34년간 악귀같은 원쑤놈들과의 싸움을 무엇으로 이겨내었는가.

회상록은 교형리들의 잔인무도한 야만성과 고문방법의 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인 <전향공작법>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들의 지옥의 력사에 또하나의 장을 기록했다. 인류력사는 땅을 빼앗을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수 있고 목숨도 빼앗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넋마저도 빼앗아 사람들을 이처럼 괴롭힐수 있는 방법을 남조선당국자들처럼 완성시킨 악당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것이다.

이 시기처럼 고문의 형태들과 그 이름이 다양해진것은 없었다. 공중에 매달아놓고 그 밑에 불을 피워 그슬리는 찡기스한식불고기고문, 독사들을 가득 넣은 독감방에 수인을 발가벗겨 넣어 괴롭히는 뱀고문, 폭한들을 들이밀어 녀수인을 괴롭히는 성고문 등등... 수백수십가지의 악착한 고문방법들이 바로 이 시기 중앙정보부 남산지하실과 교도소와 형무소들에서 창안된것들이었다.》

그도 인간인것만큼 이런 인간도륙장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오죽하랴.

34년간의 고달픈 옥살이에서 제일 건디기 힘들었던 10년을 대전특별사에 묻어야 했을 때 캄캄한 돌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다리도 못펴고 웅크리고있느라면 그도 사람인데 그만 전향서에 손도장 하나 찍어주고말가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는가.

그 손도장 하나로 우선 밥덩이의 크기가 달라지고 햇빛이 드는 넓은 감방으로 옮겨질수 있으며 감옥문을 나서는 날도 당겨질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당장의 육체적고통에서 벗어나고싶은

본능만큼이나 절박한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따른 초조감이었다.

이러한 인간 리인모를 지켜준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면 그는 우리모두의 인생에 참뜻을 안겨주고 것처럼 억압과 천대속에 지지리 고통받으며 가난에 쪼들려야 했던 우리 인생에 해방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의 날들을 마련하여주시분, 그이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조국 건설을 위해 뛰어다니던 보람찬 나날들을 더듬어보았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안겨준 사랑과 은덕을 저버릴수 없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우리모두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있기에 지리산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골짜기들에서 우리 동지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지 않았던가! 죽어서 변심할수 없고 살아서 배반할수 없는 그 품, 인간의 모든 존엄과 행복과 긍지의 모체인 우리의 장군님께 영원히 참된 전사로 남아있으리라는 그 생각과 신념이 그를 지켜주었다.

감방의 통방을 통하여 들어온 조국의 소식-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 나포소식과 고공정찰기 《이씨-121》의 격추소식, 놈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흥분을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특히 미국이 드디어 사죄문에 수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한테는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이 계시고 조국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이럴 때면 그는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놈들이 우리앞에 떨고있으며 분명 막바지에서 허덕이고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처럼 통방을 통해 들어온 조국의 소식은 그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활력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생명수와 같은것이였다.

장편회상록은 종군기자 리인모가 왜 야수적인 고문만행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전향하지 않았는가 하는 리유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야수들에게는 결코 굴복할수 없다는 사무친 분노, 그것이야말로 극단적인 폭력아래서도 뜻을 꺾지 않았던 리유의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눈을 가리운채 코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눈앞에 떠오르는 안해의 얼굴-그것은 결혼식날 자기의 삶의 자세를 그에게 맹세할 때 남편의 눈을 응시하던 안해의 진지한 얼굴 바로 그것이였다. 장편회상록은 《나는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썼다.

그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찾은 조선로동당원이였다. 공화국국장이 찍혀진 조선인민

군종군기자 파견장을 받고 조국통일의 성전에 나선 그에게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었다.

해종일 다른 사람들과 말 한마디 나누어보지 못한채 10년, 20년, 30년, 인간과 인간들사이의 따뜻한 감정교환이라는것이 어떤것이였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지경의 숨쉬는 화석과 같은 존재, 어제와 오늘이 잘 구분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이제 내가 미치누나》 하는것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를 유일하게 지켜주는분이 계셨거니 그이는 우리 민족의 마음의 기둥인 **김일성**장군님이 시였다.

밤이면 별이 반짝이는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했다. 어린애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듯이 그리며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그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것이였으며 미칠듯한 심신의 고통을 서서히 씻어주는것이기도 하였다.

수령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닌 인간만이 총칼이 란무하는 형국속에서도 비판할줄 모르고 삶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원수들의 총칼보다 역세다.

인간도살장인 옥방에서 한떨기 진달래꽃을 피우며 지은 노래야말로 그 어떤 죽음도 이겨낼수 있는 신념의 노래, 삶의 노래가 아닌가.

참으로 이 신념의 노래는 현대야만들을 전율케 하는 인간의 노래, 불사신의 노래, 승리의 노래였다.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은 다음으로 34년간의 옥살이를 마친 리인모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처럼 뜨거운 인간애와 동포애, 조국통일의 의지에 의하여 남으로부터의 송환이 아니라 탈환되였다는데 대하여 감동깊게 서술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는 출옥후에도 적들의 감시속에서 양로원생활을 하던중 남조선잡지 《말》의 신준영이라는 너기자에 의하여 자기의 수기를 발표하였으며 당시 서부도이첼란드에 있는 어느 교포를 통해 그의 소식은 공화국북반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평양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리인모의 송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었다.

그러나 리인모는 극도로 허약해진데다가 뇌출혈까지 일으켜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김해의 김상원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동포애적성원속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바로 이무렵 리인모는 자기의 한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체험하였다. 주위의 모든것이 그의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뜨리며 끊임없는 타격을 가해오고있었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이 땅의 사회주의를 질식시키려 달려들고있었다.

감옥안에서는 자기 한몸이, 자기 하나의 신념이 교형리들과의 대결에서 지조와 절개를 꿋꿋이 지키는것이였지만 신념과 의지 전체가 제국주의 대적들과의 대결에서 싸워이겨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리인모가 자기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방의 지원도 없이 100만관동군과의 20성상 혈전에서 승리를 이룩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믿음이였다.

6. 25전쟁에서는 세계제국주의연합군을 물리쳤고 《푸에블로》호 사건때에는 거만한 미국의 사죄를 받아낸 공화국의 불패의 힘에 대한 믿음이였다.

특히 무비의 담력과 단호한 결심으로적들의 팔란을 짓부셔버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적들의 경거망동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련이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리라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신것이다.

리인모는 여기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끄떡하지 않을것이라는 더 굳은 신념을 지니게 되었다.

참으로 감옥안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의 기둥으로 되어주시였고 감옥을 나와 남조선사회의 탁류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주시였다.

드디어 주체82(1993)년 3월 19일 리인모는 43년만에 죽음이 강요되고 모진 고문이 가해지는 그 순간에도 잊지 못했고 그것으로 힘을 얻던 조국의 품-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통일의 신념과 의지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였다.

장편회상록은 리인모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안해와 딸을 찾고 가정을 다시 찾는 인간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고 값높고 보람넘친 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회상록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과연 남쪽땅의 감방에서 긴긴세월 옥고를 치르면서 내 언제 어느 한순간이라도 오늘같은 영광이나 인생의 절정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또 이런 영광이 차례지리라고 생각하고 놈들의 갖은 악행과 고문을 이겨내며 <비전향장기수>의 길을 걸었던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원이었기에, 내가 5년간 살아본 우리 제도가 너무 좋았기에 신념을 버릴수 없었고 꺾이울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리인모가 지닌 그 신념이 그토록 귀중하여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상최대의 치료전을

벌리게 하시고 매일 그 치료정형을 보고받으시며 필요한것이 있으면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그를 무조건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리인모는 자기가 소생하고 회복된것이 그 어떤 약이나 의술의 덕이거나 자기 몸에 남아있던 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그의 몸에 소생의 힘을 주고 피와 살로 되었기때문이다.

고엽을 청엽으로, 《죽은자》에게 삶을 주고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되게 해주신 사랑, 그 은덕에 의해 34년간 옥방에서 말라비틀어진 숨쉬는 화석이 갱소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체82(1993)년 4월 15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인모의 침상을 찾으시여 입당당시의 당원증번호로 되어있고 자신께서 직접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시였으며 그림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였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참으로 리인모는 수령복을 지니고 장군복을 지

닌 희세의 행운아였으며 구세주의 산아이며 사랑의 총아였다.

력사에는 신념을 지켜싸운 영웅도 많고 과학자들도 적지 않다는것을 전해주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40여년이란 긴 세월을 인간생지옥에서 투쟁한례는 찾아볼수 없다.

비전향장기수 리인모가 자기의 신념을 불변의 것으로 지닐수 있었던것은 그것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셨기때문이다.

그때문에 세상이 다 아는 인간 리인모로, 세상이 자랑하는 신념의 영웅으로 될수 있었다.

신념은 언제나 그 어떤 영광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영광, 그런 행복은 그 언제나 신념의 강자를 따르는 법이다.

우리 작가들은 리인모가 지닌 강철의 신념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적 신념과 량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모시며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해나가야 한다.

## 달이 웃는 탄전의 밤이여

최영학

석탄을 듬뿍이 캐여낸 기쁨안고  
안전모 번쩍이며 갱밖을 나서는데  
저 보아라  
아득히 솟은 석탄산우에 둥근 달이  
환한 빛을 뿌리며 반겨맞는구나

와- 달려나온 우리네 탄부들  
눈이 시도록 밝은 달 향하여  
안전모 채양을 한껏 제껴올린다  
동발목같은 억센 다리를 벌려디디고  
달보다 더 밝은 웃음을 터뜨린다

바라보면 볼수록 가슴흐뭇한 석탄산의 저 달은  
탄부들이 비쳐보는 손거울인가  
월-월 날으는 구름을 헤치며  
우리를 반기여 웃고만 있는  
석탄산의 둥근 달이여

이런 밤엔 들먹이는 밤 어찌지 못해

달아오른 가슴을 활활 열어젖히고  
달빛이 부서지는 시내물에 침버덩 뛰어들어  
물보라를 일으키고 싶은 이 마음  
석탄산단가리 더 높이높이 쌓으며  
한껏 날아오르고싶은 탄부의 심정이여

캐내고 또 캐낼수록 더 높아만지는 석탄산  
우리네 사랑 검은금아!  
너를 위해 흘린 땀이 적다면  
우리 어이 휘영청 밝은 저 달을 향해  
가슴헤쳐 사나이웃음 터뜨릴수 있으랴

오, 탄으로 조국을 떠받든 탄부의 마음인양  
하늘을 치받든 석탄산우에서  
세상이 환하도록 달이 웃는 밤이여  
허리에 두손을 얹고  
탄부들이 웃는 밤이여  
아, 내 조국이 웃는 밤이여!

# 매혹

로철수

보내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리도 뽕혹합니까?  
 그래 이 사나이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불타는 열정이 그리도 리해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용서하라는겁니까? 평온하던 이 가슴에 사랑의 불길을 지퍼올린 동무의 아름다움을... 아니 오히려 분수없이 행운을 바라는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야지요.  
 나도 강요나 구걸로 될수 없는것이 사랑인줄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열음과도 같은 동무의 편지도 이 가슴속사랑의 불길을 식히기는 고사하고 (물론 첫 순간에는 마음속의 모든것이 줄지에 허물어져내리는듯 허전하였지만)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으니 자존심도 럽치도 잃은 사나이의 진정 못하는 마음의 충동으로 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끄럽겠지요? 하나 이 시끄러움이 나혼자의 탓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동무가 나의 가슴에 이리도 세찬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끄러움도 없었을것입니다.  
 동무는 《제가 어떻게 우연히 만난 동무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차창으로는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흐르고 때로는 벼랑뺨에 웅케도 뿌리박은 진달래꽃송이가 투명한 유리를 스치던 렬차, 그 렬차에서 우리는 만났지요.  
 그때 나는 화학공업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다 4년만에 고향으로 찾아가는 길이였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고향의 모습으로 나는 차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4년전 고향으로 올 때만 하여도 기차와 자동차를 엇바꾸어 타고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로 40리나 걸어야 하던것이 오늘은 렬차를 타고 신선같이 가고있으니 생각은 전부 즐거움과 놀라움뿐이었습니다.  
 사실 대학때 방학이면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보다 어떻게 갈것인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던 고향길이었습니다.  
 강기슭을 따라 곧게 뻗은 철길을 따라 산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벌로 달리던 렬차가 산굽이를 도니 언뜻언뜻 차굴이 지나갔습니다.  
 얼핏얼핏 지나가는 어둠, 달그락 달그락 룰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지는 차륜소리.  
 나는 그제야 차창에서 눈길을 떼었습니다.  
 《어느덧 가마는 렬우에 올라섰지요.》  
 신선같이 팔네 집에 간다고 옛날소리에 오늘날리, 딸자랑에 사위자랑까지 하던 늙은이가 옛날 새각시가 가마를 타고 시집오던 이야기를 하는데 산세 험하고 길이 멀어서인지 아까부터 하던 이야기가 끝을 몰랐지요.  
 《이젠 거의 왔는가 하여 가마밖을 살그머니 내다보던 새각시는 그만 눈을 꼭 감고 입을 짝 벌렸다오.》  
 《아니 왜서요?》 아까부터 너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던 앞에 앉은 너인의 소리였습니다.  
 《글쎄 분명 자기 머리우에 있던 구름이 발밑에서 빙빙 도는데 그밑으로는 아찔하게 실오리같은 강줄기가 보이지 않겠소.  
 몸이 공중에 둥둥 뜬것 같고 금시 천길나락속으로 떨어질것 같아 오싹오싹 떨며 겨우 앉아있는데, 이런 일이라구야...  
 글쎄 가마꾼들이 보니 가마바닥에서 물이 툭렁 툭렁하구... 흐흐흐》  
 《예구 첫날 색시가 아무려면... 호호호. 거짓말 두 분수가 있지.》  
 《아니 거짓말이라니 자기는 보지도 못해가지고...》  
 아까는 옛날이라더니 이제는 또 금시 본것처럼 로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꼭대기 길우에서였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산꼭대기의 렬길은 정말 아찔하였소. 배스를 타고 오다가 차창으로 내다보면 발밑에 천길나락이 있는데 우리같은 남자들도 등골이 다 오싹해지곤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슬령》으로 불리웠겠습니까.  
 씨잉- 하는 소리와 함께 렬차는 어둠에 잠기었습니다. 이어 렬차안의 조명이 커졌습니다.  
 덜커덩덜커덩 굴간벽에 공명되어 더 세계 울리는 차륜소리에 사람들의 이야기소리도 잦아들고

불빛이 흘러가는 차창밖으로는 콘크리트벽이 휘 휘 지나갔습니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은 나는 처음부터 시종 말이 없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생각깊은 눈길로 내다보는 맞은편의 돌격대제복을 입은 처녀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 밖을 내다보는 처녀의 눈길은 왜서인지 추연한 빛이었습니다.

어째선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의 이야기판에도 섭ल्ली지 않고 창밖만을 지그시 응시하는 처녀... 저 처녀는 무슨 사연을 안고있기에 콘크리트벽체뿐인 차창밖을 저렇듯 뚫어지게 바라보고있는지.

어느덧 렬차는 굴속에서 쑥 빠져나오고 동시에 차안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 빛속에서 나는 처녀의 눈굽이축축이 젖어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가슴이 찌르르해났습니다.

처녀가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닦는것을 띄여 본 늙은이가 물었습니다.

《체넨 왜 그러나?》

《아니 그저... 우리가 건설한 차굴이 돼서...》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처녀에게로 확 집중되었습니다. 저렇듯 아름다운 처녀가, 겉으로는 연약하고 아련하게만 보이는 저 처녀가 이렇게 거창한 차굴을 건설했다말인가.

늙은 로인은 처녀의 두손을 잡아흔들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체넨의 오른손이 의수가 아닌가. 응?》

그제야 나는 처녀가 별스레 오른손을 계속 무릎우에만 올려놓고있던것이 상기되었습니다.

《얼마나 수골 했겠나. 손이 다 이렇게 되구. 쫓쫓.》

로인은 처녀의 의수를 꼬당겨 마디굵은 손으로 쓸며 울먹이었지요.

《아버님도, 수고는 무슨 수고겠나요. 우리야 청년들이 아닙니까.》

사실말이지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이처럼 거창한 대건설을 꽤 해낼수 있을가 하고말이에요.》

달그닥달그닥 가락맞은 소리를 울리며 렬차는 아아한 계곡사이를 가로지른 철다리우를 기세차게 달리었습니다. 그 소리를 타고 처녀의 도란도란한 말소리는 울리었습니다.

차창밖으로는 양지쪽 산기슭에 무더기로 피어난 진달래들이 언뜻언뜻 스쳐지나가며 우리의 눈

길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돌격대기발을 날리며 이곳에 왔을때에는 그저 기분이 흥 떠있었지요. 그저 웃고 떠들고 노래부르고... 꼭 학교때 등산을 온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일에 달라붙고보니 험치 않더군요. 일숨씨는 서투르지, 조건은 간고하지 게다가 일 자리는 나지 않아 앞길은 막막해보이지.

정말 공연히 왔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대공사를 우리 청년들만의 힘으로 해낼수 있을가 하는 나약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생긋이 웃었는데 그의 입술짹으로 하얀 옥이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이악한 처녀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사는 당에서 우리 청년들을 믿고 맡겨주신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당의 믿음을 저버리는것으로 되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될게 아닙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곤하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냈답니다.》

가름한 얼굴에 반짝이는 눈, 자그마한 입술, 가늘사한 목, 그 어데를 보아도 한창 물먹은 꽃처럼 애되고 연약하게만 느껴지는 처녀.

이런 청년들이 이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웠구나! 내가 배움의 희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으로 떠날 때 이들은 북방의 거친 땅으로 왔고 내가 대학의 창가에서 공부도 어렵게 생각할 때 이들은 찬바람 눈비도 달게 맞았구나.

아 이런 청년들의 노력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오늘의 걸음이 이리도 즐거운것이 아닌가? 왜서인지 나의 눈길은 의수를 한 처녀의 오른팔로 자꾸만 향하였습니다. 불쑥 두손모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싶은 생각도 들더군요만요.

《아이 제가 그만.》

렬차가 한 간이역에 들어서자 처녀는 서둘러 일어나면서 당반우에서 가방을 내리웠습니다.

렬차가 채 몇기도전에 3~4명의 돌격대원들이 뛰어올랐습니다.

《희속동무!》

《동무들, 여기요. 여기...》



삼시에 10여명의 돌격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렬차안임을 잊었는지 결의 손님들은 생각지 않고 부르고 묻고 웃고 떠들며...

나는 그때에야 그 처녀의 이름이 희숙이며 병원에서 퇴원하여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오를 때처럼 서둘러대며 내리었습니다.

렬차안은 물뿌린듯한 정적이 깃들고 사람마다 창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렇게 만났지요.

그러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만남이 나의 심장에 사랑이라는 불을 단것은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정이랄까 동정이랄까 동무의 모습은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내 고향의 번영을 위하여 팔까지 잃은 처녀, 그런데 나는 이 고향길에 무엇을 바치었던가?

소리도 없이 조용한 봄벌이 언땅을 녹이고 아지랑이를 피어올리듯이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한 동무의 모습은 까닭없이 이 마음의 안정을 헛كل어놓았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도 동무생각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동무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서인지 아무리 그려보아도 동무의 정확한 모습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처럼만 생각되었습니다.

동무에 대해 생각할수록 왜서인지 마음이 죄스러웠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위해주고싶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작년부터 토종꿀에 산삼을 채워놓은것이다. 명심하여 꼭꼭 먹어라.》

어머니가 보약을 가방에 넣어줄 때 선뜻 떠오르는것이 동무의 모습이었으며 그것으로라도 내 고향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동무에게 인사를 하고싶었고 또 그것이 응당한 도리이며 의무라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마음의 충동은 오는길에 나로 하여금 도중역에서 내려게 하였습니다.

붉은 기발이 날리는 돌격대병실앞에 와서야 위구감이 들더군요. 전혀 생소한 처녀인데... 나를 어떻게 대할것인가? 허나 이미 내친 걸음이었습니다.

정문앞 접수실에서 《직일》이라고 새긴 완장을 낀 처녀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저 희숙동무를 좀 만나려고...》

《네?! 어느 희숙이 말입니까?》

어느 희숙이라니? 그럼 이곳에 희숙이가...

온몸에서 확 달아오른 열기가 얼굴에 집중되는 듯 낮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상스러웠던지 처녀의 눈에는 의문이 실렸습니다.

《...저 얼마전에 병원에서... 저...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해난 나는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멜가방을 멘 오른팔을 내리그었습니다.

아차 하는 뒤늦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처녀의 얼굴에 반가움이 깃들더군요.

《네- 강희숙언니말입니까? 아이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처녀의 말이 빨라지면서 기쁨이 넘치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이젠 점점 난처해지더군요.

《그저 좀...》

점점 난감해하는 나의 모습에 처녀는 알겠다는 듯 생긋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직일관동지예요? 희숙언니한테 면회를 왔습니다. 네. (왜서인지 처녀는 나를 슬쩍 쳐다보며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애인같습니다.》

애인이라니, 이런 억측이 어데 있담. 아니라는 항변은 나가지 않고 입만 짹 벌어지었습니다.

전화기를 놓은 처녀는 어정쩡하여있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들까붙어했습니다.

《고마워요.》

젠장, 무엇이 고맙다는건가? 콩새처럼 까불긴?

《야, 그런데 이틀만 빨리 오시지. 희숙언니 그저께 떠났어요.》

《네?! 아니 어디로 말입니까?》

《집으로 갔지요. 야참 언니도 며칠만 더 있으라는데.》

이때 3명의 돌격대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수고스럽게 왔습니다.》

그들은 구면친구라도 만난듯 스스럼없이 나를 대하며 저마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대대장입니다.》 그의 손에는 뚜껑이 열린 만년필이 쥐여있었습니다.

《저는 희숙동무의 중대장입니다.》

《난 여기 후방참모요. 차 이 친구 멋있구만.》

취사복을 입은 그는 무우쪼박이 묻은 물기가 번지르한 커다란 식칼을 든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경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젠장 관청에 온 촌답이라더니, 순간에 열이 빠진듯 어정쩡하여진 나는 떠밀리우듯 자그마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사무실은 벽적 뚫었습니다.

《여 식당근무.》



후방참모의 소리에 흰 취사복을 입은 돌격대원이 달려왔습니다.

후방참모는 그에게 열쇠뭉치를 던져주면서 (무슨놈의 열쇠가 저리도 많은지 한키로그람은 잘되겠군하는 엉터리없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어라 말하더군요.

이윽하여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그득 담긴 다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권하는데로 넘적 받아 한입 베어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리둥절한속에서 빠져나오려고요.

《아하 이 친구 수태 목말랐구만.》

오른손의 사과는 아직 절반이상 있는데 왼손에도 하나의 사과가 쥐여졌습니다.

앞벽에 걸린 거울에 두손에 사과를 쥐고 땡여있는 나의 모습은 꼭 교예막간극배우처럼 보이더군요.

허거튼 웃음은 입안의 사과도 넘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차 내가 왜 이래, 나는 손에 쥔 사과를 놓고 넥타이를 늦추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일보십니까?》

세쌍의 호기심어린 눈들이 나의 얼굴에 집중되었습니다.

《화학공업대학 박사원에...》

《아하, 언젠가 회숙동무가 박사원에 있는 동무소리를 하더니 바로 동무였구만. 괜찮아.》

《네- 예?!》

머리까지 끄덕이며 하는 후방참모의 말은 겨우 안정되어가는 나의 마음을 또 들쑤셔놨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것이 아니라...》

《차, 이 친구 뭘 이렇게 수집어서... 하긴 그래서 사랑이지요.》

《그럼요.》

이건 저희들끼리 찢고 까불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자는건지.

《저 회숙동무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나 이 친구 무얼 자꾸 아니아니 하면서 그래.》

후방참모가 눈까지 크게 뜨며 소리를 높이니까 밝힐수도 없고 정말 난처하더군요.

이렇게 나는 본의아니게 동무의 《애인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오. 아니라고 밝히자면 그 동무들이 좀 가만 있어야겠는데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제편에서 더 뿜어대는데...

그런데 난 거기에서 진짜 회숙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짙은 향기로 청춘시절의 아름다움을 한껏 머금은 동무의 모습을 말ियो.

생활에서는 웃음도 눈물도 많은 다심한 처녀였지만 일에 들어가서는 그 누구도 당하기 힘들었다는 이악쟁이...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동되어 동년배인 돌격대원들까지 《누나》라고 불렀다는 웃음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 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나의 눈굽을 찢릿하게 하였습니다.

더우기는 불의에 닦친 정황에서 제 한몸으로 무너져내리는 암반을 막아 동무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였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운반식사를 들고오던 회숙동무로서는 소리만 쳐도 량심에 꺼릴 일은 없었지요. 그런데 그 동무는 소리에 앞서 몸으로 위험을 막았소. 그 통에 우리는 한사람도 다치지 않고 회숙동무만 그만...》

전혀 심중한 자세란 있을것 같지 않게 히물히물 통담만 하던 후방참모까지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말하더군요.

기어이 하루밤 목어가라고 강다짐을 부리는 지휘관들의 생억지,

친형제를 만난것처럼 반가와하던 대원들의 순박하고도 열정적인 모습,

이것이 과연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회숙이라는 녀성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점점 한갓 런던의 정으로만 생각하던 한 처녀가 도무지 오를수 없는 높이에 이른 녀성으로 생각되면서 이 마음을 사로잡는것이였습니다.

그렇수록 《애인》이라는 연기에 저도 몰래 익숙되어갔습니다.

《연구사동무, 우리의 뭍까지 다하여 회숙동무를 사랑하여주오.》

예상외의 부탁이였습니다. 그 진정어린 부탁대로 정녕 이 한몸의 열정을 그대로 쏟아부어 사랑하고싶은 욕망이 커졌습니다.

그 가슴속 충동을 안고 동무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의아히 맞아주고 뽕대하던 동무의 모습, 그 쌀쌀하게만 보이는 모습도 나의 가슴에 피어나는 뜨거움을 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앞에서 다하지 못한 말을 전번 편지에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정을 받을수 없어요...》 그래 나의 진정이 한갓 동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동정, 그래 도대체 무엇때문에 동무가 동정의 대상으로 되는가요?

물론 동정은 사랑이 아니지요. 또 내가 동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정도 동정했던것만은 사실입

니다. 하지만 동정이 사랑의 짝으로 될수도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동정하는 과정에 그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도 되는겁니다.

사실 나는 조국에 바친 동무의 그 보람찬 청춘 시절과 비판을 모르는 낙관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그 매혹이 나의 녀과 육체에 사랑이라는 불을 지퍼올렸습니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은 심장에 달린 불이라더니 그래도 이렇게까지야 사람을 진정 못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도 매정스러운 동무에게 나의 이 마음을 리해시킬수 있을런지?

어느 소설엔가 한 처녀는 소낙비가 쏟아지는곳에 남자를 한시간 세워놓고 자기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검열하였다더니 그런 방법이라면 난 그따위 소낙비쯤은 열흘이라도 맞겠습니다.

희숙동무, 동무에게로 끌리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리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리해해주시오. 나의 마음은 그 어떤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어쩔수 없게 끌리우는 마음도 몸도 완전히 사로잡힌 매혹된 감정의 분출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니다. 봄별처럼 소리도 없이 마음속에 깃든 희숙이라는 녀성에게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매혹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동무의 아름다움의 높이에 오르지 못하는 짝이 기우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만일 배척의 리유로 된다면 나는 서운한대로 물러서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서로 잘 모르지요. 겨우 두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순간에 인간의 진가를, 그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오. 내 진정 조국과 시대 앞에 떳떳한 일을 하여놓고 동무의 그 마음의 높이에 나의 마음을 올려세울 때 다시 사랑을 청하겠소.

자기에게 완전히 매혹되어 진정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쌀쌀히 외면하는것도 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너무도 깊은 짝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외면하지는 말아주시오.

우리는 래일부터 XX화학공장건설장에 연구실습을 떠나야 합니다. 연구라는 랑정한것은 자기 외에 단 1프로의 열정과 노력이라도 다른곳에 돌리는것을 허용안하지요. 과연 이리도 온몸을 사

로잡는 동무에 대한 생각을 잊을수 있겠는지 아니 잊을수 없을겁니다. 그 사랑은 나의 연구사업을 떠밀어주는 힘이 될겁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내 청춘시절도 조국에 값있게 바쳐졌다 할 때 찾아가겠습니다.

XX년 0월 0일

동일 보냄

오늘도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동무가 일하는 화학공장 건설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마을 사람들모두가 그 화학공장건설이야기로 들끓고있습니다.

온 나라가 관심하는 중요한 공장건설을 위한 연구사업에 나선 동무의 사업에서 성과를 바랍니다.

XX년 0월 0일

강희숙 올림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되고있다니 축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의 고무로 이룩된 성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동무는 이렇게 썼지요.

... 성공의 회열을 느끼는 이 시각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것이 희숙동무, 동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소. 동무가 보내준 편지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고무로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동무의 편지는 식어져가는 나의 열정에 뜨거움을 더하여주고 난관앞에 주접이 드는 몸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은 순조롭게 되어가던 연구가 천길나락과 맞선듯 도무지 진척을 모르고 3일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던 날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연구와 시원치 많은 결과는 몸의 기력을 다 뽑았고 복잡한 화학식과 시약들에 지친 머리는 천근무게에 눌리운듯 무거웠고 침침한 굴속에 빠진듯 숨쉬기까지 가쁘더군요만요.

한치의 전진도 없는 캄캄한 미궁, 물러드는 피곤에 어느사이 나약성이 머리를 쳐들었는지...

한잠만 자고나면 머리도 거뜬하여지고 방도도 모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집요스럽게는 떠올랐습니니다.

어느사이 몸은 벌써 침실로 향하였습니다. 3일만에 찾아오는 침실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쥐려는 순간 그곳에 끼워진 편지봉투가 눈에 띄었습

니다. 무심히 보던 나는 낮익은 글씨에 심장이 얼어드는 듯한 감을 느끼었습니다.

아 순간의 기쁨, 밀렸던 피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어떤 충격에 놀란듯 심장은 드세차게 뛰었습니다.

글줄이 그대로 살아움직이는듯 한자한자가 그대로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연구성과를 기다리는 동무의 모습이 온 나라 인민의 모습으로 엮바뀌어 나타났으며 엄혹한 눈보라를 이겨가며 싸워온 청년철길건설자들의 모습이 눈을 때렸습니다.

사정없이 불어오는 눈보라, 성에불린 모자머수건을 기발처럼 휘날리며 일하여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

아 그런데 나는 조그마한 난관에 무릎을 꿇다니, 일어서자.

그리하여 나는 즉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희숙동무, 정녕 그 편지는 나약한 마음에 의지를 심어준 고무의 힘이었습니다. 지친 몸에 활력을 준 샘줄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동무, 잊지 않고 제일 힘든 때 고무를 준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그대로 사랑의 씨앗이 되고 꽃으로 될 수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성의없는 글이 조금이나마 동무의 연구사업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동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달라진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개인적감정도 없는 오직 공민적 의무감의 충동으로 공장건설을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것입니다. 결코 공민적 의무감이 사랑의 감정으로야 될수 없지 않습니까?

제발 절 잊어주세요. 전 과학자의 안해가 될 재목이 못되는 사람이예요.

사실 동무야 이제부터 멀고도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 아니예요. 그야말로 과학을 위하여 1분과 초를 아껴가며 일생을 초물 녹이듯하여야 할 동무로서는 웅당 동무사업을 잘 도와줄수 있는 훌륭한 녀성을 길동무로 삼아야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저처럼 변변치 못한 존재를 배우자로 택한다면... 그럴수는 없어요.

저같은 존재도 파분하게 생각해주는 마음만은 고맙습니다.

훌륭한 녀성을 만나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 저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으로 동무를 축하해주겠습니다.

더는 편지도 하지 맙시다. 우리의 편지는 공상에 가까운 놀음과 함께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강희숙 올림

결국 최후통첩장을 보냈구만요.

《공상에 가까운 놀음...》

그래 한 사나이의 가슴속 뜨거운 진정이 고작 공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정합니다.

저의 이 편지를 백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는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희숙동무의 그 어떤 미모에가 아니라 동무의 마음, 우리 시대 청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속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으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다 해도 또 아무리 오래동안 떨어져있다 해도 진정한 사랑의 불길은 끝수 없는것입니다.

인생의 한길에서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행복의 열매를 마련하고 그 길에서 힘이 진하면 힘을 주고 때가 끼면 닦아주고 걸음이 떠지면 채찍질해주고 바람이 불면 몸으로 막아주는 그런 참사랑, 사랑의 힘으로 그 어떤 시련도 맞받아나가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그런 참사랑, 그러한 참사랑을 우리는 과연 꽃피울수가 없단말입니까.

동무는 자신이 과학자의 안해가 될수 없는 몸이라고 하였는데 저에게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태적인 녀성적인 도움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을 리해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줄수 있는 그러한 녀성이 필요한것입니다.

일생동안 온 넋과 정신을 과학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데 쏟아부어야 할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은 개인의 화려하고 행복한 생활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를 성공이라는 명마루까지 끝까지 떠밀어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거들어주는 손길보다 리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진실한 마음만이 마음에 힘을 줄수 있는것입니다.

나는 동무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전투장에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 열정으로, 그 어떤 시련앞에서도 비판을 모르던 그 량만적인 성격으로 나를 도와준다면 나의 과학연

구사업에 큰 힘이 되고 나도 어려운 과학탐구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조국이라는 대지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이라는 대지가 비옥할수록 그 꽃은 더욱 아름답게, 진할줄 모르는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조국이라는 어머니대지를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기름지고 풍만하게 가꾸어나갈수 없단말입니까.

물론 나는 동무에게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 그 어떤 담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나이의 뜨거운 진정을 바쳐 동무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행복하려면 우선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동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담보는 우리 두사람의 마음속에 다같이 자리잡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며 동무를 끝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나이의 뜨겁고도 열렬한 진정입니다.

사랑이란 반기 위해서보다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데 저에게는 동무에게 줄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오직 진정, 이것 하나뿐입니다.

희숙동무.

우리 두사람의 마음을 합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행복을 쫓아워나갑시다.

내가 과학탐구의 빛나는 성과로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라에 보탬을 줄 때 우리는 행복할것입니다.

그 한길에서 나는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을것입니다.

내가 동무네 집에 찾아갔을 때 동무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자신의 청춘시절을 두고 떳떳하고 긍지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비록 한팔을 잃었지만 일생 비판하지 않을거예요.》

희숙동무.

우리 시대 청춘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일신의 안락과 행복은 생각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길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무는 이미 청춘시절을 조국을 위해, 집단을 위해 값높이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동무는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 어떤 행복도 마음껏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숙동무.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동무의 방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무의 정신적인 방조가...

부디 이 사나이의 진정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일 보냄

몇번이고 몇번이고 주저하다 펜을 들었습니다.

동무의 그 불같은 편지가 저의 가슴을 높뛰게 하는군요.

하지만 동무의 그 마음은 저를 더욱 괴롭혀 줍니다.

저라고 왜 동무의 마음을 모르겠나요.

하지만 저같은 녀자가 동일동무에게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나요.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괴로움만 끼칠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이때까지 한팔을 잃은것때문에 언제 한번 괴롭다거나 섭섭하게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몹시도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두팔이 다 성성하다면 동일동무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어줄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정말 어쩔으면 좋을지...

동무의 그 불같은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자니 제가 너무 차거운 녀자처럼 생각되고...

그렇다고 또 동무한테 일생 짐이 될수는 없는 일이고...

이이상 저를 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년 ○월 ○일

강희숙 올림

그 다음날 ××체신소 전신전보 취급자는 류다 큰 전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고맙습니다. 동무의 그 마음이면 되오. ××일 1단계 연구총화가 끝나면 즉시로 가겠음. 기다려주오. 고맙소.》

《아니 이건 편지예요 전보예요?》

청년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고집스레 말하였다.

《그대로 쳐주십시오. 지금으로말입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꾸벅하고는 뛰어나갔다.

고개를 기우뚱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깃들었다.

## 룡문대굴에서

윤경찬

《...먼 옛날부터 천하의 왕이라고 하던 룡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디에 정할까 하고 세상을 두루 살펴보다가 여기 조선의 룡문대굴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룡은 온갖 조화를 다 부려서 지하동굴을 룡궁답게 잘 꾸려놓고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룡은 이 굴을 거쳐 하늘로도 올라가고 땅속수천리도 주름잡으며 말그대로 하늘땅을 제마음대로 통치하다가 영영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룡문대굴이라는 세상유일의 지하궁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룡문대굴을 몸소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 이곳 강사가 들려준 한토막의 이야기이다.

그때 나는 룡문대굴을 돌아보면서 룡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지하의 별천지를 독차지하고 살았을가, 이렇게 희한한데를 두고 룡궁이라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룡이라는것이 실재한 짐승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논할바가 아니지만 구태여 따져본다면 그건 먼 옛날 사람들이 그려낸 신화적인 짐승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가 자신임을 알지 못했던 그때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압박과 피해속에 살면서 그러한 구속을 모르고 자유롭게 사는 존재를 그려보며 부러워했다.

사람들은 신비한 그 존재를 《룡》이라는 상상속의 짐승으로 부르면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주름잡으며 바다를 통채로 일으켜세우는 만능의 힘을 가진 룡처럼 자기들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왔었다.

옛말이나 전설들에 룡을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 많은것만 보아도 모든 악과 불의를 마음대로 징벌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룡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만복을 누리고싶어한것이 사람들이 바라던것이였음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전설속의 룡이 살았다는 룡문대굴이 고스란히 인민의것으로 되었으니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전설속의 룡과 같은 존재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마음이 흐뭇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전에 나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또다시 룡문대굴을 찾아갔다. 전번에는 황홀함에 취해버린데다가 이런 천하절승을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앞이 흐려와 작각적인 섬세성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구체적인 고찰을 해야겠다고 잡도릴 단단히 하고 갔었다.

그런데 결심은 또 틀려졌다.

거기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이 룡문대굴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일판을 크게 벌여놓고있었다.

천하절승의 황홀함을 방불하게 그려낼만한 자신이 없어 걱정이 컸었는데 취재대상을 볼수 없게 되었으니 일은 참 난감하게 된셈이었다.

도대체 세상에 둘도 없는 지하의 별천지에 무엇을 더 보탬게 있어서 이런 큰 일판을 펴놓고있는가. 천지만변의 슬기를 지녔다는 룡이 제 재간껏 꾸려놓았다는곳인데 볼수록 황홀하기만 한 이 신비경속에 무엇이 부족하단말인가. 더구나 지금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데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극한점에 치달아올라있는 현 정세하에서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땀을 바치고있는 이 공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의문에 잠겨있던 나는 제스스로 떠오르는 대답에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번쩍 들었



다.

머리우엔 끝없이 맑고 푸른 세계가 펼쳐져있고 거기서는 따사로운 태양이 대지를 향해 찬란한 빛발을 아낌없이 뿌리고있었다.

이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누구나 이 룡문대굴을 세상에 둘도 없는 지하명승으로 공인하고있었던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은 만족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천하절경이라 이르는 룡궁도 인민의 것으로 되자면 부족한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었던 것이다.

그러시기에 만능의 힘을 자랑하던 룡이 제 재간껏 꾸려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했던 지하궁전을 보다 더 훌륭하게 완성하여 인민의 명승지로 선물하실 원대한 구상을 하신 것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보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가지 보화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준엄한 이 시기에 이렇듯 큰 사업을 설계하실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황홀한곳인줄 알았던 이곳을 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가꾸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신화속의 룡이 지녔다는 천지조화의 슬기보다 더 위력한 힘과 지혜로 다듬어주시거니.

아, 언제면 우리 장군님의 철의 담력과 의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을 다 헤아릴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진귀하고 값진것이 고스란히 돈많은 몇몇 부자들의것으로만 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곳곳을 둘러볼 때 세상유일의 지하궁전을 인민의 것으로 되게 하신 우리 장군님은 정녕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조물주도 창조해내지 못한 인간사랑의 전설을 날에날마다 창조하시는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 사랑의 화신이다.

인민에 대한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안고계시기에 이이께서는 인민에게 안겨줄 명승지와 휴양지들을 더 많이 마련해주시려고 멀리 북쪽의 칠보산에서 중부의 구월산, 정방산으로 끝없는 로고의 자욱을 이어가신다.

우리 장군님 남기시는 그 불멸의 자욱자욱에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총화를 확신하는것이며 오늘의 어려움을 웃으며 이겨내고 래일에 맞이할 행복을 환희에 넘쳐 그로보는 것이다.

창조의 기쁨이 넘치는 여기 공사장에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게 되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전설속의 룡은 왜 여기를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가. 혹시 여기가 로동당시대에 와서 인민의 것으로 되리라는걸 미리 알고있었던 것인가. 자기가 인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것을 그때 벌써 예감했는가. 그 룡이 지금 하늘가 어디에서 자기 살던 이 땅을 내려다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가.

수령복, 당복을 누리는 인민은 신화속의 룡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존재가 되어 세상의 온갖 복을 독차지하고 락을 누리는구나 하고 우리 인민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렇다. 먼 옛날 만능의 힘을 지녔다는 룡과 같은 존재가 되어 행복을 누리고싶어하던 인민의 소원은 대대로 인민의 수령을 모신것으로 하여 활짝 꽃피어나 그 룡보다 더 강하고 신비한 존재로 되었으니 민족의 행복은 령도자의 위대성과 손길에서만 꽃필수 있다는것이 오늘날 인류와 세계가 찾은 진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터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휴식참을 보내며 떠들썩 오락회를 벌리고있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 룡문대굴 명승가》의 흥겨운 노래가락이 내 가슴에도 흘러들며 끝없는 행복감에 휩싸이게 한다.

...

땅우에도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 나라  
땅속에도 햇빛밝은 제일강산 내 나라  
이름없는 심산속에 잠자던 천연동굴  
예헤 복받은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졌네